

임업관측사업

2010년 사업결과와 2011년 추진계획

장	철	수	연	구	위	원			
석	현	덕	선	임	연	구	위	원	
민	경	택	부	연	구	위	원		
송	성	환	초	청	전	문	연	구	원
김	진	경	위	측	연	구	원		
안	상	선	인	턴	연	구	원		
심	선	우	인	턴	연	구	원		

머 리 말

우리 연구원에서는 산림청의 지원 하에 2003년 밤을 시작으로 표고버섯, 대추, 뽕은감 등 임업관측대상 품목을 확대해 왔으며, 2010년에는 산채류, 조경수 등을 포함한 6개 품목의 관측이 실시되었다. 향후 DDA, FTA 등 국제교역 여건의 변화와 함께 임산물관측에 대한 수요는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업관측사업의 목적은 임산물의 재배에서부터 생산, 판매, 유통, 수출입에 이르기 까지 단기 동향을 분석 및 전망하여 그 결과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생산 및 유통관련 종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데 있다. 산지에는 품목별 표본 임가, 통신원 및 지역자문위원을 두고 있고 중앙에는 중앙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객관적이며 내실 있고 신뢰성이 높은 관측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월보발행과 함께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업관측정보를 개설하여 임업관측 월보와 연차동향/전망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관측결과를 다양하고 신속하게 분산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발행된 월보는 PDF 파일로 도 변환되어 게시되므로 쉽게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표본임가조사의 웹조사시스템 도입으로 조사의 정확도와 신속도를 제고하였다.

이 연구 자료는 2010년도 임업관측사업의 결과물과 2011년도 임업관측사업의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이 자료가 임업관측을 이해하고 홍보하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 바라며,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산림청 관계자와 임업관측사업에 협조해 주신 중앙 및 지역자문위원, 표본 임가, 시·군 담당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0.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목 차

제1장 임업관측사업의 개요

1. 임업관측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1
2. 임업관측사업의 기본방향 2
3. 임업관측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체계 3
4. 기대 효과 5

제2장 2010년도 임업관측사업 추진 결과

1. 임업관측 대상 품목, 금액 및 내용 6
2. 임업관측사업 추진일정 및 체계 7
3. 임업관측사업의 추진결과 10
4. 임업관측사업의 만족도 평가 16
5. 품목별 2010년 동향 및 2011년 1/4분기 전망 46

제3장 2011년도 임업관측사업 추진계획(안)

1. 대상 품목 및 내용 60
2. 세부 추진계획 61
3. 관측사업의 내실화 추진계획 65

제4장 임산물 수급동향과 전망: 밤, 표고버섯

1. 밤 68
2. 표고버섯 83

- 부록**
- 1: 임업관측(밤) 월보 101
 - 2: 임업관측(표고버섯) 월보 133
 - 3: 임업관측(대추)월보 169
 - 4: 임업관측(뽕은감)월보 191
 - 5: 임업관측(산채류)월보 213
 - 6: 임업관측(조경수)월보 235
 - 7: 2010년도 임업관측사업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249

제 1 장

임업관측사업의 개요

1. 임업관측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1.1. 임업 관측사업의 필요성

-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가 진행됨에 따라 임산물 시장은 국내 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시장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음.
 - 해외 시장의 변화는 국내 생산과 가격,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임산물 생산계획 수립에서도 이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이 필요하게 되었음.
- 시장동향과 가격, 해외시장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은 임산물의 시장 출하를 안정시켜서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임가 소득을 안정시키게 될 것임.
- 밤, 표고버섯, 대추, 뽕은감, 산채류, 조경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은 생산액과 생산자수도 많으며 농산촌 주민의 소득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의 계절성을 가지므로 생산자들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출하시기에 따라 생산자 판매가격이 달라지고 소득이 다르며 도로와 교통의 발달로 물류 환경이 크게 개선됨으로써 임산물 판매에서도 속도와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음.

-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임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급안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임산물 시장의 정보수집과 분석, D/B 구축, 관측 및 관측결과물의 분산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임업관측 사업이 필요함.

1.2. 임업관측사업의 목적

- 임업관측사업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임업부문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임산물 생산 및 유통 종사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어 관련 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대응력을 증진시키고자 함.
- 단기적인 출하와 가격, 출하시기 등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 임산물 재배자들이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출하를 조절하는 의사결정을 돕고, 궁극적으로 임산물의 수급안정은 물론 임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임.
- 임산물 생산 및 경영의 합리화, 유통기능의 원활화 등을 위해 임산물 재배동향, 가격동향 및 수급동향에 관한 중단기 예측정보를 개발하고 관측정보의 제공을 통해 임산물의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2. 임업관측사업의 기본방향

- 작황, 가격, 수출·입, 해외시장 동향에 관한 종합적인 관측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임산물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유도하여 생산자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자율영농의 기반을 마련함.
 - 광범위한 정보수집 체계 확립
 - 종합적 정보 분석 능력제고
 - 관측정보 분산체계 확립
- 임산물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정보수집 체계를 확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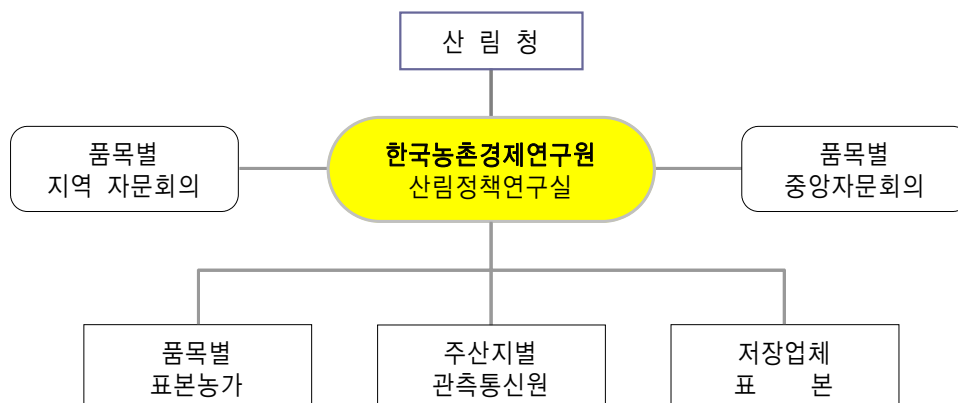
3. 임업관측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체계

3.1. 임업관측사업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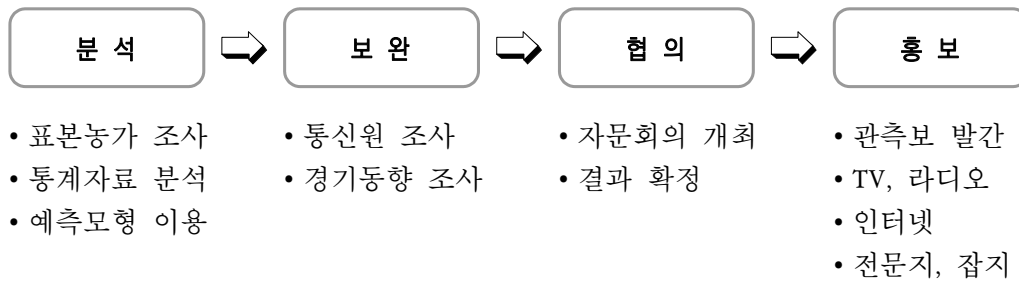
- 품목별 시장동향 및 단기전망
 - 품목별 재배동향 및 단기예측
 - 품목별 작황 및 출하 동향, 가격동향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품목별 해외시장 동향 및 전망
- 연차 동향 및 중장기 전망
 - 거시경제, 품목별 국내외 시장의 연차동향
 - 품목별 수급에 대한 중장기 전망
- 관측/전망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임업관측 홈페이지 구축, 콘텐츠 개발·유지 및 관리
 - 관측 D/B구축 및 시황 정보 제공
 - 관측정보시스템 개발
 - 단기 예측기법, 중장기 예측모형 개발

3.2. 임업관측사업 추진 체계

3.2.1. 관측사업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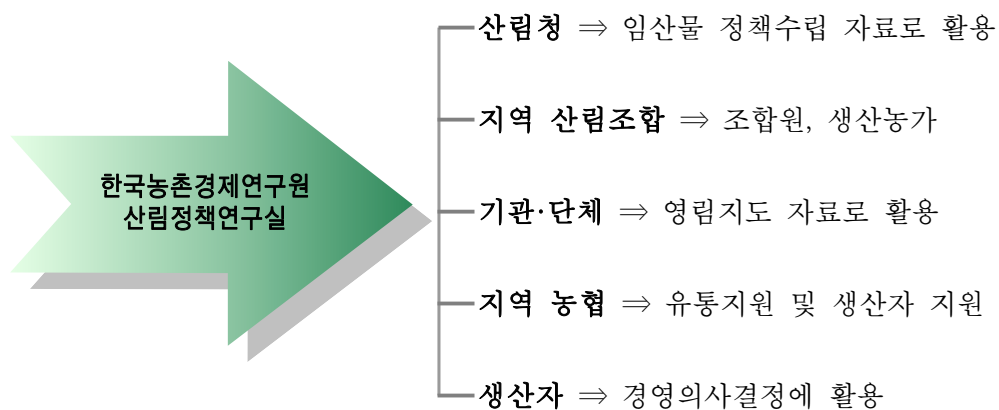
3.2.2. 관측 방법



3.2.3. 관측결과 홍보

- 본안 홍보 : 임업관측 월보, 인터넷
- 전단 홍보 : 필요시
- 해설 홍보 : 전문지, 신문, TV, 라디오
- 교육 활동 : 생산자, 유통업자, 관련자 교육

3.2.4. 홍보 체계



4. 기대 효과

- 임산물의 품목별 수급동향, 가격 동향 및 미래정보를 제시하여 생산자들의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재배품목의 선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함.
- 정확하고 신속한 시장정보의 제공을 통해 임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음.
- 임산물의 시장 정보를 인터넷, TV, 라디오, 월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하여 생산 및 유통 종사자의 정보수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상시적인 시장정보의 수집으로 신속하게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음.

제 2 장

2010년도 임업관측사업 추진 결과

1. 임업관측 대상 품목, 금액 및 내용

1.1. 대상 품목 및 금액

- 대상 품목: 밤, 표고버섯, 대추, 뽕은감, 조경수, 산채류
- 사업 금액: 6억원

1.2. 관측 내용

- 품목별 월별 가격동향 및 전망
- 품목별 월별 작황 및 재배 동향
- 품목별 생산지 시장 동향
- 품목별 소비지 시장 동향
- 품목별 저장 동향
- 해외시장 동향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소비자 구매행태 조사

2. 임업관측사업 추진일정 및 체계

2.1. 관측 일정

□ 밤

- 준비작업: 2010년 1~2월
- 월보발간: 2010년 3월부터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격월(3,5,7,9,11월) 15일 발행하되,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8, 10월은 속보를 발간
 - 발행부수: 각각 3,800부

□ 표고버섯

- 준비작업: 2010년 1~2월
- 월보발간: 2010년 3월부터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매월(12, 1, 2, 8월 제외) 15일에 발행
 - 발행부수: 각각 3,500부

□ 대추

- 준비: 2010년 1~3월
- 월보발간: 2010년 4월부터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 수확기를 전후하여 4, 8, 9, 10, 11월 15일에 발행
 - 발행부수 : 각각 2,360부

□ 땀은감

- 준비: 2010년 1~3월
- 월보발간: 2010년 4월부터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 수확기를 전후하여 4, 8, 9, 10, 11월 15일에 발행
 - 발행부수 : 각각 2,340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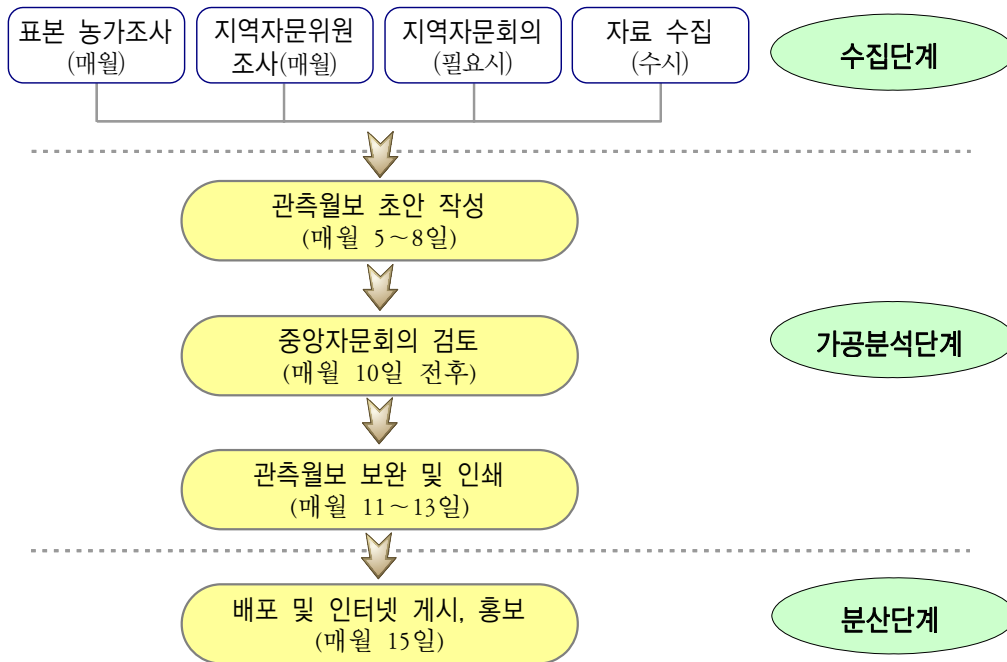
□ 산채류

- 준비: 2010년 1~3월
- 월보발간: 2010년 4월부터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 수확기를 전후하여 4, 5, 6, 8, 9월 15일에 발행
 - 발행부수 : 각각 2,100부

□ 조경수

- 준비: 2009년 12월~2010년 5월
- 월보발간: 2010년 6월부터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 주요 판매시기 전 6, 8월 15일에 발행
 - 발행부수 : 각각 2,100부

2.2. 임업관측사업 추진 체계



2.3. 관측결과의 분산체계

- 임업관측보 우편 발송
 - 월 보 (매월 15일 우송)
 - 산림청, 산림조합, 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표본농가, 지역자문위원, 광역시, 시·군 지방자치단체, 생산지 농협, 기타
- 전문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에 게시
 - KBS 텔레비전, 라디오 등
 - 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
 -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http://www.forestinfo.or.kr>)
 - 각종 전문지에 게재: 한국임업신문, 한국농정, 한국영농신문, 원예산업신문, 농축산신문, 버섯정보신문, 농축유통신문, 전업농신문, 월간 버섯 등
 - 임업후계자, 산림정책평가위원, 산림정책모니터요원 등에게 인터넷발송

3. 임업관측사업의 추진결과

3.1. 지역자문위원 및 통신원, 표본농가 정비

□ 밤

- 지역자문위원 및 표본농가: 표본농가 260호(예비농가 50호 포함), 주산지를 고려하여 지역자문위원 및 통신원 24명을 유지하되 지역, 연령, 재배경력, 최근 3년간 평균 응답횟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자문 및 통신원 3명, 표본농가 20명 교체.

□ 표고버섯

- 지역자문위원 및 표본농가: 표본농가 300호(예비농가 35호 포함)를 유지하되 지역자문위원 30명에서 지역, 연령,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자문 4명을 추가하여 지역자문위원 34명으로 운영하였음.

□ 대추

- 지역자문위원 및 표본농가: 표본농가 137호(예비농가 20호 포함), 지역자문위원 23명 가운데 지역, 연령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표본농가 7명을 추가하고 지역자문 1명을 교체하여 표본농가 144명, 지역자문위원 23명으로 운영함.

□ 뽕은감

- 지역자문위원 및 표본농가: 표본농가 100호(예비농가 20호 포함), 지역자문위원 30명 가운데 지역, 연령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표본농가 20명을 제외하고 36명을 보완하여 표본농가 116명, 지역자문위원 30명으로 운영하였음.

□ 산채류

- 지역자문위원 및 표본농가: 2010년 신규품목으로 표본농가 442호(예비농가 40호 포함), 지역자문위원 13명을 선정 운영하였음.

□ 조경수

- 지역자문위원 및 표본농가: 2010년 신규품목으로 표본농가 391호(예비농가 20호 포함), 지역자문위원 17명을 선정 운영하였음.

3.2. 중앙자문위원 선정 및 운영

□ 중앙자문위원 선정

- 임업관측(밤) 중앙자문위원은 기존의 중앙자문위원 수를 유지하면서 일부를 업계 사정에 밝고, 경력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교체하였음
 - 밤: 중앙자문위원 14명 중 3명을 교체
- 임업관측(표고버섯) 중앙자문위원의 경우, 기존의 중앙자문위원 수를 유지하면서 일부를 업계사정에 밝고 경력 및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교체하였음.
 - 표고버섯: 중앙자문위원 15명 중 3명을 교체
- 임업관측(대추) 중앙자문위원은 기존의 중앙자문위원 수를 유지하면서 일부를 업계 사정에 밝고 경력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교체 및 보완하였음.
 - 대추: 중앙자문위원 10명 중 1명을 교체
- 임업관측(뽕은감) 중앙자문위원은 기존의 중앙자문위원 수를 유지하면서 일부를 업계 사정에 밝고 경력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교체 및 보완하였음.
 - 뽕은감: 중앙자문위원 13명 중 3명 제외, 2명을 보완
- 임업관측(산채류) 중앙자문위원은 업계 사정에 밝고 경력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총 16명을 선정하였음.
 - 산채류: 채배 6명, 유통 5명, 기술 2명, 정책 3명을 선정
- 임업관측(조경수) 중앙자문위원은 업계 사정에 밝고 경력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총 11명을 선정하였음.
 - 조경수: 채배 4명, 유통 2명, 기술 2명, 정책 3명을 선정

□ 중앙자문위원회 운영

- 현지에서 수집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내용을 검증하는 등 관측월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청, 생산자단체 대표, 유통업 종사자, 산림조합중앙회, 산지농협대표, 수출입조합 대표, 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

된 중앙자문위원회를 조직 및 운영하였음.

- 중앙자문위원회는 월보 발행 월의 10일을 전후하여 개최하여 발행예정 월보의 내용을 검토.

표 2-1. 2010년도 품목별 임업관측 중앙자문위원

구분	밤(14명)	표고버섯(15명)	대추(10명)
정 책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계장 산림청 품목담당자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 산림청 산림경영소득소득계장 산림청 품목담당자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계장 산림청 품목담당자
재 배	조좌연 (한국밤재배자협회장) 김학렬 (산청군 산림조합장) 이기호 (순천시 울림회장) 김의충 (소태밤농원 대표) 김영신 (만성농장)	서흥석 (한국표고버섯생산자협회) 심광택 (한국표고버섯생산자협회) 정의용 (전국톱밥표고재배자협회) 이정무 (부농표고)	김영식 (임당 대추농장) 이성희 (청도 산동대추연구회 회장) 김두철 (군위군 대추작목반 대표) 박대희(전보은대추연합회장)
유 통	양길원 (중부시장 신광상회) 오중성 (부여밤영농조합대표) 박찬균 (농협밤전국협의회회장)	고흥천 (농협버섯협의회회장) 민중우 (동화청과) 백홍준(장흥유치농협)	이준행 (한국농산)
무 역	차우진 (농림수출입조합) 정춘섭 (산림조합중앙회)	염대규 (농수산물유통공사) 박진출 (대일상사)	한재선 (동광물산)
기 술	황명수 (국립산림과학원)	박원철 (국립산림과학원) 유창현 (산림버섯연구소 고문) 박홍수 (산림버섯연구소장)	조기동 (청도군농업기술센터)
구분	뽕은감(13명)	산채류(16명)	조경수(11명)
정 책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계장 산림청 품목담당자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 산림청 산림경영소득소득계장 산림청 품목담당자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계장 산림청 품목담당자
재 배	이상길 (영동감연구회) 임정규 (완주감연합회장) 유인상(영암 개인농장) 조정환(산청 개인농장)	최성규 (인제군 곱취영농조합법인) 신차석 (태백시 산채연구회) 박행규 (청산임산) 강명수 (신선대고사리작목반) 윤재철 (할매고사리연구회) 조남상 (용문산산더덕)	최등원 (완주소양철쭉영농조합) 정근성 (전의조경수영농조합) 김훈성 (고창 개인농장) 김외식 (옥천이원묘목조합)
유 통	김진영 (경동시장 광성상회)	강만옥 (남해군 창선농협) 윤문식 (해성상회) 김혁수 (동횡성농협 청일지점) 김민수 (대복상회) 최승호 (동복상회)	신경준 (장원조경) 최귀남 (전남조경수유통영농조합법인)
무 역	김현수 (경동시장 우리상회)		
기 술	조두현 (상주감시험장) 조기동 (청도군농업기술센터) 박부인(상주곶감연합회 고문)	김종환 (강원도 특화작물시험장) 김재성 (국립산림과학원)	김재성 (국립산림과학원) 윤택승 (수프로)

3.3. 관측월보 발간 부수 및 배포

- 밤, 표고버섯, 대추, 뽕은감, 산채류, 조경수 등 6개 품목으로 발간되었으며, 2010년도 총 발간된 임업관측월보는 93,506부로서 2009년의 75,090부에 비해 18,416부가 증가하였음.
 - 기존품목 중 표본임가의 월보 수요 증가로 계획보다 추가 발간된 품목 발생.
- 조경수의 경우 2010년 신규 품목으로 회당 2,100부 발간 예정이었으나, 품목이 많고, 수요자가 증가함에 따라 200부를 추가적으로 발행함.

표 2-2. 임업관측월보의 월별 품목별 발간부수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밤	-	-	3,650	-	3,876	-	3,876	3,876	3,876	3,876	3,876	-	26,906
표고버섯	-	-	3,500	3,500	3,500	3,500	3,500	-	3,500	3,500	3,500	-	28,000
대 추	-	-	-	2,360	-	-	-	2,360	2,360	2,360	2,360	-	11,800
뽕 은 감	-	-	-	2,340	-	-	-	2,340	2,340	2,340	2,340	-	11,700
산 채 류	-	-	-	2,100	2,100	2,100		2,100	2,100				10,500
조 경 수	-	-	-	-	-	2,300	-	2,300	-	-	-	-	4,600
합계	-	-	7,150	10,300	9,476	7,900	7,376	12,976	14,176	12,076	12,076	-	93,506

- 임업관측월보는 생산시기 및 출하시기를 고려하여 표지디자인 및 내용구성 스타일을 소비자위주로 바꾸었고, 산림청, 지역 산림조합,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의 주요 기관과 임업관측사업에 참여하는 표본 농가 및 자문위원, 임가경제조사 대상자, 지역 생산자단체 등에게 배포되었음.

표 2-3. 임업관측월보의 품목별 배부처

단위: 배부수

배부처	밤	표고버섯	대추	뽕은감	산채류	조경수
□ 산림청	133	80	65	65	50	38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70	162	75	90	90	30
□ 표본농가	2,373	2,186	1,670	950	1,231	440
□ 지역산림조합	5,306	4,570	1,820	2,060	2,693	708
□ 산림조합중앙회	70	80	50	50	50	20
□ 임업후계자협회	-	80	50	50	50	20
□ 자문위원	1,757	1,905	935	800	160	334
□ 지방자치단체	4,550	7,750	2,480	2,680	2,634	992
□ 지역단위농협	3,892	1,600	1,000	1,000	400	400
□ 농업기술센터	-	5,344	2,475	2,475	2,505	990
□ 임가경제조사 대상자	4,037	2,836	210	425	417	166
□ 지역생산자단체	-	664	230	450	100	290
□ 기 타	4,718	743	440	605	120	172
계	26,906	28,000	11,500	11,700	10,500	4,600

3.4. 임업관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임업관측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품목별 관측월보와 연차 전망 등 단기 및 중·장기 관측사업 결과를 게시하여 운영하고 있음.
 - 홈페이지의 관측월보를 인쇄하기 편리한 화면으로 개선
 - 홈페이지에 관측월보 원문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PDF 파일을 제공
- 산림청 홈페이지 및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에 본 연구원의 임업관측정보 시스템을 링크하여 바로 임업관측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3.5. 관측결과에 대한 홍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 「농업전망 2010」에서 임산물의 동향과 전망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발표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본 연구원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제공되었음. 또한 이 발표는 농업전문방송과 YTN 등을 통해 중계되었고 KBS, MBC, SBS 등에서 큰 비중으로 다루어졌음.

- 밤 재배 순회 교육, (사)한국 밤 재배자협회 워크숍을 포함해 표고버섯 연찬회 등에서 주요 교육 자료로서 그리고 홍보자료로서 활용되었음.
- 관측월보의 내용은 발행 월의 20일을 전후하여 한국임업신문, 한국농정, 한국영농신문, 원예산업신문, 농축산신문, 버섯정보신문, 농축유통신문, 전업농신문, 월간 버섯 등 9개 전문지에 게재 되었음.

3.6. 중장기 관측

- 2010년 농업전망대회(2010.1.)에서 「임산물 수급동향과 전망: 밤, 표고버섯」에서 중장기 전망 결과를 발표하였음.

3.7. 관측품목 소비자 조사

- 밤, 표고버섯에 대한 소비자 의향조사 실시
 - 소비자조사: 밤, 표고버섯(2010. 8. 16~8. 21)
 - 관측월보에 게재: 밤(10월호), 표고버섯(10월호)

3.8. 표본임가조사 웹조사 시스템 도입

- 표본임가 조사 웹조사 시스템 도입으로 표본임가 관리의 전산화
 - 표본임가 정보의 전산화, 표본임가 조사의 신속성 및 정확성 제고

3.9. 관측품목 재배자 만족도조사

- 관측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였음.
 - 재배자 의식조사: 밤, 표고버섯, 대추, 뽕은감, 산채류, 조경수(2010.11.29~12.3)

4. 임업관측사업의 만족도 평가

4.1. 의식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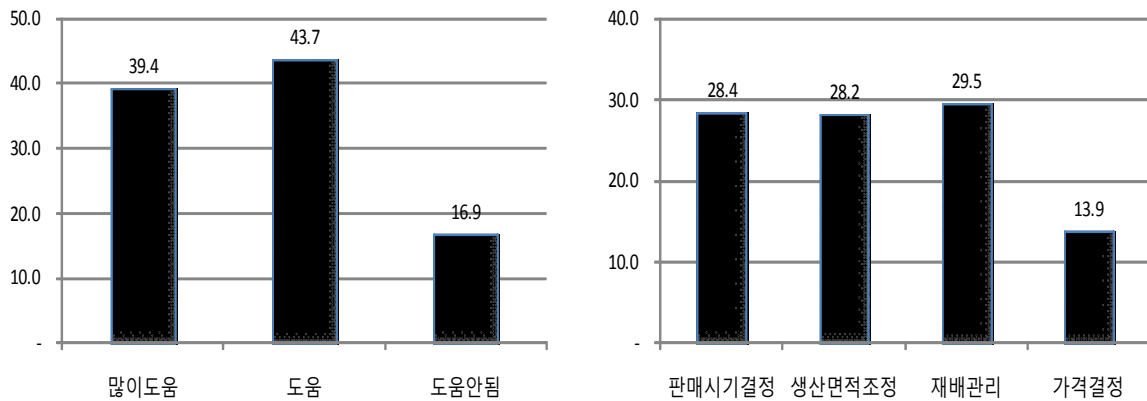
- 임업관측 월보발간에 대한 재배자 의식조사는 지역자문위원(통신원 포함) 및 표본농가 총 600명(품목별 1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전화조사로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참리서치’에서 진행하였음.
- 재배자 의식조사의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음.
 - 경영 의사결정 시 도움 정도
 - 경영 의사결정 시 기여 부문
 - 관측정보의 신뢰수준
 - 관측월보의 발간횟수
 - 관측월보 내용 중 주요 활용 부문
 - 관측월보의 정보 접근방법
 - 품목별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품목별 소비확대를 위한 추진 정책
- 재배자 의식조사 결과는 2009년에 실시된 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하였으며, 신뢰수준의 변화,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 등 주요 특징들에 대해 기술하였음.

4.2. 의식조사 결과(종합)

- 경영 의사결정 시 도움 정도(6개 품목 평균)
 -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서 임업관측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39.4%,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43.7%, 도움이 안 되었다는 의견이 16.9%로 대체로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밤, 표고, 대추, 뽕은감 등의 관측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2010년 신규 품목인 산채류와 조경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나타냄.

○ 경영 의사결정 시 기여 부문(6개 품목 평균)

- 관측정보가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었다면 어떠한 부문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재배관리가 29.5%로 1순위, 판매시기결정이 28.4%로 2순위, 생산면적조정이 28.2%로 3순위, 가격결정이 13.9%로 4순위로 나타남.
- 기여부문에 대해서는 품목간 우선순위의 차이가 다소 발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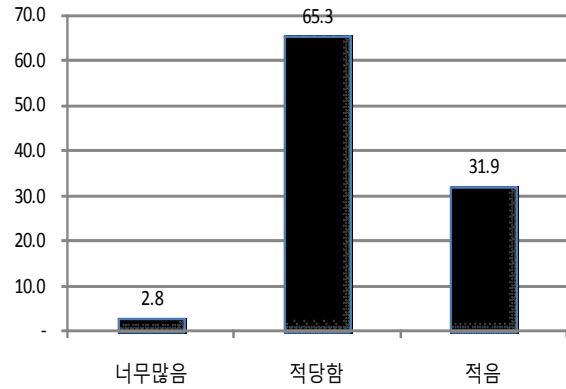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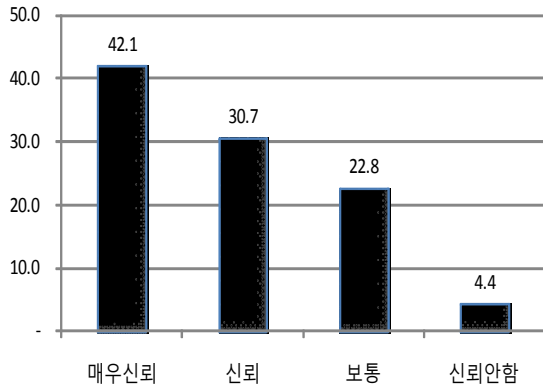


○ 관측정보의 신뢰수준(6개 품목 평균)

- 관측정보에 대한 신뢰수준에 있어서는 매우 신뢰가 42.1%, 조금 신뢰가 30.7%, 보통 22.8%, 신뢰하지 않음이 4.4%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산채류와 조경수에 비해 밤, 표고, 대추, 뽕은감 등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관측월보의 발간횟수(6개 품목 평균)

- 관측월보의 발간횟수에 있어서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6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너무 많음 2.8%, 적음이 31.9%로 나타남.
- 적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던 품목은 2회 발간되는 조경수였으며, 뽕은감, 산채류가 다음순위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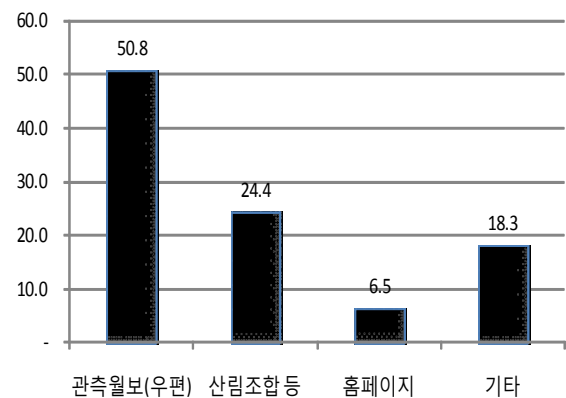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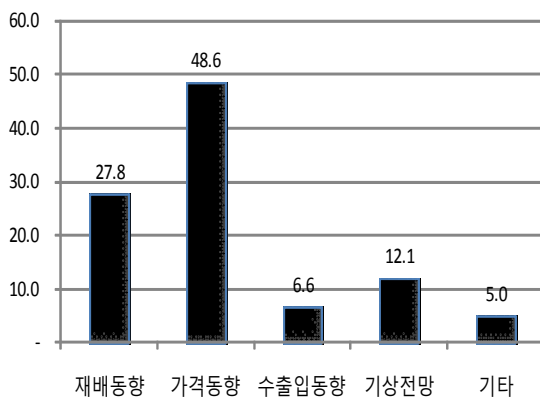


○ 관측월보 내용 중 주요 활용 부문(6개 품목 평균)

- 관측월보 내용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가격동향이 48.6%, 재배동향이 27.8%, 기상전망이 12.1%, 수출입동향이 6.6%로 가격동향과 재배동향에 대한 활용이 높게 나타남.
- 활용부문에 대해서는 품목간 우선순위의 차이가 다소 발생됨.

○ 관측월보의 정보 접근방법(6개 품목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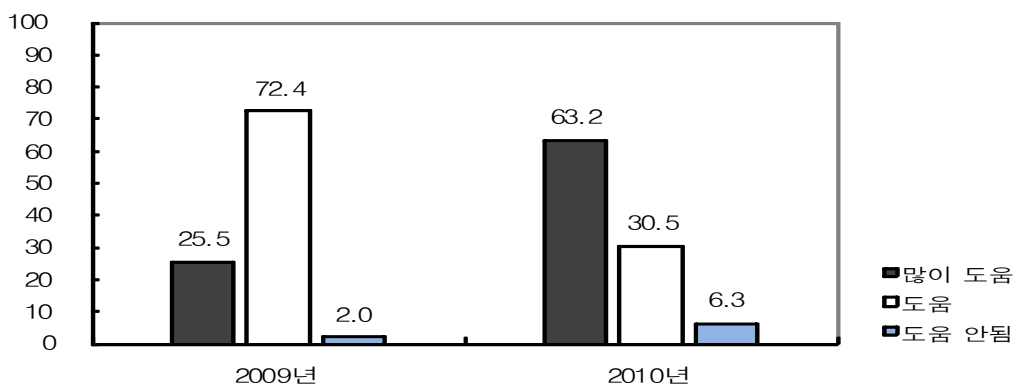
- 현재 임가에서 관측정보를 접하는 방법으로는 관측월보(우편송부)가 50.8%, 산림조합 24.4%, 홈페이지 6.5%, 기타가 18.3%로 나타나 주로 농경연의 우편송부에 의한 월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3. 밤 재배자 의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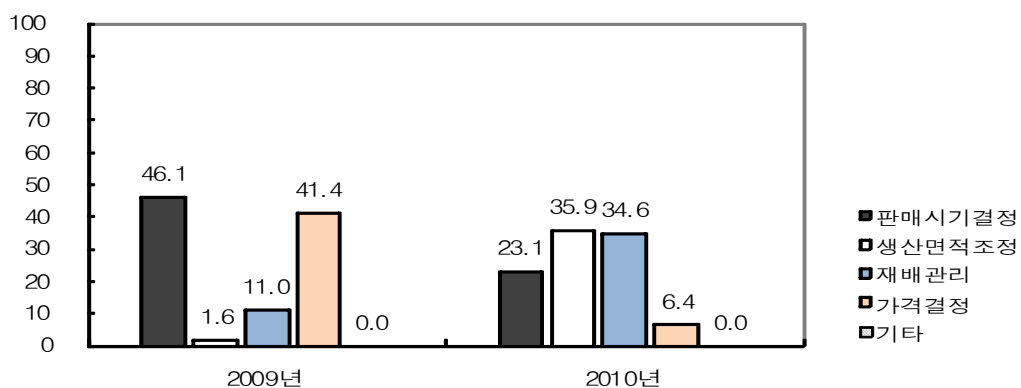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 시 도움 정도

-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서 임업관측(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63.2%,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30.5%, 도움이 안 되었다는 의견이 6.3%로 대체로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과 비교할 때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41.9%p 감소하였으나,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37.7%p 증가하여 전체적인 도움 정도는 질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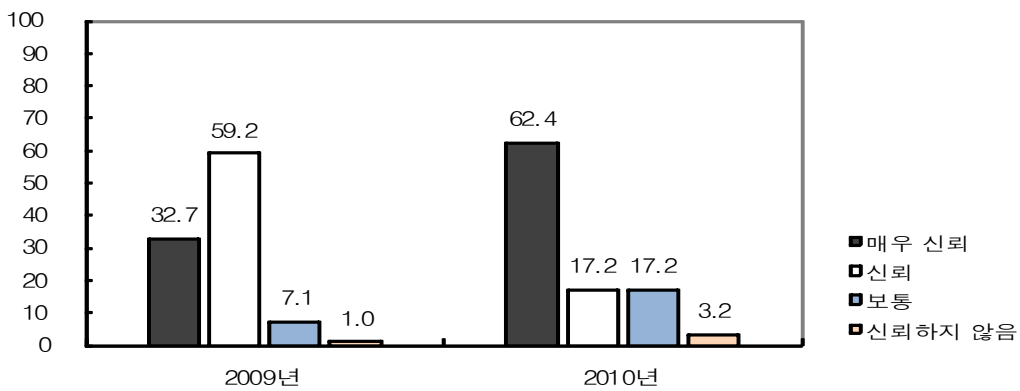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 시 기여 부문

- 관측정보(밤)가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었다면 어떠한 부문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생산면적 조정이 35.9%로 1순위, 재배관리가 34.6%로 2순위, 판매시기 결정이 23.1%로 3순위, 가격결정이 6.4%로 4순위로 나타남.
- 2009년과 비교할 때 판매시기 결정 및 가격결정에 대한 기여율은 감소한 반면, 생산면적 조정 및 재배관리에 대한 기여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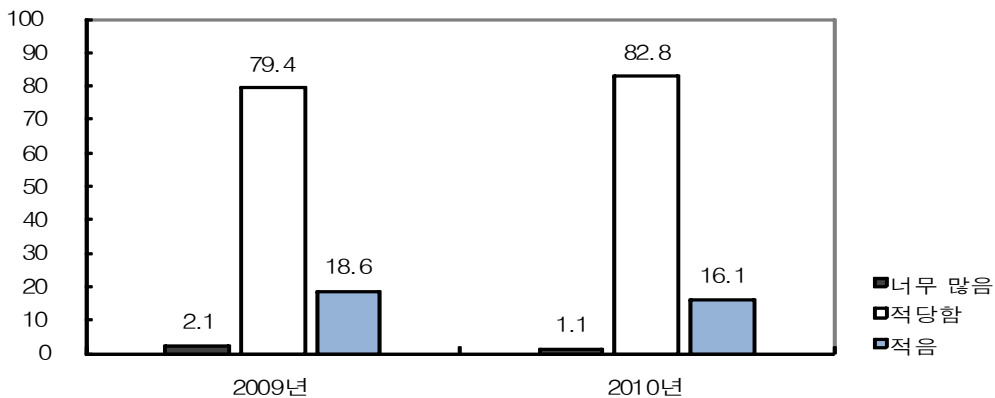
○ 관측정보의 신뢰수준

- 관측정보(밤)에 대한 신뢰수준에 있어서는 매우 신뢰가 62.4%, 조금 신뢰가 17.2%, 보통 17.2%, 신뢰하지 않음이 3.2%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과 비교할 때 ‘신뢰’는 42.0%p 감소하였지만 매우 신뢰가 29.7%p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신뢰수준은 향상되었으며 앞으로도 관측사업의 내실화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밤 재배자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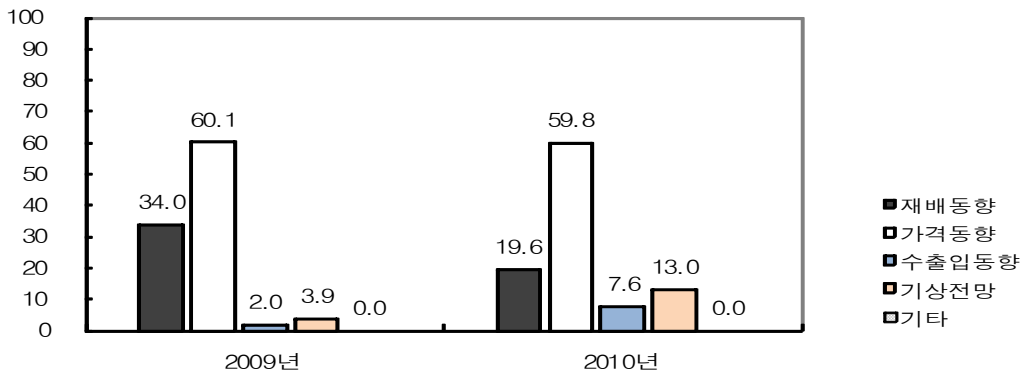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발간횟수

- 관측월보(밤)의 발간횟수에 있어서는 현행 7회(3,5,7,8,9,10,11월)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82.8%, 적다는 의견이 16.1%, 너무 많다는 의견이 1.1%로 전반적으로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음.
- 2009년과 비교할 때 발간횟수가 적다는 의견이 2.5%p 감소하였으나 발간 횟수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에는 큰 차이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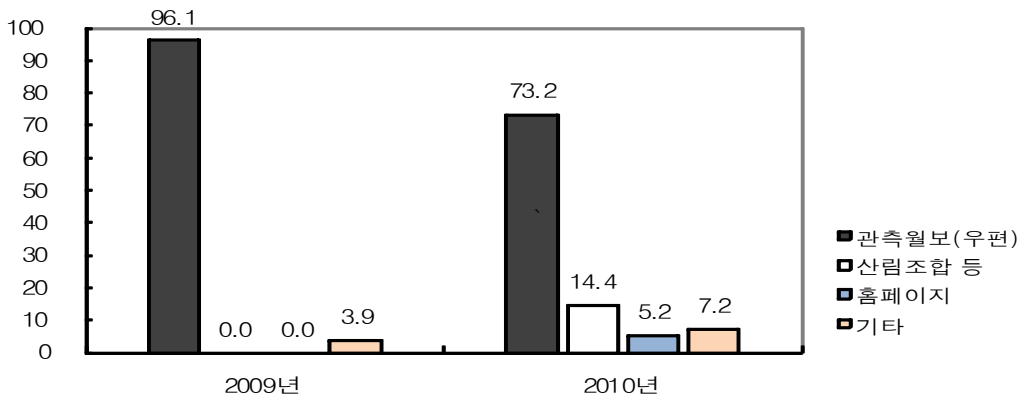
○ 관측월보 내용 중 주요 활용 부문

- 관측월보(밤) 내용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가격동향이 59.8%, 재배동향이 19.6%, 기상전망이 13.0%, 수출입동향이 7.6%로 가격동향과 재배동향에 대한 활용이 높게 나타남.
- 2009년과 비교할 때 기상전망 부문 활용 비율이 9.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저온과 태풍 등으로 2010년 기상조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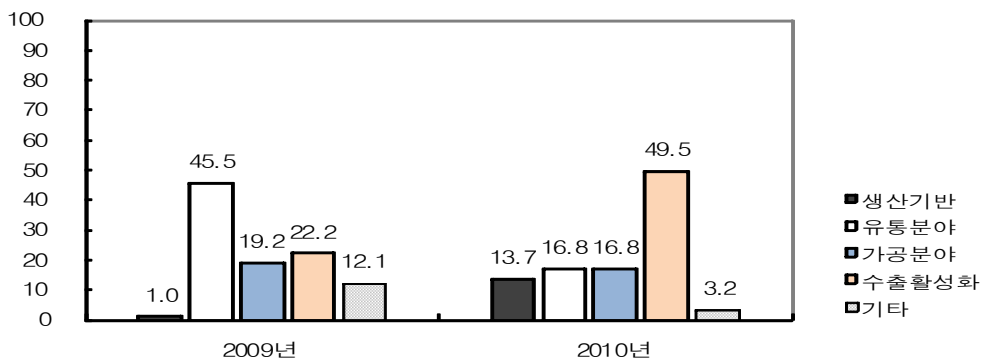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정보 접근방법

- 현재 밤 생산 임가에서 관측정보를 접하는 방법으로는 관측월보(우편송부)가 73.2%, 산림조합 14.4%, 홈페이지 5.2%, 기타 농민신문이 7.2%로서 주로 농경연의 우편송부에 의한 월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과 비교할 때 관측월보(우편송부)에 의한 정보 접근은 다소 낮아진 반면, 산림조합, 홈페이지 등 기타 매체를 통한 관측정보 접근이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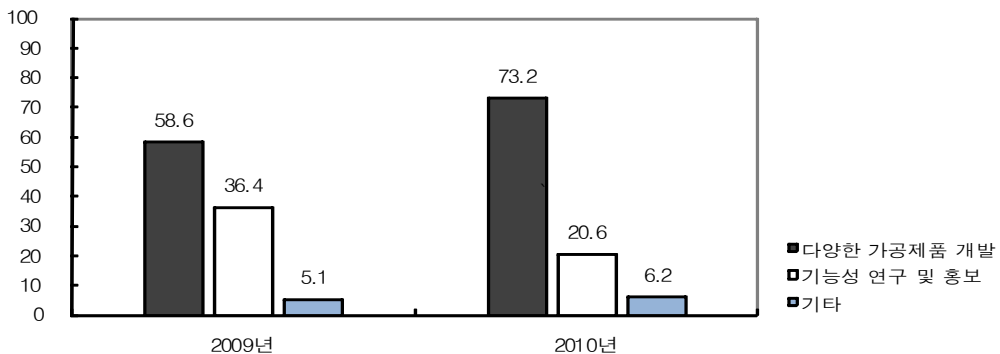
○ 밤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중 시급한 분야로서 수출활성화분야가 49.5%로, 유통분야와 가공분야가 각각 16.8%로 2순위, 생산기반 분야가 13.7%로 3순위로 나타났으며, 생산 분야와 기타(가격 안정화 등) 분야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09년과 달리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 수출활성화에 대한 정책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은 최근 DDA, FTA 등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밤 소비확대를 위한 추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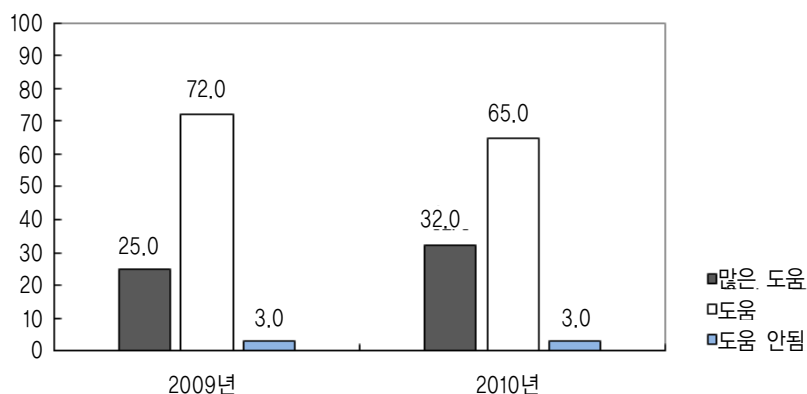
- 밤 소비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에 있어서는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이 73.2%, 밤에 대한 기능성 연구 및 홍보가 20.6%, 기타가 6.2%로 가공제품 개발에 대한 정책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009년과 비교할 때 밤에 대한 기능성 연구 및 홍보에 대한 요구가 15.8%p 감소한 반면,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에 대한 요구는 14.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식세계화와 더불어 밤을 원료로 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4. 표고버섯 재배자 의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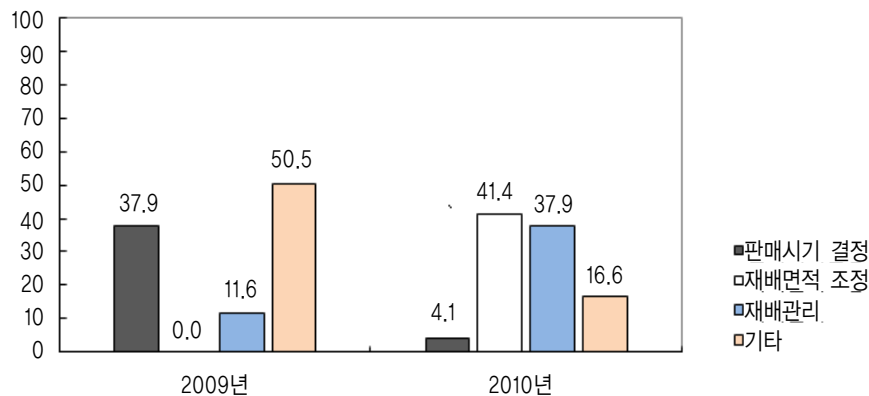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 시 도움 정도

-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서 임업관측(표고버섯)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32.0%,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65.0%, 도움이 안 되었다는 의견이 3.0%로 대체로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과 비교할 때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7.0%p 감소하였으나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7.0%p 증가하여 도움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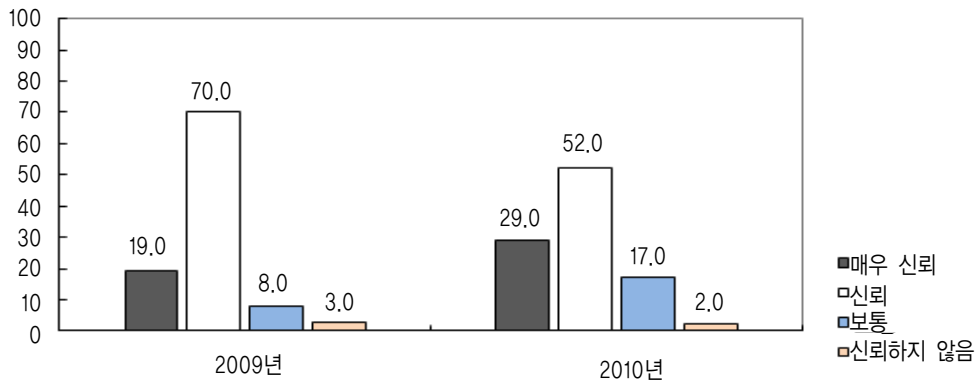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 시 기여 부문

- 관측정보(표고버섯)가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었다면 어떠한 부문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재배면적조정이 41.4%로 1순위, 재배관리가 37.9%로 2순위, 기타가 16.6%로 3순위로 나타남. 기타는 대부분 가격결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과 비교할 때 판매시기결정 부문의 기여도는 감소하고 재배면적 조정에 크게 기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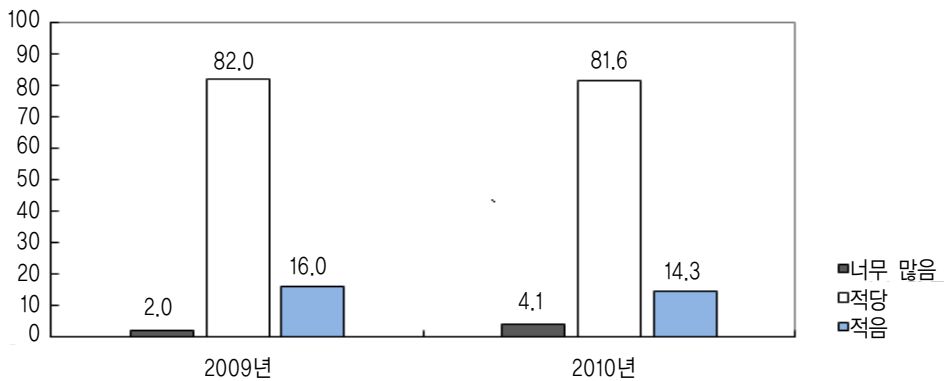
○ 관측정보의 신뢰수준

- 관측정보(표고버섯)에 대한 신뢰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신뢰가 29.0%, 조금 신뢰가 52.0%, 보통 17.0%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과 비교할 때 신뢰 비율이 18.0%p 감소하였으나 매우 신뢰 비율이 10.0%p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도 관측사업의 내실화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표고버섯 재배자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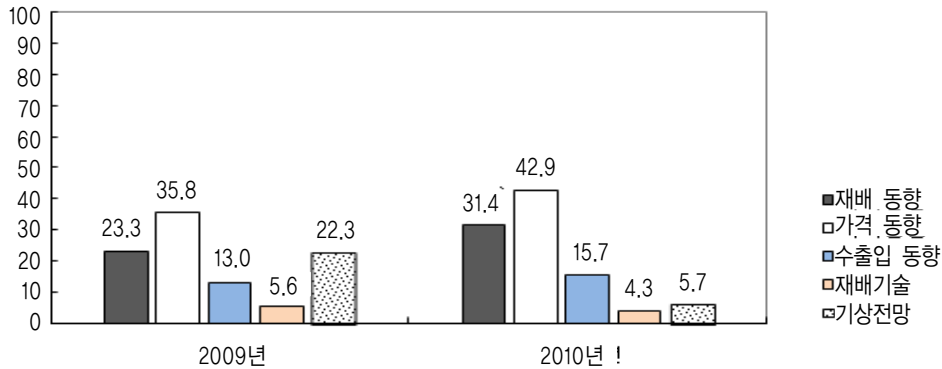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발간횟수

- 관측월보(표고버섯)의 발간횟수에 있어서는 현행 8회(3,4,5,6,7,9,10,11월)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4.1%, 적당하다는 의견이 81.6%, 적다는 의견이 14.3%로 전반적으로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음.
- 2009년과 비교할 때 발간횟수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0.4%p 감소하고, 많다는 의견이 2.1%p 증가 하였으나 발간 횟수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발간횟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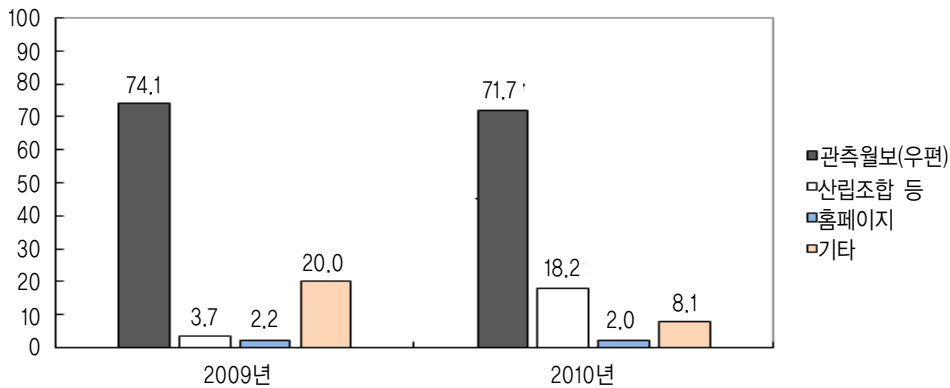
○ 관측월보 내용 중 주요 활용 부문

- 관측정보(표고버섯) 내용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가격동향이 42.9%, 재배동향이 31.4%, 수출입동향이 15.7%, 기상전망이 5.7%, 재배기술이 4.3%로 가격동향에 대한 활용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09년과 비교할 때 가격동향, 재배동향, 수출입동향에 대한 활용은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재배기술, 기상전망 등에 대한 활용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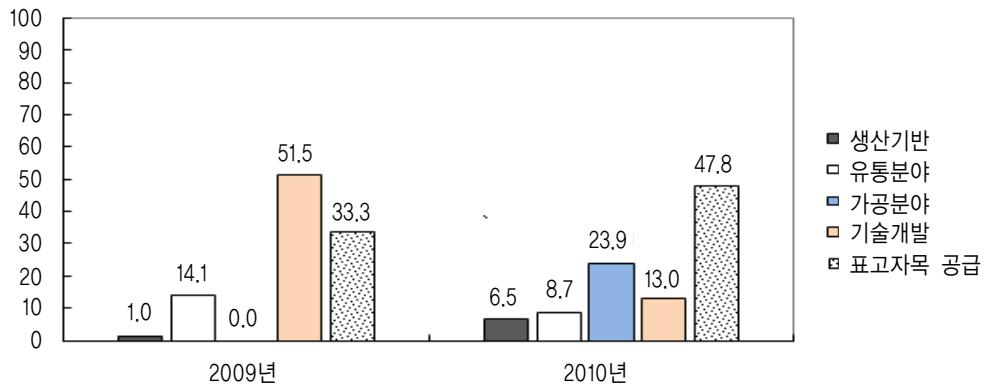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정보 접근방법

- 현재 표고버섯 생산농가에서 관측정보를 접하는 방법으로서 관측월보(우편 송부)가 71.7%, 지자체, 산림조합, 협회 등 관련단체를 통해서가 18.2%, 기타가 8.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가 2.0%로서 주로 농경연의 우편 송부에 의한 월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과 비교할 때 관측월보(우편송부)와 인터넷, 월간버섯, 생산자간의 정보 공유 등 기타 방식에 의한 정보 접근이 감소하고 산림조합에 의한 정보 접근이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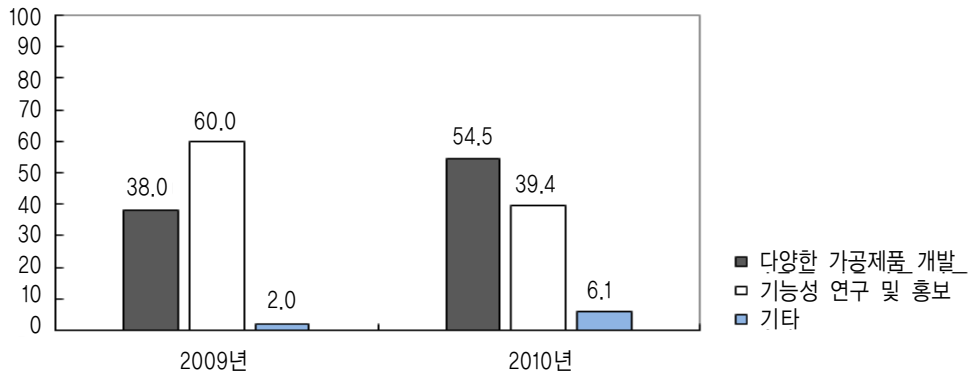
○ 표고버섯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표고버섯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중 시급한 분야로서 표고자목의 공급 방안 마련이 47.8%로 1순위, 가공 분야가 2순위로 나타났으며 기술개발, 유통, 생산 분야는 정책 우선순위가 높지 않게 나타남.
- 종균 및 재배 등 기술 개발 분야에 대한 정책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났던 2009년과는 달리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 각 분야가 고르게 중시되었으며 특히 표고자목 공급방안 마련에 대한 정책요구도가 높아져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표고버섯 소비확대를 위한 추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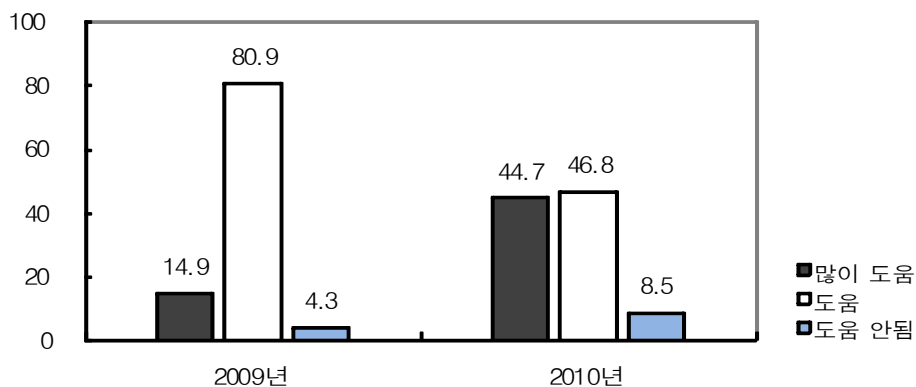
- 표고버섯 소비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이 54.5%, 표고버섯의 기능성 연구 및 홍보가 39.4%, 기타(판로개척 등)가 6.1%로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에 대한 정책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에 대한 요구가 16.5%p 증가하여 가공제품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4.5. 대추 재배자 의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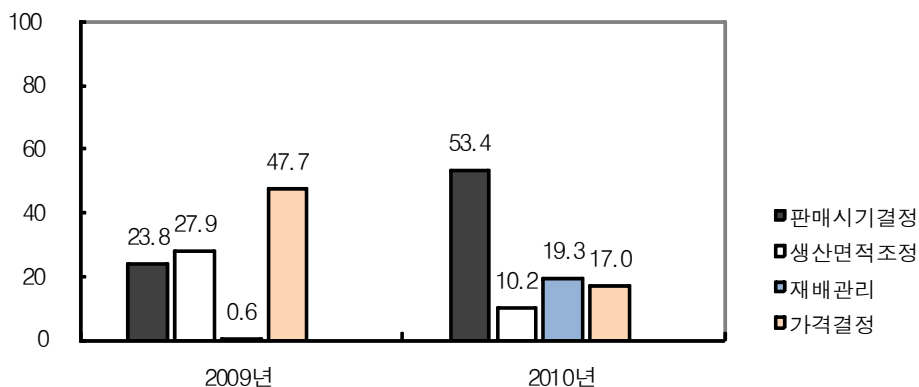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 시 도움 정도

-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서 임업관측(대추)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44.7%,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46.8%, 도움이 안 되었다는 의견이 8.5%로 전반적으로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과 비교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29.8%p 증가하여 경영 의사 결정에 대한 기여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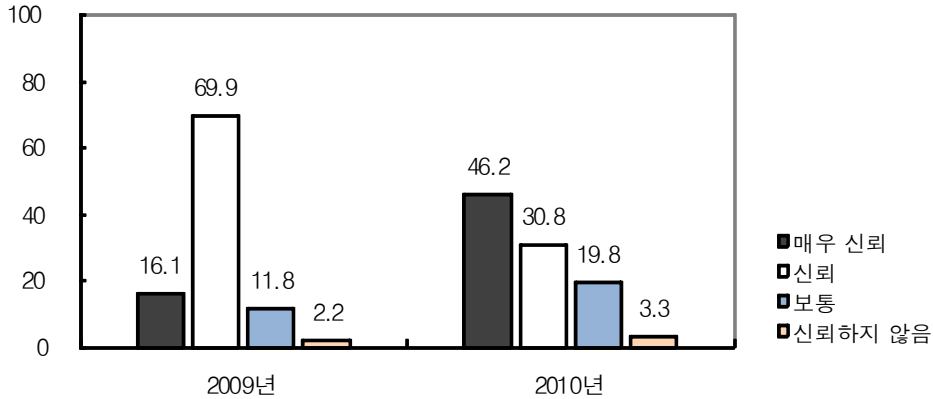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 시 기여 부문

- 관측정보(대추)가 경영 의사결정 시 영향을 주었다면 어떠한 부문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판매시기 결정이 53.4%로 1순위, 재배관리가 19.3%로 2순위, 가격 결정이 17%로 3순위, 생산량 및 면적 조정이 10.2%로 4순위로 나타남.
- 2009년과 비교할 때 판매시기 및 재배관리에 대한 기여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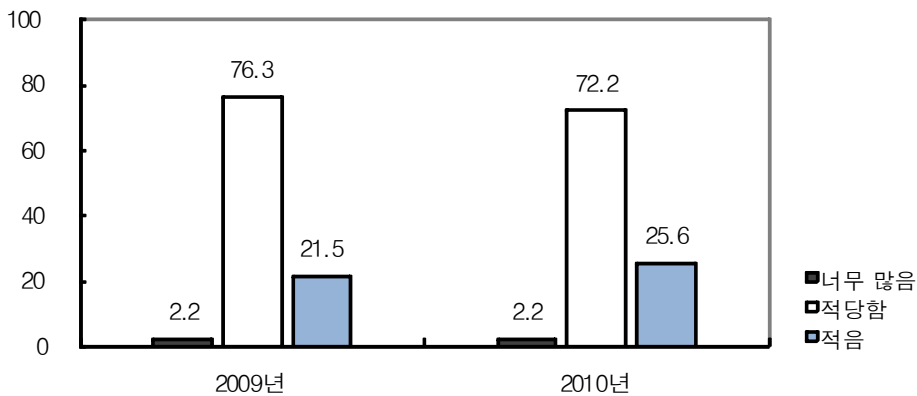
○ 관측정보의 신뢰수준

- 관측정보(대추)에 대한 신뢰수준에 있어서는 매우 신뢰가 46.2%, 신뢰가 30.8%, 보통 19.8%로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과 비교할 때 매우 신뢰가 4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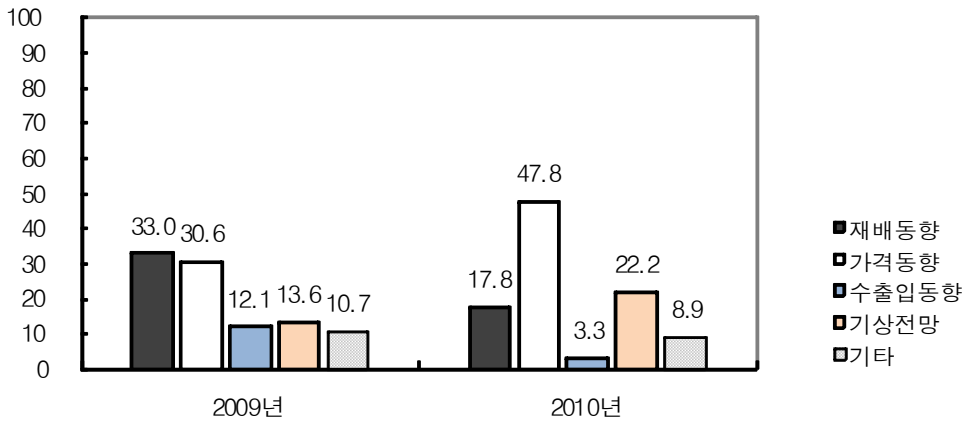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발간횟수

- 관측월보(대추)의 발간횟수는 현행 5회(4,8,9,10,11월)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72.2%, 적다는 의견이 25.6%, 너무 많다는 의견이 2.2%로 전반적으로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09년과 비교할 때 적다는 의견이 4.1%p 증가하였으나, 대체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어 현행 월보 발간횟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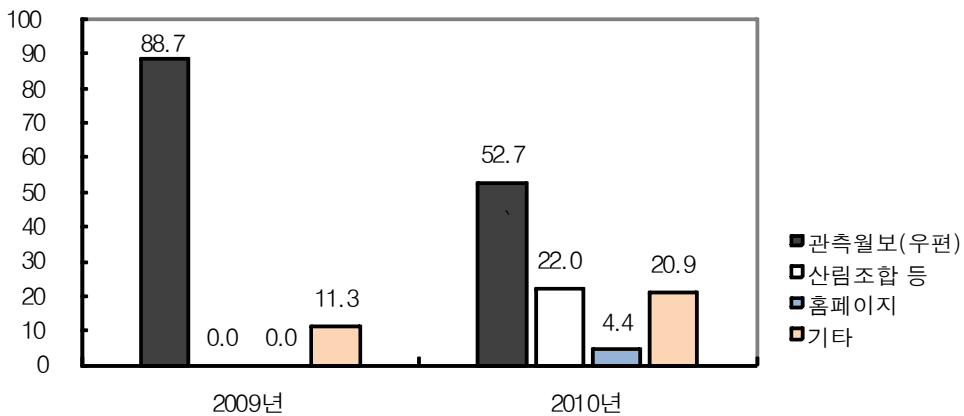
○ 관측월보 내용 중 주요 활용 부문

- 관측정보(대추) 내용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가격동향이 47.8%, 기상전망이 22.2%, 재배동향과 수출입동향이 각각 17.8%, 3.3%로 가격동향 및 기상전망의 활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09년과 비교할 때 가격동향 및 기상전망의 활용도는 증가, 재배동향 및 수출입동향의 활용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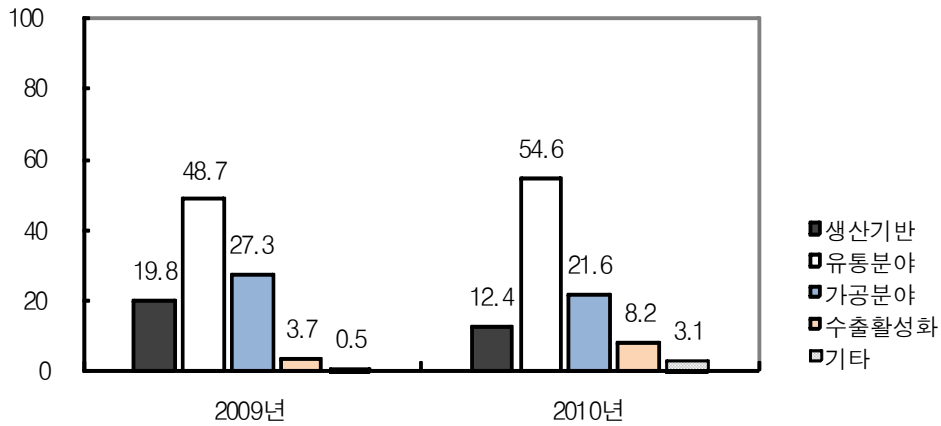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정보 접근방법

- 현재 대추 생산농가에서 관측정보를 접하는 방법으로는 관측월보(우편송부)가 52.7%, 지역산림조합 등 지자체가 22%, 산림청·농경연 등의 홈페이지가 20.9%로 우편송부에 의한 월보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9년과 비교할 때 우편송부 외에 다른 정보 매체를 통해 접근 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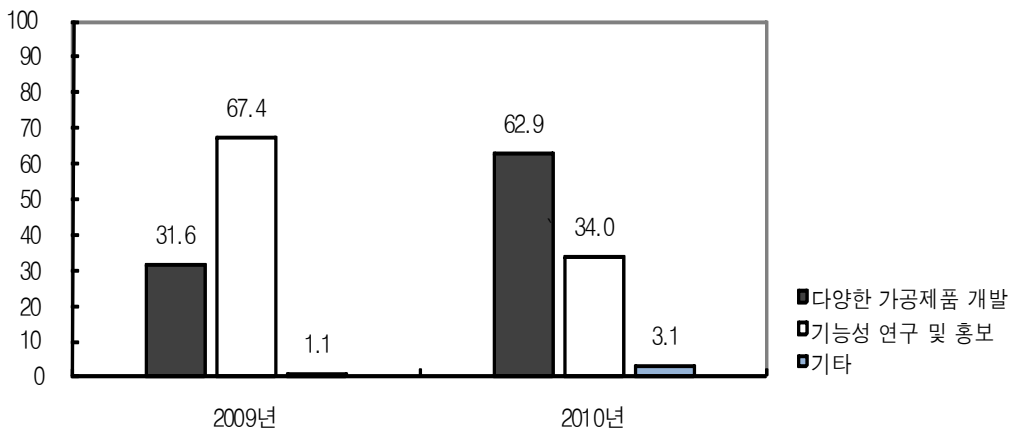
○ 대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대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중 시급한 분야로서 유통지원이 54.6%로 1순위, 가공지원이 21.6%로 2순위, 생산기반조성 12.4%, 수출지원이 8.2%로 각각 3순위, 4순위로 나타남.
- 2009년과 비교할 때 유통지원과 수출활성화에 대한 정책수요가 각각 5.9%p, 4.5%p 증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대추 소비확대를 위한 정부추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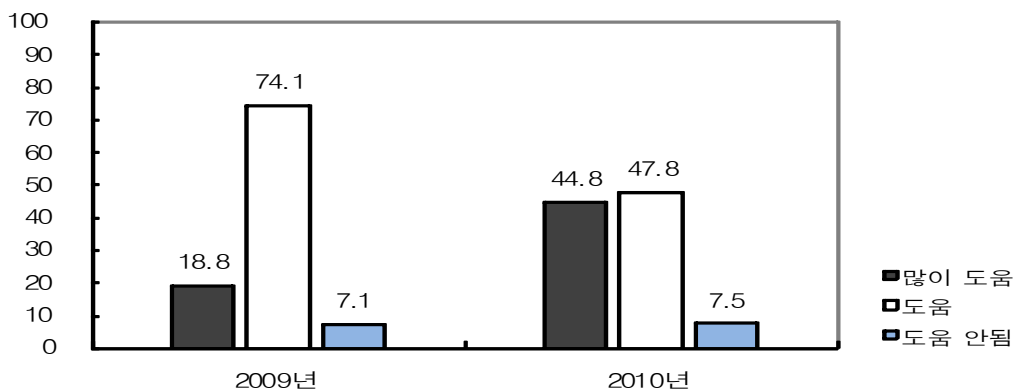
- 대추 소비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에 있어서는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이 62.9%, 기능성 연구 및 홍보가 34%로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9년과 비교할 때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수요가 31.3%p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정부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6. 뚝은감 재배자 의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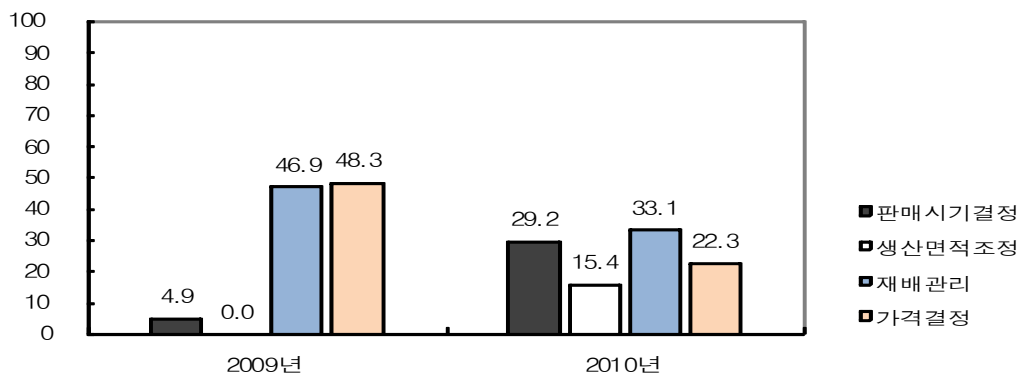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 시 도움 정도

- 관측(뚝은감)정보의 경영 의사결정 시 도움 정도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44.8%,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47.8%, 도움이 안 되었다는 의견이 7.5%로 나타나 대체로 관측정보가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과 비교할 때 많이 도움된다는 의견이 26%p 증가하여 전체적인 도움 정도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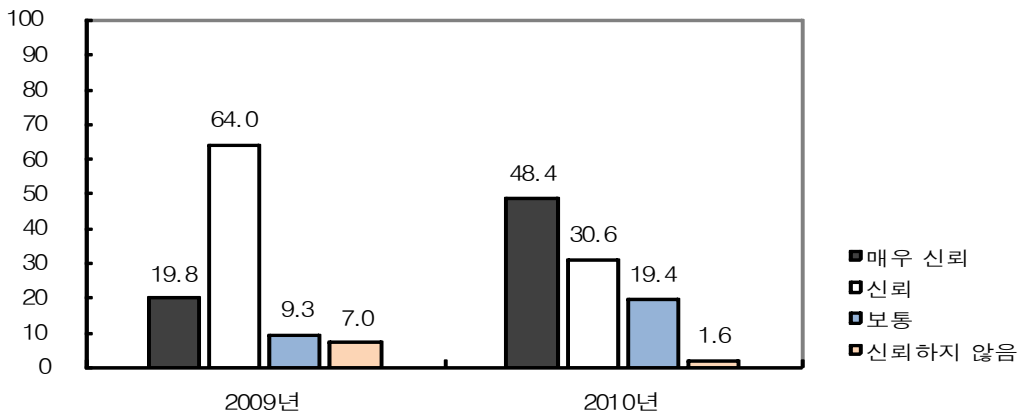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 시 기여 부문

- 관측정보(뚝은감)가 경영 의사결정 시 영향을 주었다면 어떠한 부문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하시 뚝은감 판매시기 결정 29.2%, 재배관리 33.1%로 경영 의사결정 시 주로 판매시기 결정 및 재배관리 부문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과 비교할 때 재배관리결정에 대한 기여도는 감소하고 판매시기결정에 대한 기여도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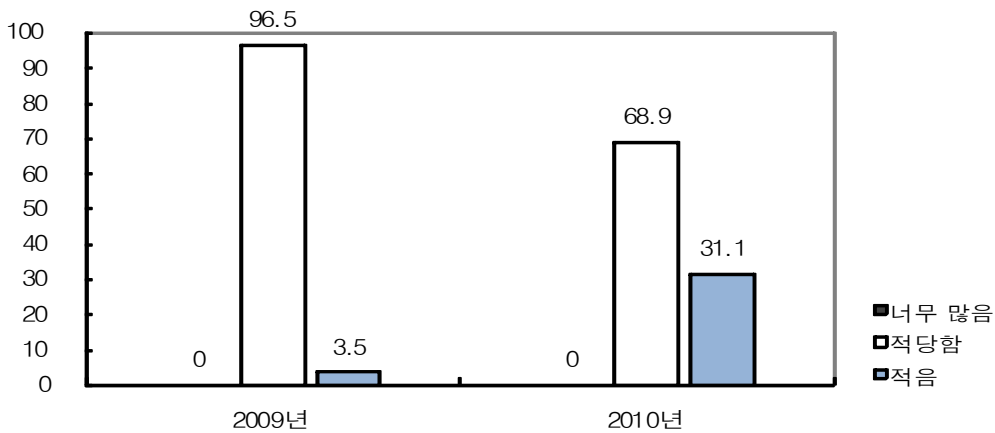
○ 관측정보의 신뢰수준

- 관측정보(뚝은감)에 대한 신뢰수준에 있어서는 매우 신뢰가 48.4%, 조금 신뢰 30.6%, 보통 19.4%로 대체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과 비교할 때 매우 신뢰가 28.6%p 증가하여 전반적인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소 있으므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향후 관측사업의 내실화를 꾸준히 추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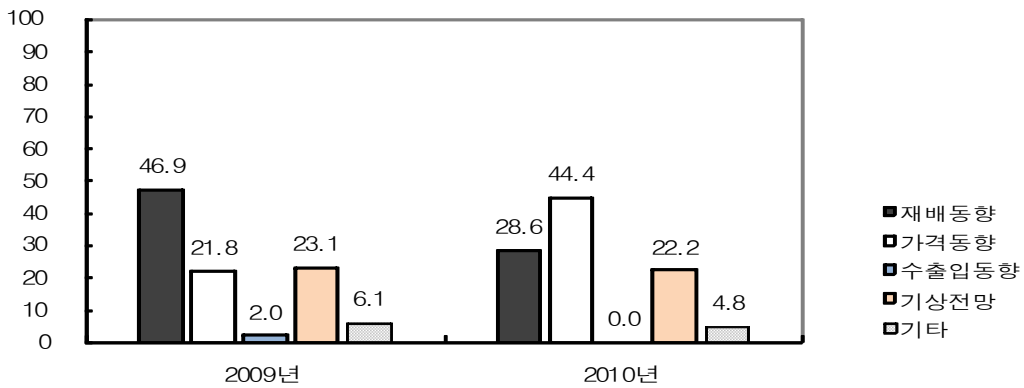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발간횟수

- 관측월보(뚝은감)의 발간횟수에 있어서는 현행 5회(4,8,9,10,11월)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68.9%, 적다는 의견이 31.1%, 너무 많다는 의견은 없어 발간횟수는 적당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조사된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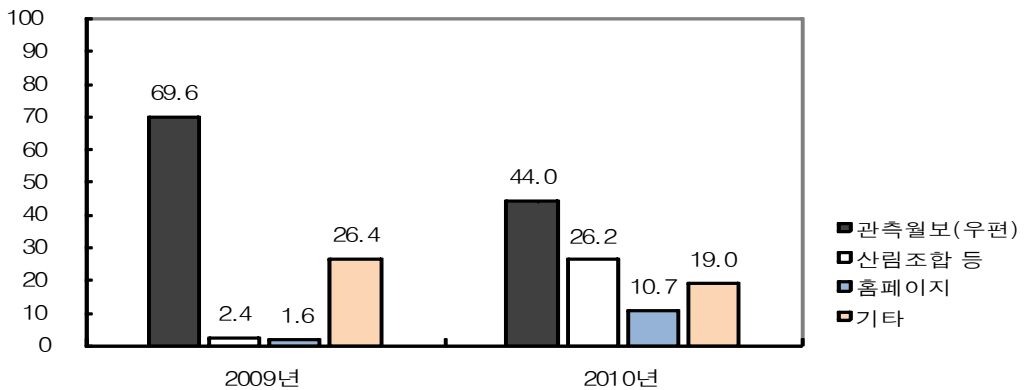
○ 관측월보 내용 중 주요 활용 부문

- 관측정보(뚝은감) 내용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가격동향 44.4%, 재배동향과 기상전망이 각각 28.6%, 22.2%로 가격동향, 재배동향 및 기상전망이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과 비교할 때 가격동향에 대한 활용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생산 임가들이 기상피해 증가로 뚝은감 작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격동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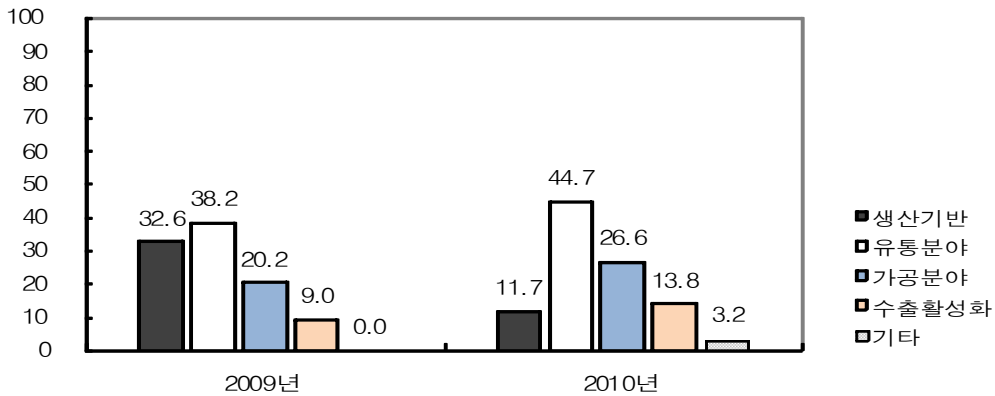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정보 접근방법

- 생산 임가에서 관측정보를 접하는 방법으로는 관측월보(우편송부)가 44.0%, 산림조합·지자체 등을 통해서 26.2%, 기타 농림기술센터를 통해서 19.0%, 산림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10.7%로 주로 우편송부 및 농산림조합 및 지자체를 통해 관측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과 비교할 때 우편송부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산림조합 및 지자체를 통해 관측정보를 접하는 비중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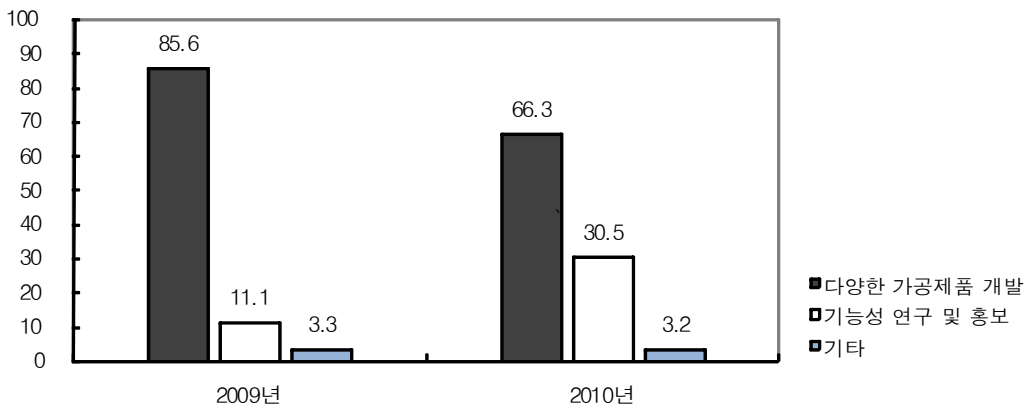
○ **뚝은감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뚝은감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중 시급한 분야로서 유통지원 44.7%, 가공지원 26.6%, 수출지원 13.8%, 생산기반조성 11.7%로 유통·가공지원에 대한 정책이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9년과 비교할 때 생산기반 조성보다는 가공·유통 및 수출 등 생산 이후의 사업지원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아짐.



○ **뚝은감 소비확대를 위한 추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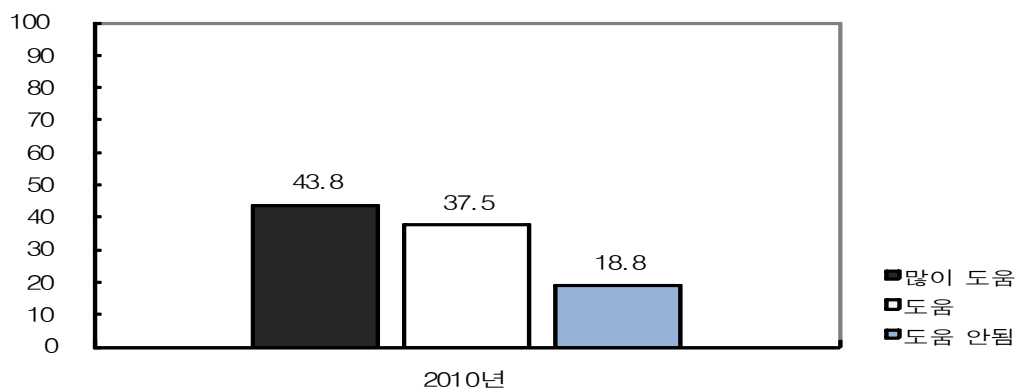
- 뚝은감 소비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에 있어서는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 66.3%, 기능성 연구 및 홍보 30.5%, 기타(판로개척, 직거래 등) 3.2%인 것으로 나타남.
- 2009년과 비교할 때 기능성 연구 및 홍보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뚝은감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뚝은감에 대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4.7. 산채류 재배자 의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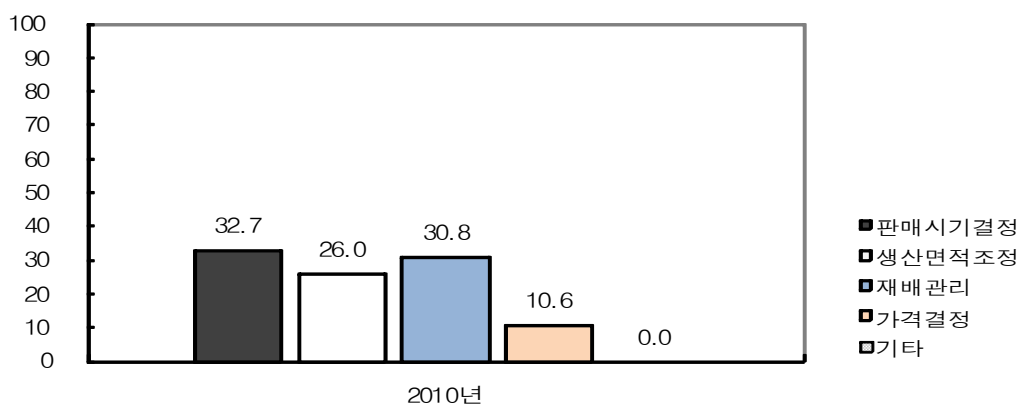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 시 도움 정도

- 관측(산채류)정보의 경영 의사결정 시 도움 정도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43.8%,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37.5%, 도움이 안 되었다는 의견이 18.8%로 나타나 대체로 관측정보가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남.
- 산채류는 2010년 신규 품목으로 5회 발간되어 기존 품목보다 도움의 정도가 다소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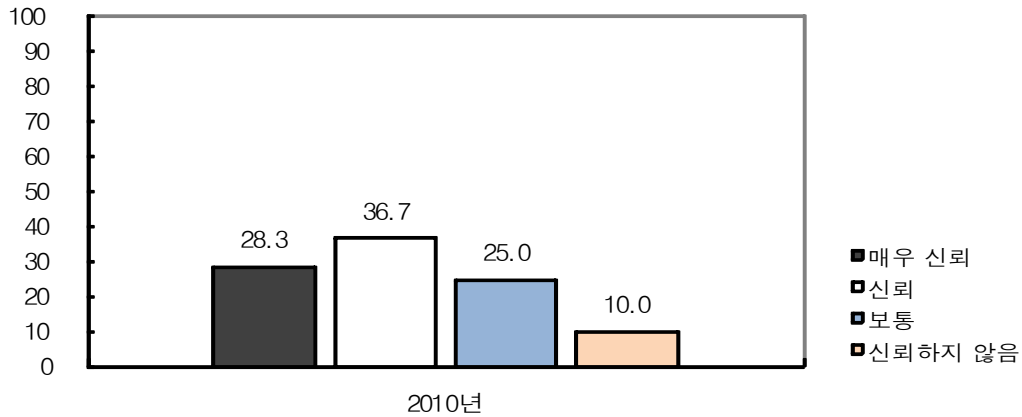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 시 기여 부문

- 관측정보(산채류)가 경영 의사결정 시 영향을 주었다면 어떠한 부문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판매시기결정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배관리 30.8%, 생산면적조정 26.0%, 가격결정이 10.6%로 나타나 주로 판매시기 및 면적결정 부문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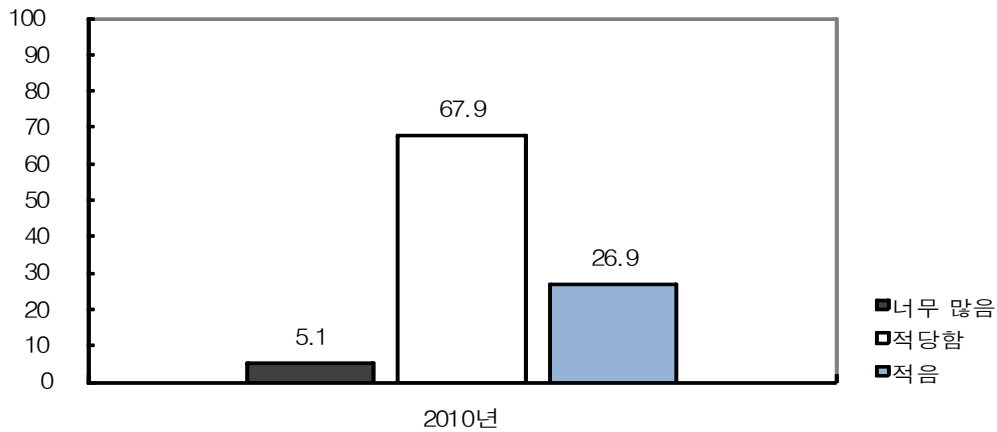
○ 관측정보의 신뢰수준

- 관측정보(산채류)에 대한 신뢰수준에 있어서는 매우 신뢰가 28.3%, 조금 신뢰 36.7%, 보통 25.0%로 나타나 대체로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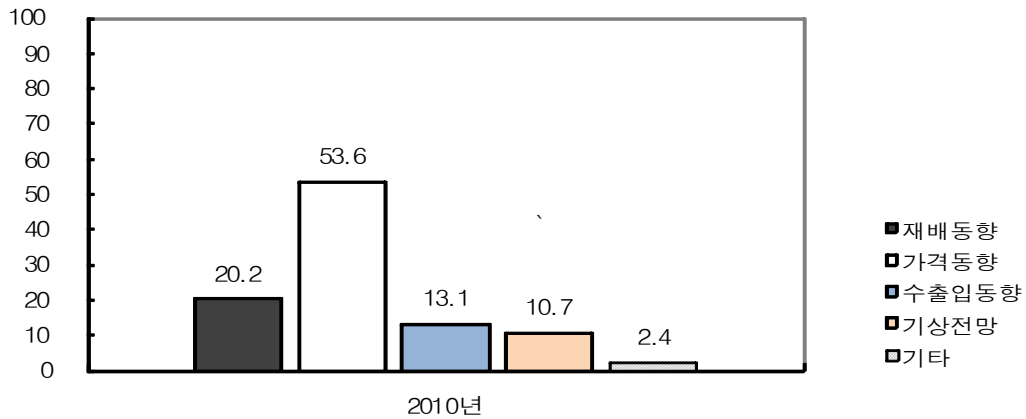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발간횟수

- 관측월보(산채류)의 발간횟수에 있어서는 현행 5회(5, 6, 7, 8, 9월)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67.9%, 적다는 의견이 26.9%, 많다는 의견이 5.1%로 나타나 대체로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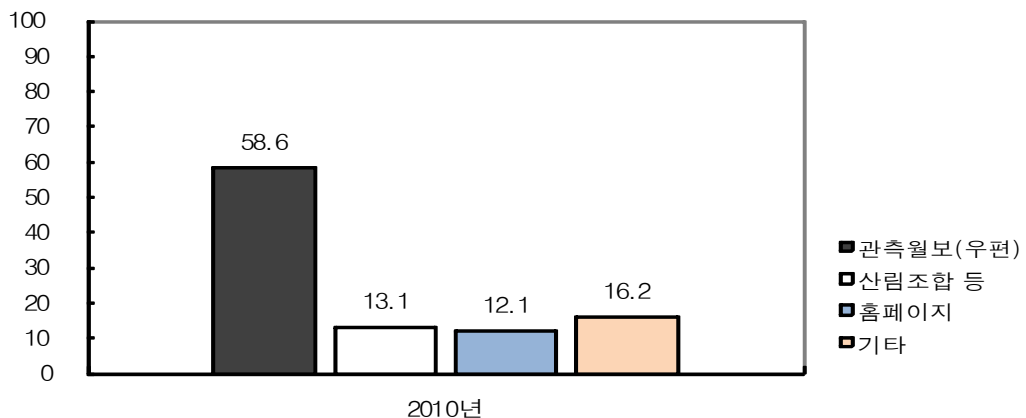
○ 관측월보 내용 중 주요 활용 부문

- 관측정보(산채류) 내용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가격동향 53.6%, 재배동향 20.2%, 수출입동향 13.1% 등으로 나타나 주로 가격 및 재배동향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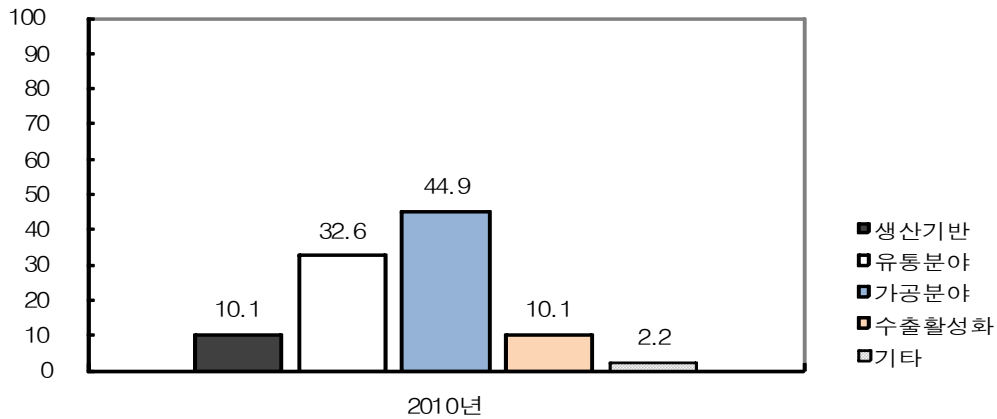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정보 접근방법

- 생산 임가에서 관측정보를 접하는 방법으로는 관측월보(우편송부)가 58.6%, 산림조합 등을 통해서 13.1%, 산림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12.1%, 기타 지인 등을 통해 접하였다는 의견이 16.2%로 주로 관측월보를 통해 관측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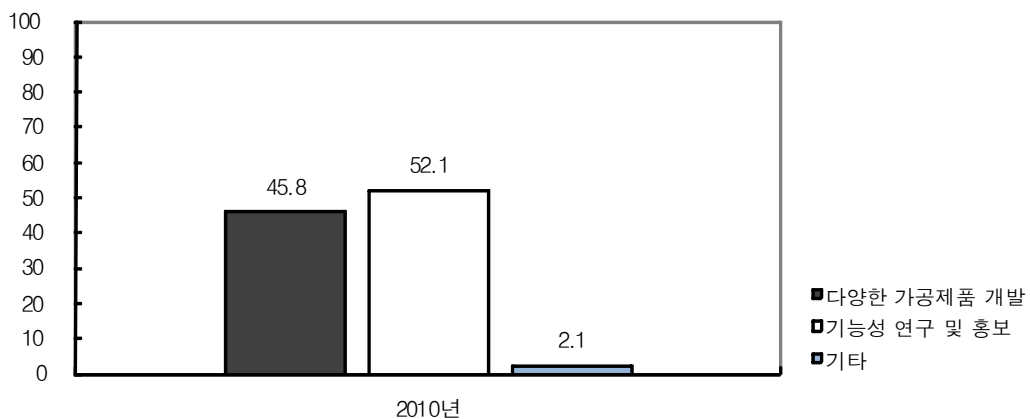
○ 산채류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산채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중 시급한 분야로서 가공분야 44.9%, 유통분야 32.6%, 생산기반과 수출활성화가 각각 10.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산채류는 가공식품이 많지 않아 가공식품 개발 및 홍보와 소비확대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산채류 소비확대를 위한 추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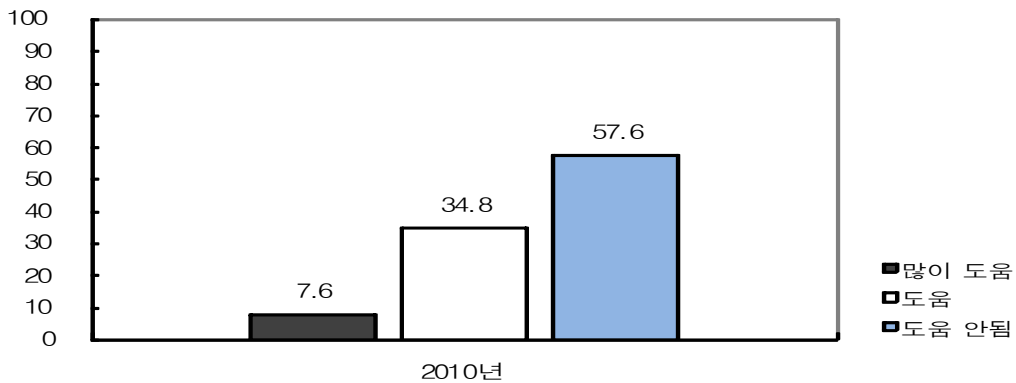
- 산채류 소비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에 있어서는 기능성 연구 및 홍보가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 45.8%, 기타(판로개척, 직거래 등) 2.1%로 나타남.



4.8. 조경수 재배자 의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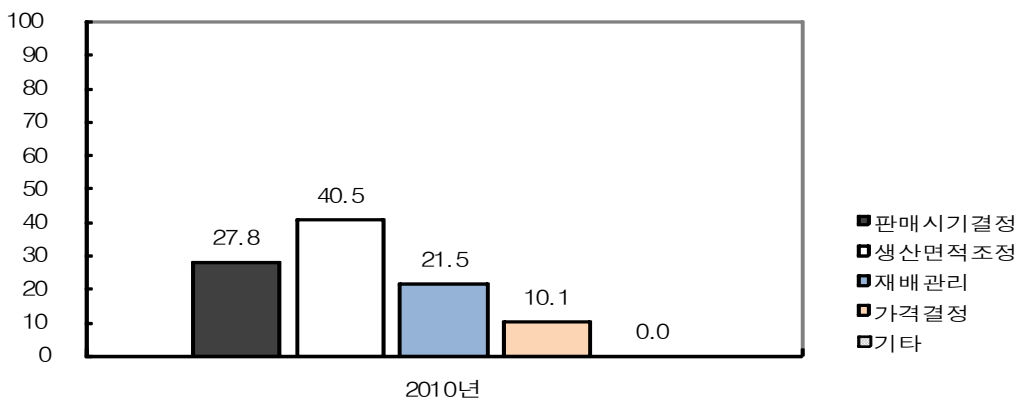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 시 도움 정도

- 관측(조경수)정보의 경영 의사결정 시 도움 정도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7.6%,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34.8%, 도움이 안 되었다는 의견이 57.6%로 나타나 대체로 관측정보가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발간시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금년 조경수 월보의 발간월은 6월, 8월이었지만 내년 조경수 월보의 발간은 조경수 주거래시기 전월(3월, 8월)에 발간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가능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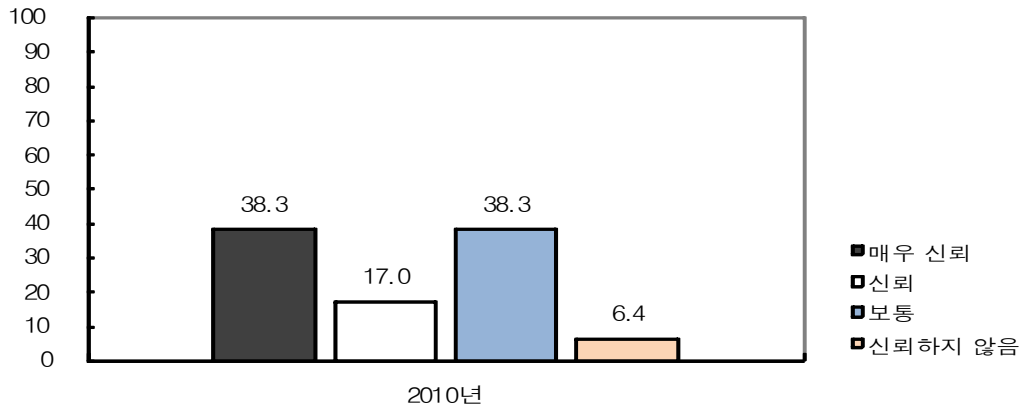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 시 기여 부문

- 관측정보(조경수)가 경영 의사결정 시 영향을 주었다면 어떠한 부문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하 시 조경수 생산면적 결정 40.5%, 판매시기 결정 27.8%로 나타나 주로 면적결정 및 판매시기 부문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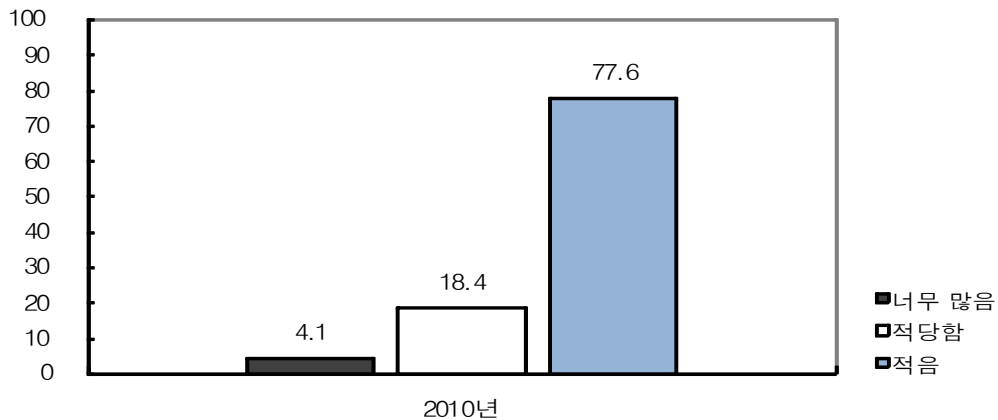
○ 관측정보의 신뢰수준

- 관측정보(조경수)에 대한 신뢰수준에 있어서는 매우 신뢰가 38.3%, 조금 신뢰 17.0%, 보통 38.3%로 대체로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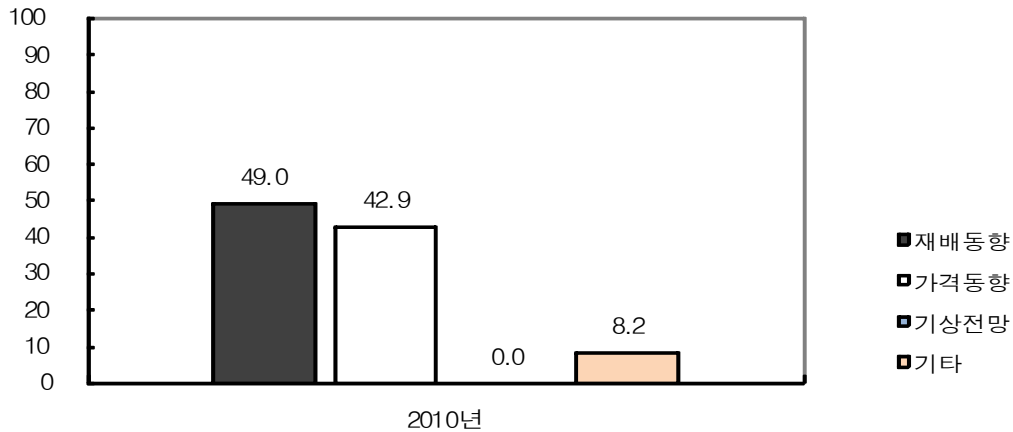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발간횟수

- 관측월보(조경수)의 발간횟수에 있어서는 현행 2회(6, 8월)가 적다는 의견이 77.6%, 적당하다는 의견이 18.4%, 너무 많다는 의견 4.1%로 발간횟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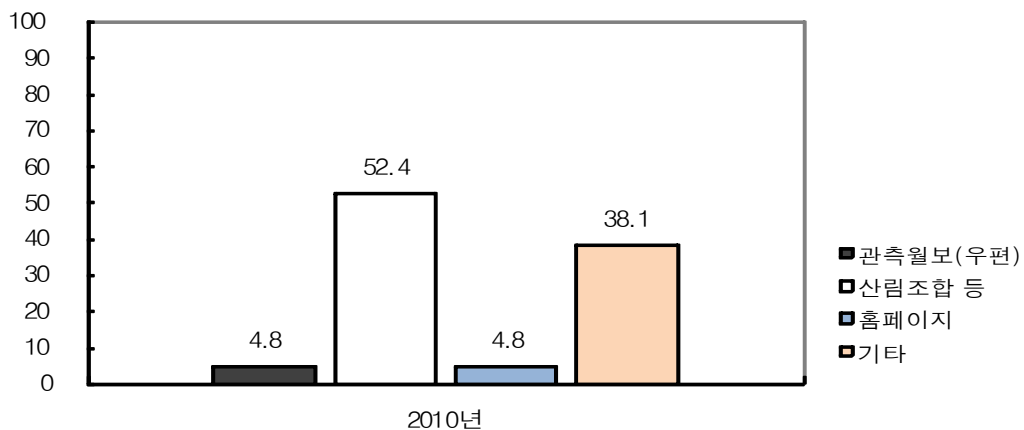
○ 관측월보 내용 중 주요 활용 부문

- 관측정보(조경수) 내용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재배동향 49.0%, 가격동향이 42.0%로 재배동향 및 가격동향이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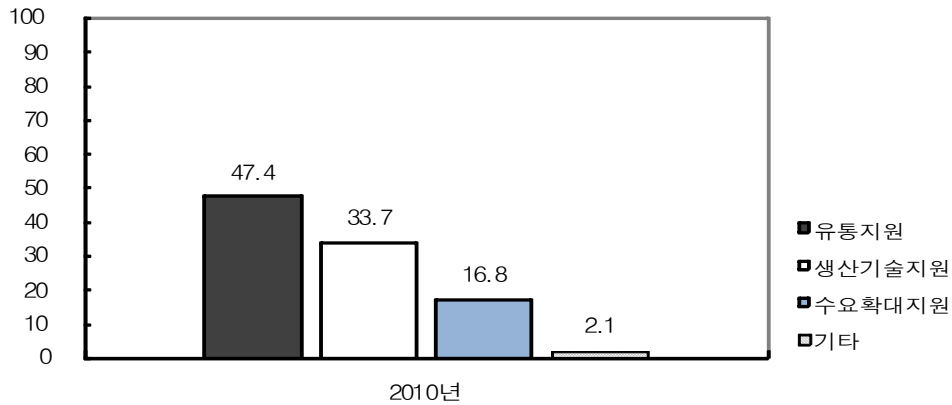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정보 접근방법

- 생산 임가에서 관측정보를 접하는 방법으로는 관측월보(우편송부)가 4.8%, 산림조합·조경수협회 등을 통해서 52.4%, 산림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4.8%, 기타 지인 등을 통해 접하였다는 의견이 38.1%로 주로 산림조합 및 조경수협회를 통해 관측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신규 품목으로 표본 임가에서 관측월보(우편송부)로 관측정보를 접하는 비율이 낮아 향후 지속적인 표본관리가 필요함.



○ 조경수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조경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중 시급한 분야로서 유통지원 47.4%, 생산기술지원 33.7%, 수요확대지원 16.8%로 생산기반조성 및 유통·가공지원에 대한 정책이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4.9. 재배자의 대정부 건의 사항

4.9.1. 밤

- 가격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 밤 품종 개량
- 다양한 밤 가공제품 개발 및 가공 산업 육성
-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지원
- 밤 작업로 등 생산기반 지원
- 유통정보 및 유통구조 개선
- 직거래 등 판로개척 다변화
- 수입억제와 수출활성화 정책 마련
- 항공방제 확대 실시
- 밤 수확시기 인력문제 해결 및 기계화

4.9.2. 표고버섯

- 우량종균 개발
- 병충해 방제 기술 개발
- 가격 안정화 및 소비 촉진
- 수입 원산지 표시 강화
- 안정적인 자목 공급 및 톱밥재배 지원 강화
- 별채 허가기준 완화
- 기술지도 및 마스크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
- 유통정보 및 유통구조 개선
- 고온피해 방지 위한 시설 및 생산기반지원
- 표고 재배법간의 차별화 제도 마련
- 인력 부족 문제 해결
- 시설 보조금 지원 확대

4.9.3. 대추

- 직거래 등 판로개척 다양화
- 전문재배기술인 육성을 통한 재배기술 교육 강화
- 대추 기능에 대한 소비자 홍보활동 지원 강화
- 대추전문 병해충 방제약제 개발 및 보급
- 저온 창고 및 농기계 지원 사업 강화
- 가공제품 개발 및 가공 산업 육성
- 유통정보 및 유통구조 개선
- 비가림 재배시설 등 생산 지원시설 확대

- 생대추 저장기술 개발
- 태풍 등 재해 보험 제도 확대 시행

4.9.4. 넓은감

- 수출활성화 지원
- 생산기반시설 지원 확대(저온저장고, 건조시설, 관수시설 등)
- 판로확대 지원
- 유통정보 및 유통구조 개선
- 감 관련 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 가공제품 개발 및 가공 산업 육성
- 가격 안정화
- 수확기 인력부족문제 개선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4.9.5. 산채류

- 가격 안정화 및 소비 촉진
- 다양한 유통채널의 확보
-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관리
- 유통정보 및 유통구조 개선
- 가공제품 개발 및 가공 산업 육성
- 수확기 인력부족문제 개선
- 재배 및 방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4.9.6. 조정수

- 판로확대 지원
- 가격 안정화
- 유통정보 및 유통구조 개선
- 기술정보제공 및 지원
- 수요예측을 통한 과잉생산 방지
- 출하시 적정한 가격보장 등 실질적인 생산자 보호 정책
- 융자금 확대지원
- 분기별료 월보발간

5. 품목별 2010년 동향 및 2011년 1/4분기 전망

5.1. 밤

5.1.1. 2010년 생산 및 가격 동향

- 2010년 밤 생산량은 작년대비 약 12%, 평년 대비 14.8% 적은 68천톤으로 추정
- 2010년 과실비대기에 일조량 부족과 잦은 비 등 이상기온현상으로 생산량은 감소하고 당도, 섶택, 크기 등 품질도 저하됨.

<2010년 생산량 추정>

		2010년 추정	2009년	평년
밤	생산량(톤)	68,000	75,911	78,068
	증감률(%)	-	-11.6	-14.8

주: 평년은 최근 10년(2000~2009년)간 최대 및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값임.

□ 가격 동향

- 2010년 밤 산지 가격은 상반기에는 2009년산 저장 밤의 유통으로 가격이 작년 및 평년 대비 낮게 형성되었으나 하반기에는 금년도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2010년산 밤 생산량 감소로 작년 및 평년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됨.
- 11월 kg당 평균 산지가격은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2.5% 4.9% 증가한 1,913원, 12월은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2.5%, 12.5% 증가한 2,083원 이었음.

■ 월평균 밤 산지가격 동향(상품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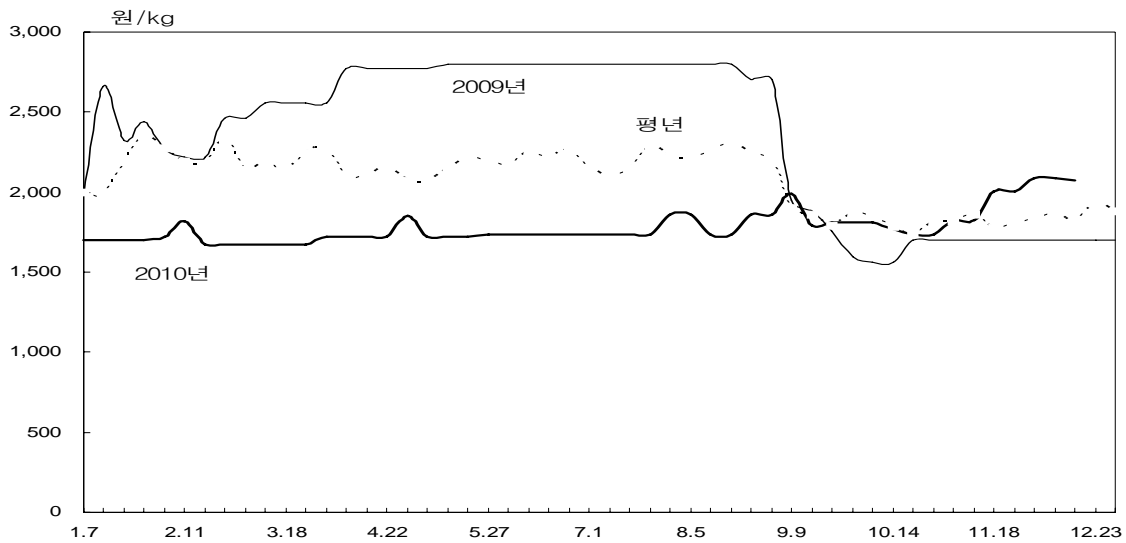
단위: 원/kg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0	1,700	1,720	1,680	1,753	1,726	1,736	1,767	1,798	1,852	1,762	1,913	(2,083)
2009	2,350	2,293	2,535	2,728	2,793	2,800	2,800	2,775	1,976	1,630	1,700	1,700
평년	2,166	2,208	2,207	2,092	2,153	2,220	2,194	2,209	1,895	1,781	1,824	1,852

주: 12월 가격은 12월 17일 까지, 평년가격은 '05년 1월~'09년 12월까지의 주별 평균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을 의미하며, 산지가격은 공주, 광양, 부여, 하동, 순창, 순천지역 등의 평균 가격임

자료: 산림조합중앙회.

■ 산지 가격동향(상품)



자료: 산림조합중앙회

5.1.2. 수출입 동향

- 1~11월 까지의 밤 총 수출액은 28,629천 달러, 총 수출량은 12,709톤(생밤기준 13,586톤)으로 평년대비 5.8% 감소하였으나 작년대비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 중국이외에 미국, 프랑스 등 수출대상국의 다변화로 수출은 작년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이나 일본으로 직접 수출하는 깎밤은 국내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일본의 소비감소로 작년대비 24%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밤 수출 실적

단위 : 톤

년 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0	생 밤	95	56	6	3	21	18	31	20	2,354	7,043	1,725	(164)	11,372
	깎 밤	-	-	-	-	-	-	-	-	217	451	158	-	826
	조제밤	38	23	8	90	27	63	41	56	45	86	34	(39)	511
'09	생 밤	65	20	2	44	1	2	3	10	5,728	4,350	779	332	11,336
	깎 밤	4	-	-	-	-	-	-	9	398	485	169	15	1,080
	조제밤	12	149	46	67	27	22	48	54	26	43	23	66	583
평년	생 밤	32	5	2	15	5	8	1	49	5,893	4,733	978	200	11,921
	깎 밤	1	-	1	-	1	-	-	-	424	535	168	23	1,153
	조제밤	33	61	60	48	48	85	31	53	84	48	83	67	701

주: 12월은 12월 20일까지 수출된 물량이며 합계에는 미포함. 평년은 2005년 1월~2009년 12월까지의 월별 값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이며,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였음.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 1~11월까지의 밤 총 수입액은 11,814천 달러, 총 수입량은 5,472톤으로 평년 대비 13.8% 감소하였으나 작년대비 12.5%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수입은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용도로 사용되는 냉동밤 및 소비에 편리한 조제밤 위주로 밤 수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밤 수입 실적

단위: 톤

년 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0	생 밤	147	116	88	179	81	56	63	23	72	151	143	(73)	1,119
	냉동밤	386	208	231	265	182	226	242	268	283	211	530	(130)	3,032
	조제밤	32	119	200	115	90	129	138	106	114	142	136	(65)	1,321
'09	생 밤	144	87	135	122	69	57	45	31	100	115	121	125	1,151
	냉동밤	263	85	119	218	332	158	126	168	205	298	299	370	2,641
	조제밤	92	40	85	97	99	74	157	67	83	83	105	89	1,071
평 년	생 밤	203	172	149	128	134	64	60	51	89	173	159	175	1,557
	냉동밤	352	131	205	175	199	173	159	111	248	270	309	277	2,609
	조제밤	187	148	179	195	222	199	221	213	110	162	179	169	2,184

주: 12월은 12월 20일까지 수입된 물량이며 합계에는 미포함. 평년은 2005년 1월~2009년 12월까지의 월별 값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이며,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였음.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5.1.3. 2011년 1/4분기 전망

□ 가격전망

- 2010년산 밤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1~2월은 신정 및 구정, 대보름 등 전통명절이 많아 밤 소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공급이 부족하고 소비수요가 많아 가격상승요인이 잠재해 있으므로 산지가격은 kg당 2,000원에서 강보합세를 유지할 전망.

5.2. 표고버섯

5.2.1. 2010년 생산 및 가격 동향

- 2010년 생표고 생산량은 작년보다 24% 적은 17천톤 추정
- 2010년 이상기온과 가뭄, 태풍 등으로 습도조절이 어려워 생산량은 작년보다 감소하고 품질이 저하됨.
- 2010년 생표고 생산량 감소로 건표고 생산량도 작년대비 감소할 전망.

<2010년 생산량 추정>

		2010년 추정	2009년	평년
건표고	생산량(톤)	2,334	2,992	2,036
	증감률(%)	-	-22.0	14.6
생표고	생산량(톤)	17,326	22,797	24,448
	증감률(%)	-	-24.0	-29.1

□ 가격 동향

- 2010년 생표고 도매시장 가격은 신규 접종 감소에 기인한 생산량 감소로 평년보다 22% 높은 kg당 21,861원이었으며 2월하순~3월상순과 10월중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었음.

■ 생표고 가락도매시장 가격동향(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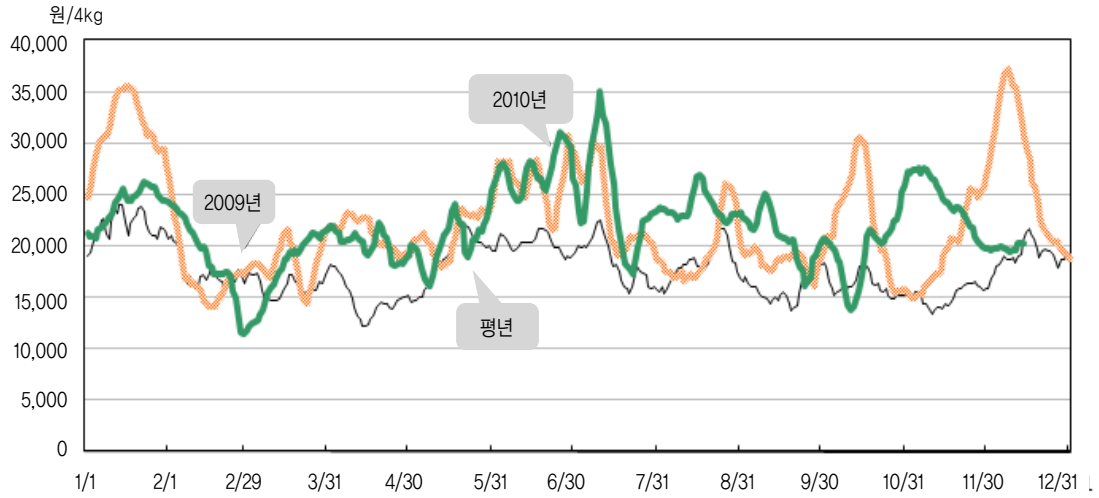
단위: 원/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0	24,212	19,748	17,202	20,320	20,278	27,368	24,529	23,803	21,186	19,321	24,680	19,689
2009	31,663	16,954	18,379	21,218	21,193	26,506	23,356	19,811	18,503	22,341	20,027	27,367
평년	23,543	17,586	15,683	14,341	18,856	19,129	19,121	19,197	15,481	15,943	15,520	21,014

주: 평년가격은 '05년 1월~'09년 12월의 월별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가격임. 12월 가격은 13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가락도매시장.

■ 생표고 가락도매시장 가격동향(중품)



자료: 가락도매시장.

- 2010년 11월까지의 건표고 입찰가격은 작년보다 평균(슬라이스 제외) 4.6% 상승하였는데 백화고와 향신의 가격은 4.4%와 8.0% 하락하였음. 품질이 저하되어 백화고의 물량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이는 흑화고와 동고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었음.

■ 건표고 장흥유치농협 가격동향

단위: 천원/3.75kg

구분	건표고	1~2월	3월	4월	5월	6월	7~10월	11월	12월
2010년	백화고	-	-	415	410	-	-	421	-
	흑화고	-	288	288	285	260	-	274	-
	동고	-	120	120	118	108	-	138	-
	향고	-	90	90	89	80	-	94	-
	향신	-	65	65	64	64	-	65	-
	등외	-	48	48	47	45	-	48	-
	슬라이스	-	82	82	82	80	-	84	-
2009년	백화고	-	420	478	424	430	-	420	420
	흑화고	-	248	270	250	260	-	270	270
	동고	-	99	110	100	100	-	105	112
	향고	-	79	88	80	80	-	86	89
	향신	-	69	72	70	70	-	70	70
	등외	-	41	43	42	45	-	48	48

자료: 장흥유치농협

5.2.2. 수입 동향

- 1~11월까지의 총 수입량은 생표고 2,285톤, 건표고 2,122톤, 조제표고 5,322톤으로 작년 동기대비 152.1%, 4.7%, 58.1%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내 표고버섯 생산감소와 가격상승으로 생표고 수입이 상당히 증가하였음.
-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북한산 건표고의 반입이 중단되었으며 기계약 물량이 7월까지 반입되었음.

■ 월별 표고버섯 수입실적

단위: 톤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2010	생표고	364	408	112	74	59	116	99	217	293	166	377	-	2,285
	건표고 (북한산)	241 (50)	252 (30)	161 (48)	260 (87)	150 (21)	179 (15)	254 (39)	157 (0)	154 (0)	107 (0)	206 (0)	-	2,122
	조제표고	797	428	508	795	773	379	360	191	199	411	482	-	5,322
2009	생표고	223	108	37	45	60	36	66	37	58	108	128	394	1,301
	건표고 (북한산)	280 (113)	106 (26)	164 (31)	202 (52)	276 (103)	262 (82)	217 (72)	163 (33)	113 (0)	122 (0)	124 (30)	296 (71)	2,322
	조제표고	368	201	327	353	182	317	369	429	350	277	192	727	4,092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www.customs.go.kr)

- 1~11월까지의 건표고 총 수출량은 226.1톤으로 작년 같은기간 217.8톤보다 4% 증가하였으며 3~8월 수출실적은 작년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9월 이후에는 작년보다 많은 양을 수출하였음.

■ 월별 건표고 수출실적

단위: 톤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2010	56.1	27.5	6.6	11.2	8.9	22.8	17.1	4.4	20.4	22.7	28.5	-	226.1
2009	16.8	19.5	26.3	22.7	14.9	26.9	28.4	15.5	17.0	20.0	9.9	20.3	238.1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www.customs.go.kr)

5.2.3. 2011년 1/4분기 전망

□ 생산 및 가격전망

- 원목재배 표고버섯 생산규모 축소로 1/4분기 생표고 생산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량 증가추세가 지속되더라도 가격은 kg당 22,000원으로 강보합세를 유지할 전망.

5.3. 대추

5.3.1. 2010년 생산 및 가격 동향

□ 생산동향

- 2010년 대추 생산량은 평년보다 약 21% 감소한 6,661톤으로 전망되며, 품질은 당도·광택이 악화되어 평년보다 다소 떨어졌음.
- 대추 생산량은 연초 냉해와 개화기 이상 고온 등의 기상 피해로 감소하였으며, 품질 또한 잦은 강우로 인한 일조량 감소로 전반적으로 떨어졌음.

<2010년 생산량 추정>

	2010년 (추정)	2009년	평년
생산량	6,661톤	10,249톤	8,468톤
증감률(%)	-	-35.0	-21.3

□ 가격 동향

- 2010년 대추 가격은 전년도 대추 재고량이 많아 평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개화기인 6월 이후에는 기상 조건 악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으며 수확기인 9월 이후에는 생산량 감소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월별 건대추 평균 도매 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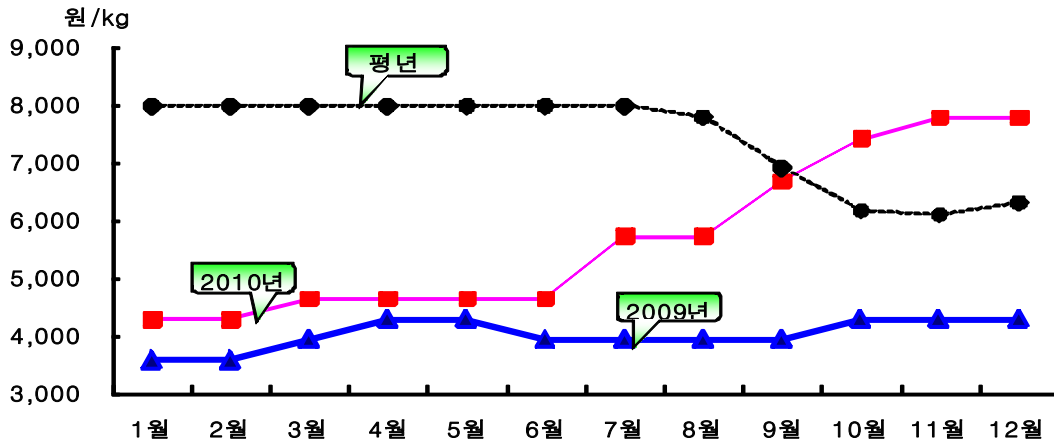
단위: 원/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0	4,286	4,286	4,643	4,643	4,643	4,643	5,714	5,714	6,667	7,407	7,777	7,777
2009	3,571	3,571	3,929	4,286	4,286	3,929	3,929	3,929	3,929	4,286	4,286	4,286
평년	7,971	7,976	7,976	7,976	7,976	7,976	7,976	7,775	6,905	6,154	6,081	6,292

주: 평년가격은 '05년 1월~'09년 12월의 월별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가격임. 12월 가격은 1월~15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경동시장

■ 월별 건대추 평균 도매가격동향 (상품)



자료: 경동시장

5.3.2. 수입 동향

- 1~12월까지의 대추 총 수입량은 약 10톤으로 4월 이후 수입은 없었으며, 12월 현재 중국 건대추 수입가격이 국산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수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월별 건대추 수입실적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0년	-	-	10	-	-	-	-	-	-	-	-	-	10
2009년	-	-	-	-	-	-	-	-	-	-	-	-	-
2008년	8	-	64	78	-	44	-	-	-	-	-	-	194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www.customs.go.kr)

5.3.3. 2011년 1/4분기 전망

□ 재고(생산) 및 가격전망

- 내년 1/4분기 건대추 가격은 2010년 대추 생산량 감소로 출하량이 줄어 전년 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소비 수요 요인의 부족으로 상승세는 약화될 것으로 보임

5.4. 뚝은감

5.4.1. 2010년 생산 및 가격 동향

□ 생산동향

- 2010년 뚝은감 생산량은 평년보다 20% 적은 64,339톤 추정
- 2010년 생육기간 내내 기후조건이 좋지 못했고 수확기(10~11)월에도 이상저온이 발생되어 생산량은 평년보다 감소하고 작황도 좋지 못함.
- 2010년 생산량 감소로 저장물량도 평년대비 감소할 전망.

<2010년 생산량 추정>

	2010년 추정	2009년	평년
생산량(톤)	64,339	94,062	80,524
증감률(%)	-	-31.6	-20.1%

□ 가격 동향

- 2010년 꾀감 생산지 가격은 2009년산 재고량 부족으로 4월까지 kg당 22,750원으로 평년보다 9.6% 높은 수준에서 상승세를 유지하다 4월이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음.

■ 월별 뚝은감 생산지 가격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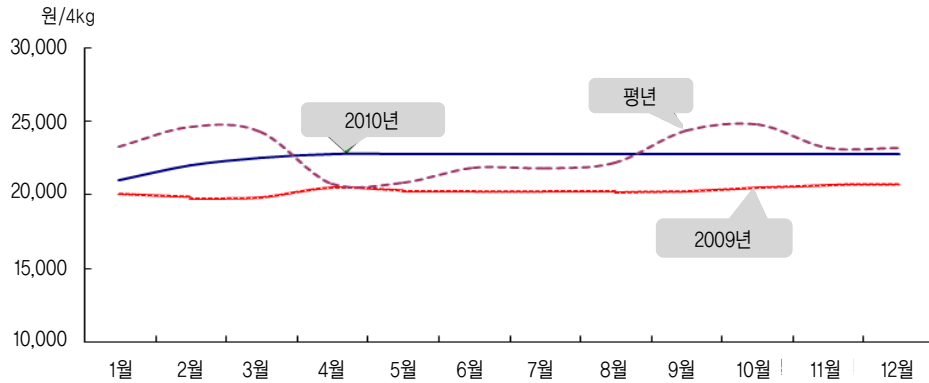
단위: 원/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생 산 지	2010	20,940	21,962	22,508	22,750	22,750	22,750	22,750	22,750	22,750	22,750	22,750
	2009	20,024	19,830	19,830	20,455	20,262	20,190	20,190	20,198	20,440	20,657	20,657
	평년	23,271	24,608	24,287	20,748	20,836	21,833	21,810	22,182	24,314	24,742	23,203

주: 11월 가격은 1일~5일까지 잠정치임. 평년가격은 '05년 1월~'09년 12월의 월별 평균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가격이며 논산, 영동, 장성의 산지 가격임.

자료: 산림조합 중앙회

■ 뽕은감 생산지 가격동향(상품)



자료: 산림조합중앙회

5.4.2. 수출입 동향

□ 수입 동향

- 1~11월까지의 꾀감 총 수입량은 2,442톤으로 작년 동기대비 37.0% 증가하였음. 이는 작년 뽕은감 작황이 안좋아 국내산 재고가 부족한 반면 가정용·선물용으로 꾀감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
- 향후 국내산 재고부족과 가격상승으로 수입량은 증가추세를 이어갈 전망.

■ 월별 꾀감 수입실적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0	178	78	12	60	158	0	716	569	374	256	41	-	2,442
2009	667	28	120	10	391	0	71	84	211	177	24	383	2,166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www.customs.go.kr)

5.4.3. 2011년 1/4분기 전망

□ 재고(생산) 및 가격전망

- 2010년산 재고량 감소로 1/4분기 출하될 꾀감 양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량도 큰 폭으로 늘기 어렵기 때문에 가격은 kg당 22,750원보다 높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전망.

5.5. 산채류(고사리)

5.4.1. 2010년 생산 및 가격 동향

□ 생산동향

- 2010년 고사리 생산량은 평년보다 5% 적은 3,897톤 추정
- 2010년 생육초기 이상저온으로 5~6월 초물 고사리 수확량이 감소하여 생산량은 평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2010년 생산량이 평년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추정되며, 저장물량도 평년보다 적고 초·중물 생산량의 감소로 품질도 좋지 않을 전망.

<2010년 생산량 추정>

	2010년 추정	2009년	평년
생산량(톤)	3,897	4,655	4,111
증감률(%)	-	-16.3	-5.2

□ 가격 동향

- 2010년 마른고사리 생산지 가격은 2009년산 재고량 부족으로 7월까지 kg당 55,000~56,000원으로 평년과 작년보다 높은 강보합세를 유지하였으나, 8월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12월 현재는 53,280원으로 전년대비 4.8% 낮으나, 평년대비 4.9% 높은 수준임.

■ 월별 마른고사리 생산지 가격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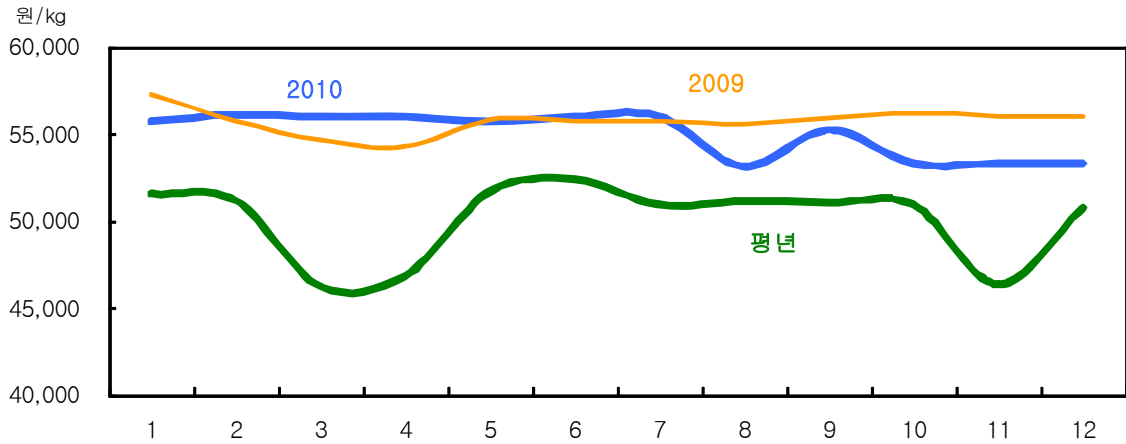
단위: 원/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0	55,715	56,150	56,030	56,030	55,715	56,030	56,030	53,095	55,247	53,280	53,280	53,280
2009	57,266	55,737	54,655	54,260	55,792	55,744	55,690	55,583	55,866	56,190	56,015	55,952
평년	51,562	51,182	46,243	46,854	51,700	52,397	50,938	51,165	51,036	50,947	46,375	50,768

주: 평년가격은 '05년 1월~'09년 12월의 월별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가격임. 4월 가격은 1일~5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임산물유통사업소.

■ 마른고사리 생산지 가격동향(상품)



자료: 임산물유통사업소.

5.4.2.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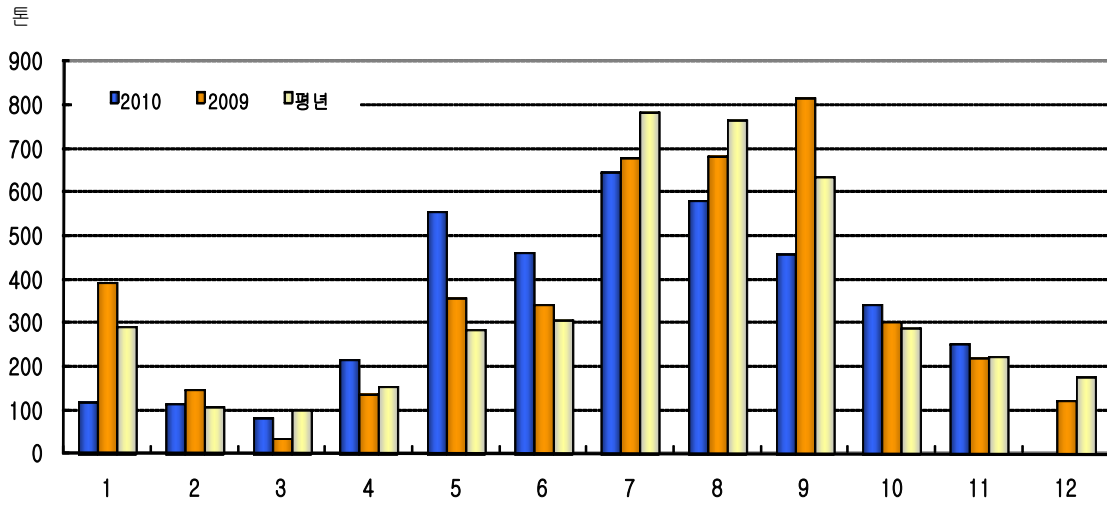
- 1~11월까지의 마른고사리 총 수입량은 3,842톤으로 작년 동기대비 6.7% 감소하였음. 이는 금년 고사리 생산량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평년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격도 전년대비 낮았기 때문임.
- 향후 국내산 가격이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큰 폭의 수입량 증가는 없을 것으로 전망.

■ 월별 마른고사리 수입실적

단위 :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0	전 체	120	117	84	218	557	462	647	581	460	344	251	-	3,842
	북한산	16	3	-	19	8	-	-	6	3	6	27	-	89
2009	전 체	394	149	36	139	358	342	680	683	815	303	221	123	4,242
	북한산	123	24	13	45	20	36	369	315	334	122	70	29	1,500
평년	전 체	292	110	102	157	284	308	784	765	638	291	225	176	4,131
	북한산	54	19	19	28	14	95	381	317	199	101	58	48	1,332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www.customs.go.kr), 통일부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www.customs.go.kr), 통일부.

5.4.3. 2011년 1/4분기 전망

□ 재고(생산) 및 가격전망

- 2010년산 재고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보여 1/4분기 출하될 마른고사리 가격은 평년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품질이 낮아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5.6. 조경수

5.6.1. 2010년 생산 및 가격 동향

□ 생산동향

- 반송 생산량은 평년보다 2.4% 적은 3,109,549본 추정
- 느티나무 생산량은 평년보다 16.3% 많은 1,492,976본 추정
- 철쭉 생산량은 평년보다 6.6% 많은 22,871,638본 추정
- 홍가시나무 생산량은 평년보다 6.6% 많은 4,562,749본 추정
- 반송과 철쭉은 가격하락으로 인해 신규식재가 감소하고 있음.
- 느티나무의 수요증가로 인해 느티나무와 홍가시나무 등을 중심으로 신규식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10년 생산량 추정>

구분		2010년 추정	평년(최근 3년)
반송 (소나무로대체)	생산량(천본)	3,035	3,110
	증감률(%)	-	-2.4
느티나무	생산량(천본)	1,736	1,493
	증감률(%)	-	16.3
철쭉	생산량(천본)	24,381	22,872
	증감률(%)	-	6.6
홍가시나무 (기타관목류로 대체)	생산량(천본)	4,864	4,563
	증감률(%)	-	6.6

자료: 산림청 임산물 통계연보

□ 가격동향

- 2010년 조경수 목대 가격은 인기수종을 제외하고 경기악화로 인한 수요 부족으로 평년보다 5~20%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었음. 한편 느티나무 R15와 홍가시나무는 지속적인 수요증가로 인해 평년대비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음.

■ 목대가격

단위: 원

수종	규격	금년	평년	증감률(%)
반송	W0.5×H0.5	16,416	28,616	-20.3
	W1.5×H1.5	215,083	239,488	-5.3
느티나무	H3.5×R10	104,032	99,153	4.9
	H4.0×R15	234,666	211,153	11.1
철쭉	W0.3×H0.3	657	758	-15.4
홍가시	H1	7,611	6,333	20.1

자료: 표본임가 및 통신원 조사

5.6.2. 2011년 1/4분기 전망

□ 생산 및 가격전망

- 2010년산 식재량 감소로 인해 3월 출하될 철쭉, 반송묘목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격 하락세는 주춤할 것으로 보이며, 느티나무는 당분간 현 가격을 유지할 전망. 홍가시나무는 점무늬병 확산으로 인한 수요감소가 예상되므로 가격 하락할 전망.

제 3 장

2011년도 임업관측사업 추진 계획(안)

1. 대상 품목 및 내용

□ 대상 품목 및 금액

- 대상품목: 밤, 표고버섯, 대추, 뽕은감, 산채류, 조경수
- 금액: 6억원

□ 관측 내용

- 품목별 월별 작황 및 재배 동향
- 품목별 월별 출하와 저장, 가격 동향과 전망
- 품목별 생산지와 소비지 시장 동향
- 품목별 수출과 수입 동향
- 품목별 해외시장 동향
- 소비자 구매행태 조사

2. 세부 추진계획

2.1. 추진 목표

- 임업관측 사업의 내실화
- 임업관측 정보의 폭넓은 분산체계 구축

2.2. 추진 일정

□ 밤

- 준비작업: 2011년 1~2월
- 월보발간: 2011년 3월부터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격월(3,5,7,9,11월) 15일 발행하되,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8, 10월은 속보를 발간
 - 발행부수: 3,800부

□ 표고버섯

- 준비작업: 2011년 1~2월
- 월보발간: 2011년 3월부터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매월(12, 1, 2, 8월 제외) 15일에 발행
 - 발행부수: 3,500부

□ 대추

- 준비: 2011년 1~3월
- 월보발간: 2011년 4월부터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 수확기를 전후하여 4, 8, 9, 10, 11월 15일에 발행
- 발행부수 : 각각 2,360부

□ 뽕은감

- 준비: 2011년 1~3월
- 월보발간: 2011년 4월부터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 수확기를 전후하여 4, 8, 9, 10, 11월 15일에 발행
 - 발행부수 : 각각 2,340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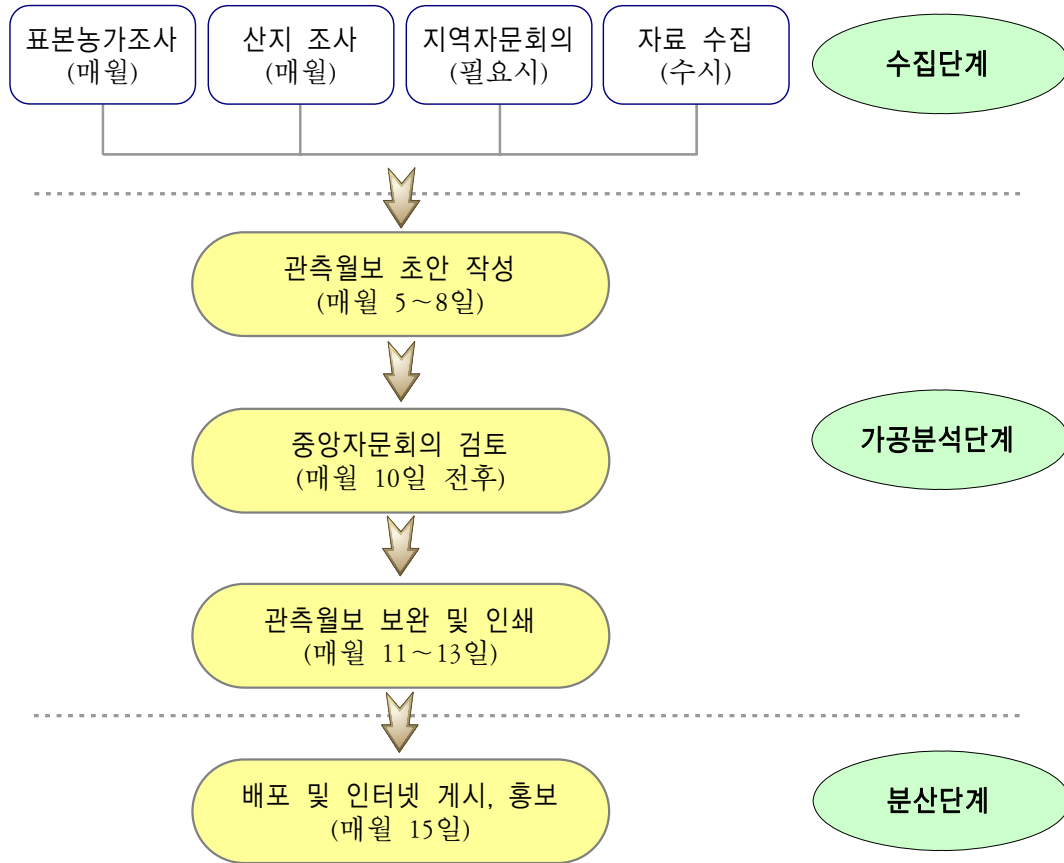
□ 산채류

- 준비: 2011년 1~3월
- 월보발간: 2011년 4월부터
- 관측품목: 고사리, 더덕, 곰취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 수확기를 전후하여 4, 5, 6, 8, 9월 15일에 발행
 - 발행부수 : 각각 2,100부

□ 조경수

- 준비: 2010년 12월~2011년 2월
- 월보발간: 2011년 3월부터
- 관측품목: 소나무(반송), 느티나무, 철쭉, 가시나무류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 주요 판매시기 전 3, 6, 8월 15일에 발행(1회 추가발간)
 - 발행부수 : 각각 2,300부

2.3. 임업관측사업 추진 체계



2.4. 자문위원 및 표본농가 정비

□ 밤

- 준비작업: 2011년 1~2월
- 중앙자문위원
 -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로 14명 내외 위촉하되 지역과 연령, 학식, 현실파악 능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 표본농가 및 지역자문위원
 - 표본농가 300호(예비농가 50호 포함), 지역자문위원 20~25명을 유지하되 주산지, 연령, 재배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 표고버섯

- 준비작업: 2011년 1~2월
- 중앙자문위원
 -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로 15명 내외 위촉하되 지역과 연령, 학식, 현실파악 능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 표본농가 및 지역자문위원
 - 표본농가 300호(예비농가 50호 포함), 지역자문위원은 30명 내외를 유지하되 지역, 연령, 재배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 대추

- 준비작업: 2011년 1~3월
- 중앙자문위원
 -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로 각각 10명, 13명 내외로 위촉하되 지역과 연령, 학식, 현실파악 능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및 보완
- 표본농가 및 지역자문위원
 - 표본농가 150호(예비농가 50호 포함), 지역자문위원은 24명 정도를 유지하되 지역, 연령, 재배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및 보완

□ 뽕은감

- 준비작업: 2011년 1~3월
- 중앙자문위원
 -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로 각각 10명, 13명 내외로 위촉하되 지역과 연령, 학식, 현실파악 능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및 보완
- 표본농가 및 지역자문위원
 - 표본농가 100호(예비농가 30호 포함), 지역자문위원은 30명 정도를 유지하되 지역, 연령, 재배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및 보완

□ 산채류

- 준비작업: 2011년 1~3월
- 중앙자문위원
 -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로 18명 내외 위촉하되 지역과 연령, 학식, 현실파악 능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 표본농가 및 지역자문위원
 - 표본농가 300호(예비농가 50호 포함), 지역자문위원 20명으로 확대 개편하되 주산지, 연령, 재배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 조경수

- 준비작업: 2010년 12월~2011년 2월
- 중앙자문위원
 -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로 12명 내외 위촉하되 지역과 연령, 학식, 현실파악 능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조경수 유통센터 전문가 적극 활용)
- 표본농가 및 지역자문위원
 - 표본농가 350호(예비농가 50호 포함), 지역자문위원 20명 내외를 유지하되 주산지, 연령, 재배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3. 관측사업의 내실화 추진계획

□ 2010년 추가 품목의 신뢰도와 정확성 제고

- 2010년 추가 관측 품목인 산채류와 조경수에 대한 표본임가, 통신원, 자문위원 등의 정비로 관측의 신뢰도 및 정확성 제고.
 - 학계, 국립산림과학원 등을 통해 관련 품목 전문가를 발굴하고 산림조합,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통해 지역 전문가 및 표본임가 재조정

□ 기존 관측품목 표본에 대한 질적 수준 개선 및 관리

- 밤, 표고버섯, 대추, 뽕은감 등 기존 관측품목의 표본임가 중 표본으로서의 대표성이 낮은 임가에 대한 교체를 실시하고, 주산지 변화에 따른 지역별 표본조정이 필요
 - 산림조합, 농림기술센터, 지자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문기술인, 특화전문지도원 등의 추천·협조를 통해 주산지별 표본임가를 재구성
- 또한 표본 임가에 관한 정보는 시·군 지자체 및 지역 농림기술센터 등의 협조로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유출되는 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측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품목별 생산·유통 및 시장 구조 반영 강화

- 생산·유통 및 시장 구조에 있어 품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관측 정보에 반영함으로써 제공되는 정보의 현실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표고: 톱밥표고 시장 정보 강화, 톱밥배지 재배 생산정보 강화
 - 대추: 생대추 직거래 가격정보 제공
 - 뽕은감: 연시·홍시용과 꺾임용 감을 구분하여 정보제공, 생감 공판 경매가격 자료 제공 강화. 수출 증가에 따른 수출정보 제공 강화

□ 관측 외 이슈 정보제공 기능 강화

- 현재 관측 외 정보는 주로 월보 내 단신을 통해 기상, 지역축제, 재배기술 등에 관한 정보가 주로 제공되었으나 정보의 신속성 혹은 최신성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했던 측면이 있음.
 - 이에 신규·변경 정부정책, 국내외 최신 이슈, 천재지변으로 인한 속보 등 신속성을 요하는 정보를 인터넷 웹기반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정보전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소비자 의향조사 실시

- 2010년 실시된 품목이외에 2개 품목 소비자 의향조사 실시
 - 소비가 집중되는 명절 이전에 임산물에 대한 소비의향조사를 실시하여 가격 분석에 반영함으로써 관측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 품목별 연차 동향 및 전망자료 발행

- 품목별 연간 생산동향 및 전망자료 발행(품목별 1회)
 - 12월 중 각 품목별 연간 생산·유통·수출입 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전망자료 발행(6개 품목)

제 4 장

임산물 수급동향과 전망: 밤, 표고버섯

1.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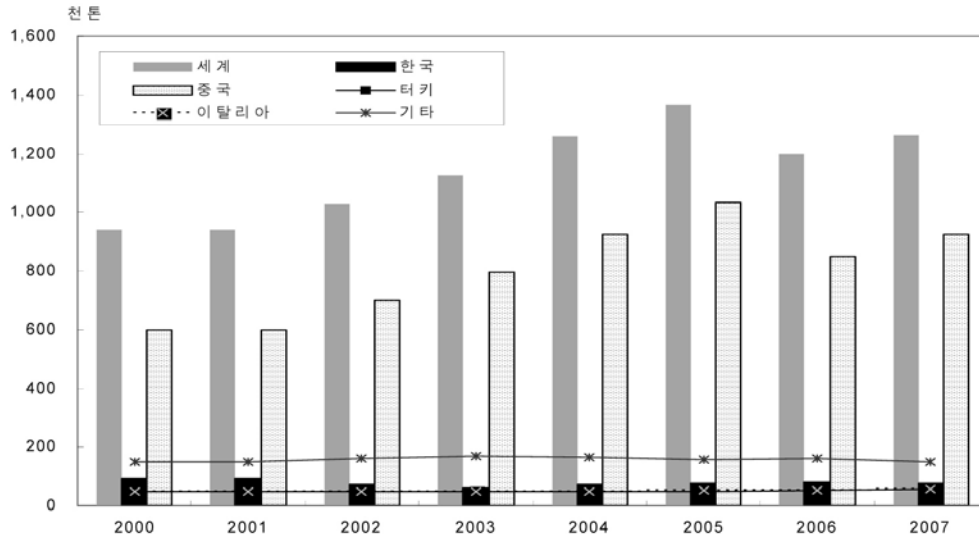
1.1. 국제 동향

1.1.1. 세계 밤 생산 동향

- FAO(2009)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세계 밤 생산량은 2005년 136만 7천 톤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현재 세계 총 생산량은 126만 2천 톤으로 2000년 94만 1천 톤 대비 연평균 4.9%씩 증가하였다.
 - 주요 밤 생산 국가는 중국, 한국, 터키, 이탈리아 등으로 전체 생산량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 2000년 대비 한국은 감소 추세인 반면 터키, 이탈리아는 2000년대 중반까지는 5만 톤에서 정체상태였으나 최근 생산량이 5만 5천 톤으로 각각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중국은 밤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로서 세계 밤 생산량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FAO(2009)에 따르면 중국은 2000년 59만 8천 톤에서 2005년 103만 2천 톤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감소하다가 2007년에는 92만 5천 톤으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 이는 2000년 대비 매년 7.8%씩 밤 생산량이 증가한 것이다.

¹ 중국농업연감(2008)에 따르면 2007년도 중국의 밤 총 생산량은 126만 7천 톤으로 국제통계

그림 4-1. 주요 국가별 세계 밤 생산 추이



자료: www.fao.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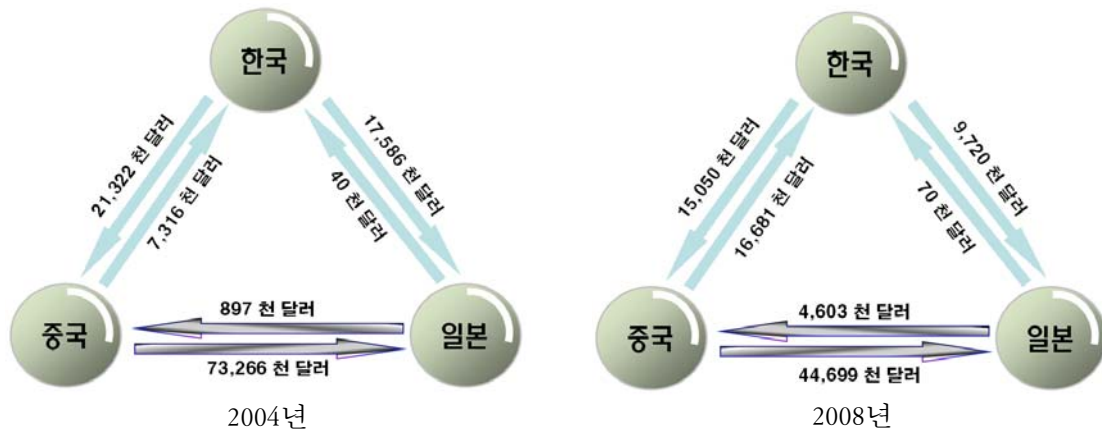
1.1.2. 한·중·일 밤 교역 동향

-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비슷한 재배환경과 식생활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밤을 포함한 임산물 교역의 거의 대부분이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최근 5년간 한·중·일 밤 교역 동향을 보면 2004년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2,132만 2천 달러였으나 2008년에는 1,505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04년 731만 6천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1,668만 1천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냉동밤과 탈피 없이 그대로 시식이 가능한 가공밤(조제저장 처리밤)의 수입이 국내소비의 증가와 함께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반면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는 중국이 한국산 생밤을 수입하여 깎밤으로 가공한 다음 일본으로 수출하게 되는데 일본의 소비감소와 함께 식품안전을 위한 수입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FAO에서는 중국의 밤 생산량에 대해 자체추정자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영향은 중국-일본의 교역동향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2004년에 중국의 일본으로의 수출은 7,326만 6천 달러였지만 2008년에는 4,469만 9천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2004년 89만 7천 달러에서 460만 3천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4-2. 한·중·일 밤 교역 동향



주: 실선의 화살표는 한국기준이며, 무늬의 화살표는 중국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한국-일본의 교역동향 역시 일본의 소비감소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2004년에 대일 수출액은 1,758만 6천 달러였으나 2008년에는 972만 달러로 감소하였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2004년 4만 달러에서 2008년 7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대일 수출 감소는 간밤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중국의 값싼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한 우회수출전략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중국의 위안화 강세, 인건비 상승 등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고 일본의 소비 감소와 함께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는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중국으로의 생밤 수출을 늘리기보다는 북한 또는 해외인력을 활용하여 간밤에 대한 국내 가공율을 높이면서 다양한 수출활로 모색과 함께 새로운 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1.1.3. 중국의 동향

- 중국의 밤 재배면적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중국 내부에서 재배되는 대부분은 중국 자체의 재래품종이며 1990년대 이후 개량품종이 보급되면서 품종 수는 400여 종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해외 수출을 위해 한국산 품종을 식재하여 재배하는 지역도 많이 있는데 주로 요령성 단둥시, 산둥성 일조시, 하남시 신양, 광둥, 광서, 절강, 안휘, 복건 등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나 연간 2만 톤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주요 산지는 산둥, 하남, 호북 등으로 2007년 전체 생산량의 약 43%가 이들 3성에서 생산되며 성별로는 산둥 17.5%, 하남 14.9%, 호북 10.6%로 산둥이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다.
 - 2000년 대비 전체적인 생산량은 연평균 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하북, 광서 등의 연평균 증가율이 55.4%, 25.7%로 가장 높았다. 생산량이 가장 많은 산둥은 7.3%의 가장 낮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4-1. 중국의 주요 산지별 밤 생산량 추이

	2000	2002	2004	2006	2007	단위: 톤, % 연평균증감률 (07/00)
하 북	34,620	55,049	84,661	134,895	168,874	55.4
요 녕	24,676	32,652	38,719	48,295	47,909	13.5
절 강	33,450	44,848	55,436	61,782	65,402	13.6
안 휘	45,710	55,207	68,506	83,483	86,223	12.7
산 동	146,839	172,269	202,207	230,322	221,416	7.3
하 남	85,650	76,986	102,343	139,043	188,298	17.1
호 북	70,818	60,429	101,613	128,282	133,749	12.7
광 서	22,008	31,668	34,567	52,980	61,676	25.7
기 타	134,414	712,576	234,683	260,579	292,963	16.9
전 체	598,185	701,684	922,735	1,139,661	1,266,510	16.0
연평균증감률		8.7	13.6	15.1	16.0	

자료: 중국농업국. 『중국 농업연감(2008)』.

- 중국이 해외로 수출하는 밤은 주로 생밤을 중심으로 냉동밤, 밤통조림(가공밤)² 등이며 생밤은 일본, 한국,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 등이 주요 수출 대상 국가이고, 미국, 캐나다, 필리핀, 싱가포르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다.
 - 냉동밤은 일본, 한국, 대만이 주요 수출대상국가이며 미국, 태국, 독일 등으로도 수출되고 있다. 가공밤은 일본, 한국, 홍콩 등이 주 수출대상국가이며 미국, 말레이시아, 대만,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영국, 호주 등으로도 많이 수출되고 있다.
- 생밤의 주요국별 수출동향을 보면 전체적으로 2004년 대비 연평균 2.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일본, 대만 등에 대한 수출은 감소한 반면 태국,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 기타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수출대상 국가인 일본에 대한 수출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의 소비감소와 식품안전성 규제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4-2. 중국의 국별 생밤 수출 동향

단위: 톤, %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11)	연평균증감률 (08/04)
전 체	37,675	37,091	43,379	45,513	40,973	39,358	2.2
한 국	1,991	1,639	2,530	2,297	1,868	747	-1.5
일 본	19,317	14,316	14,478	11,084	8,388	6,664	-14.1
대 만	6,951	8,115	7,377	6,176	5,831	4,089	-4.0
태 국	1,148	1,016	1,073	1,631	2,635	2,974	32.3
아랍에미리트	546	1,480	3,083	2,285	1,321	2,521	35.5
기 타	7,722	10,524	14,839	22,040	20,930	22,363	42.7

자료: www.kita.net

- 밤 수입은 국내 소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해외 수출을 위해 주로 이루어지며 한국과 일본이 주 대상 국가들이다. 2004년 대비 연평균 3%씩 감소 추세에 있으며 한국으로부터의 생밤 수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 일본 등지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으로부터의 생밤 수입은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한 실험용인 것으로 보인다.³

² 생밤, 냉동밤, 밤통조림(가공밤)의 HS 분류코드번호는 생밤 08024010, 냉동밤 08119010, 가공밤 20081991 등이다.

표 4-3. 중국의 생밤 수입 동향

단위: 톤, %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11)	연평균증감률 (08/04)
전 체	13,529	13,763	13,358	11,151	11,890	10,768	-3.0
한 국	12,857	13,163	12,676	9,481	9,468	9,083	-6.6
일 본	487	354	658	865	1,784	1,670	66.6
기 타	185	246	24	805	638	15	61.2
한국비중	95.0	95.6	94.9	85.0	79.6	84.4	

자료: www.kita.net

1.1.4. 일본의 동향

- 최근 5년간 일본의 밤 수급추이를 보면 2008년 생산량은 1만 4,172톤으로 2004년 대비 연평균 0.5%씩 증가한 반면 2008년 수입량과 소비량은 1만 7,858톤과 3만 2,030톤으로 2004년 대비 연평균 9.8%와 6.5%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일본의 밤 수급추이

단위: 톤, %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증감률 (08/04)
생 산	13,908	12,370	14,048	12,938	14,172	0.5
수 입	29,382	26,075	26,273	21,830	17,858	-9.8
소 비	43,290	38,445	40,321	34,768	32,030	-6.5
수 출	-	-	-	-	-	-

자료: www.e-stat.go.jp

- 일본의 주요 밤 생산지는 이바라키, 구마모토, 에이메, 사이타마, 도치기 등이며 이바라키와 구마모토의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일본에서 재배되는 밤 품종은 100종류 이상이며, 가장 많이 식재된 품종은 츠쿠바, 탄바, 긴요세, 이시즈치 등으로 이들 4개 품종이 전체 식재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³ 일본 임야청의 공식통계자료(www.e-stat.go.jp)에서는 일본 밤의 수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밤 가공제품 개발을 위한 가공업체의 실험용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 일본의 주요 밤 산지별 생산추이

단위: 톤, %

연 도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증감률 (08/05)
이바라키	4,830(39.0)	4,702(33.5)	4,621(35.7)	5,030(35.5)	1.4
구마모토	1,544(12.5)	2,411(17.2)	1,944(15.0)	2,712(19.1)	25.2
에 이 메	978(7.9)	1,374(9.8)	1,124(8.7)	1,186(8.4)	7.1
사이타마	380(3.2)	692(4.9)	650(5.0)	650(4.6)	23.7
도 치 기	810(6.5)	617(4.3)	604(4.7)	410(2.9)	-16.4
기 타	3,828(30.9)	4,252(30.3)	3,995(30.9)	4,184(29.5)	3.1
총생산량	12,370(100.0)	14,048(100.0)	12,938(100.0)	14,172(100.0)	0.5

자료: www.e-stat.go.jp

- 일본은 밤 소비국가로서 밤빵을 비롯해, 케이크, 영양갱, 푸레, 밤술, 밤밥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개발되어 소비되고 있는데 소비량의 대부분을 한국,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소비 감소와 함께 수입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 수입의 대부분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표 4-6>에서도 나타나듯이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생밤(간밤 포함)의 경우 한국산의 수입은 다소 증가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04년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수입시장이 값싼 중국산 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나 한국산 제품의 경우 가공 기술 개발과 함께 일본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질 높은 제품을 생산한다면 향후 일본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산 일시저장밤은 연평균 21.6%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밤(간밤 포함) 및 밤 통조림의 경우 2004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이 0.7%와 450%씩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중국산 제품의 경우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밤 및 일시저장밤의 감소율이 연평균 13.4%와 12.6%씩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밤 통조림 역시 연평균 6%씩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 4-6. 일본의 국별 밤 제품별 수입 동향

단위: 톤, %

	제품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11)	연평균증감률 (08/04)
한국	생밤	4,802	4,622	4,143	4,054	4,935	3,670	0.7
		(19.1)	(21.4)	(18.8)	(23.3)	(34.2)	(34.8)	
	일시저장	423	34	27	26	40	20	-21.6
		(27.3)	(4.8)	(4.1)	(3.1)	(6.7)	(5.3)	
	밤통조림	5	8	87	85	95	80	450.0
		(0.3)	(0.4)	(4.1)	(4.1)	(5.4)	(5.1)	
중국	생밤	20,348	16,853	17,891	13,324	9,479	6,845	-13.4
		(80.7)	(78.2)	(81.1)	(76.6)	(65.6)	(64.9)	
	일시저장	1,128	680	630	806	561	355	-12.6
		(72.7)	(95.3)	(95.9)	(96.9)	(93.3)	(94.7)	
	밤통조림	1,592	1,787	1,641	1,450	1,209	1,165	-6.0
		(78.3)	(81.3)	(76.4)	(70.7)	(68.4)	(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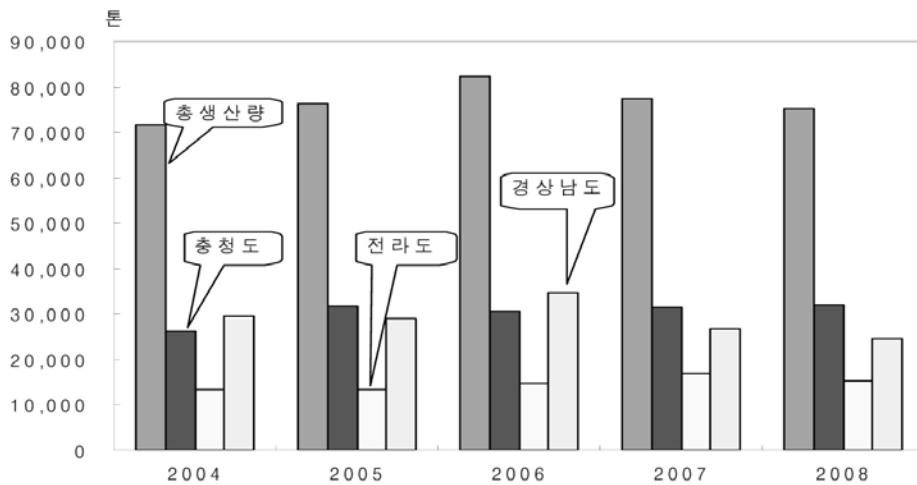
자료: www.kita.net

1.2. 국내 동향

1.2.1. 생산 및 소비 동향

- 최근 5년간(2004~2008) 국내 밤 생산량은 2004년 7만 1,796톤에서 다소 증가하다가 2006년 8만 2,450톤을 기점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7만 5,170톤을 보이고 있다. 2009년에는 조생종의 밤 생산량 감소와 함께 대 및 특대 밤의 비율이 증가하고 중·소 밤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평년대비 약 3.3% 감소한 7만 4천 톤 정도가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 지역별로 보면 기존에는 경상남도와 전라도(전라남북도 포함) 위주로 생산이 많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충청도(충청남북도 포함)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고 경상남도, 전라도 순으로 생산이 되고 있다.

그림 4-3. 지역별 밤 생산 동향



- 충청도의 경우 2004년 2만 6,369톤에서 2008년 3만 2,129톤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경상남도는 2만 9,453톤에서 2006년 3만 4,730톤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08년에는 2만 4,496톤을 보이고 있다. 전라도는 2004년 1만 3,514톤에서 증가하여 2007년에 1만 6,865톤을 생산하였으나 2008년에는 1만 5,333톤으로 감소하였다.
- 이와 같은 생산의 변화는 경상남도과 전라도는 고령목이 많고 보식 위주의 밤나무림 조성과 조방경영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는 반면 충청도는 신규 조성을 통한 재배면적의 증가, 환경친화적인 토양관리와 집약적 경영방식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 충청도의 경우 충북은 충주, 충남은 공주·부여·청양, 전라도는 전북은 순창, 전남은 광양·순천·구례, 경상남도는 하동·산청·합천·진주·함양 등이 주산지이다. 충청도에서는 충주시와 청양군 그리고 전라도의 경우 임실군, 순창군의 생산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 그러나 생산 임가의 고령화, 소유면적의 영세화, 재배면적의 감소, 밤나무의 고령화, 수출 및 가격불안정 등 내적 불안요인과 함께 DDA, FTA⁴ 등으로 인해 상당

⁴ KIEP(2009.12.23)에 따르면 DDA협상은 G20 등 일련의 주요국 정상회의에서 2010년까지 타결짓자는 목표가 확인된 바 있어 2010년 상반기에 세부원칙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세계경기의 회복세와 더불어 2010년에는 세계 각국의 FTA추진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향후 밤 생산 임가의 입장에서는 생산량보다는 품질 제고가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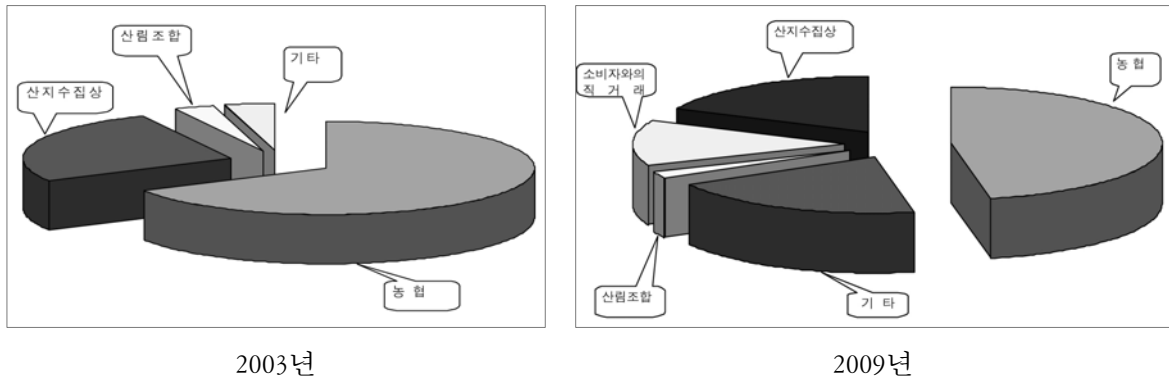
- 한편 밤 소비는 주로 생밤위주로 이루어지며 전체 생산량의 25~30%가 수출용으로 소비된다. 국내에서는 식자재용이 15%, 각종 가공용이 12~15%, 군밤용이 3~5%, 관혼상제 등 제수용품으로 18~20%가 소비되며 기타가 12~15%인 것으로 추정된다.
- 1인당 밤 소비량은 가장 많은 밤이 생산되었던 1997년 2.2kg으로 최고치를 보인 이후 태풍피해로 가장 적은 밤이 생산되었던 2003년에는 1.0kg까지 감소하였고 최근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다시 증가하여 2008년에는 1.4kg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2. 유통 및 가격동향

- 국내 생산 밤의 유통은 농협 및 산지수집상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관행에서 소비자와의 직거래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3년에 농협 67%, 산지수집상 26%, 산림조합 3%, 기타 4%에서 2009년에 농협 47%, 산지수집상 20%, 소비자와의 직거래 13%, 산림조합 2%, 기타 18%로 유통경로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⁵
- 유통경로의 변화는 밤 생산자들에 대한 저온저장고 및 산지유통센터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간 접근성 향상 등을 들 수 있으며,
 - 또한 최근 식품안전성과 관련하여 친환경임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밤 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직접 체험 등이 증가하면서 계약생산과 같은 다양한 직거래 방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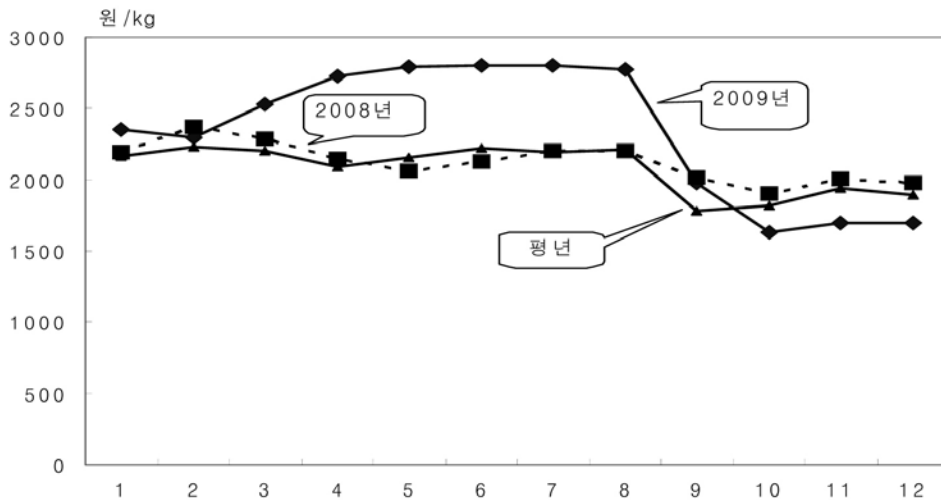
⁵ 자세한 조사내용은 장우환외(2003), 「밤나무 재배실태와 정책방향 연구」와 장철수외(2009) 「임업관측(밤)」 12월호(농경연)을 참조하기 바라며, 기타는 생산자조합, 대형마트 등을 포함한다.

그림 4-4. 국산 밤의 유통경로 변화



- 밤 산지가격은 그림에서 보듯이 당해 연도 밤이 생산되기 이전인 8월 하순 이전까지는 전년도에 생산된 저장 밤이 유통되므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다가 햇밤이 출하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그림 4-5. 밤 산지평균가격 동향(대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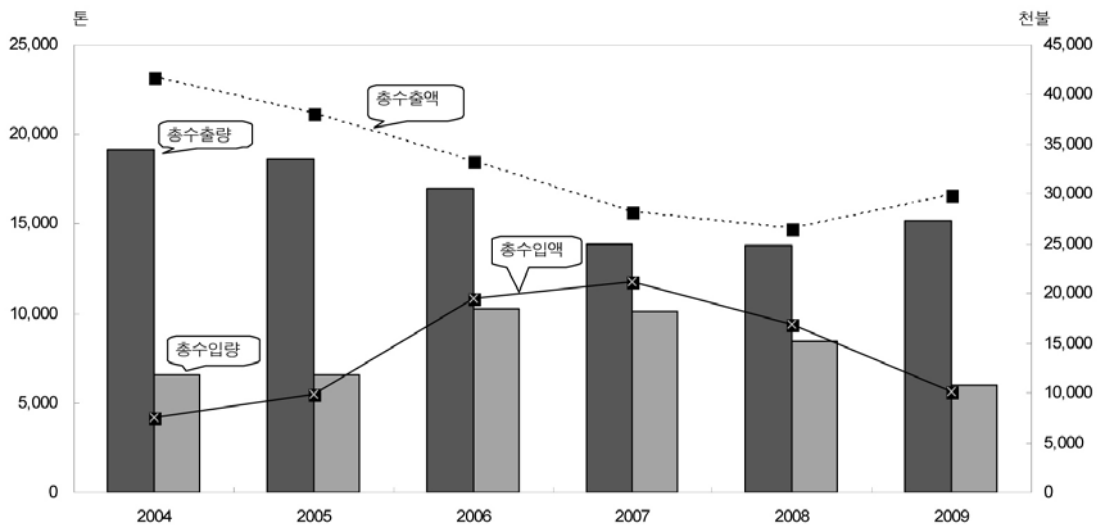


- 2009년도의 경우 조생종의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고 중만생종의 수확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다가 10월 중순이후부터 저장밤의 유통이 시작되면서 산지가격은 kg당 평균 1,700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밤이 많이 소비되는 계절(12~2월)이지만 금융 불안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와 유통밤의 품질 저하 등으로 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밤 산지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2.3. 수출입 동향

- 최근 5년간 밤의 수출입 동향을 보면⁶ 수출은 2004년 1만 9,148톤(4,171만 7천 달러)에서 2008년 1,377만 톤(2,653만 3천 달러)로 2004년 대비 매년 7%씩 감소해 왔다. 그러나 2009년에는 총 1만 5,202톤(2,985만 9천 달러)⁷가 수출되어 2007년 수준 이상을 회복하고 있다.

그림 4-6. 밤 수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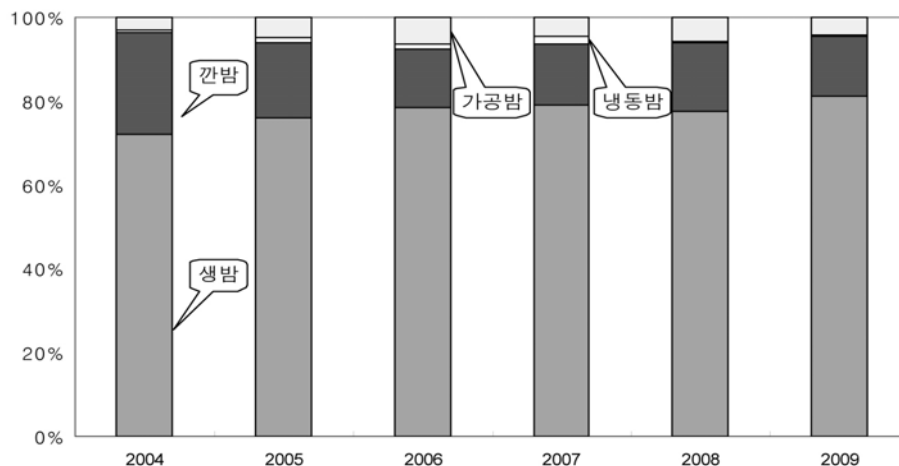
- 밤 수출이 감소를 멈추고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주수출시장인 일본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수입 밤에 대한 생산이력제 실시, 사용가능한 약제의 엄격한 적용 및 잔류농약 검사 등 수입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대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 수입은 2004년 6,579톤(751만 1천 달러)에서 2008년 8,458톤(1,691만 4천 달러)로 2004년 대비 매년 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6년을 기점으로 수입은 하락하는 추세이다. 2009년도 총 수입은 6,025톤(1,016만 7천 달러)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수입감소는 최근 경기침체, 소비부진 및 수입밤의 가격상승 등에 기인한다.

⁶ 제품별 수출입 밤을 모두 생밤으로 환산하였으며 환산계수는 간밤 2.0, 냉동밤 1.4, 가공밤 1.1 등이다.

⁷ 2009년도는 한국무역협회 자료(1~11월말)와 관세청 자료(12월말)를 합산한 값이다.

- 수출입 동향을 제품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기존에는 국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간밤으로 가공하여 직접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나 대일 수출이 감소하면서 줄어들었고 생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주요 원인은 국내 노동력의 부족, 인건비의 상승 등에 있으며 값싼 노동력과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중국으로 원료 밤인 생밤을 수출하고 그곳에서 간밤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우회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 생밤은 연 평균(2004~2008) 1만 2,590톤, 간밤은 2,919톤, 냉동밤은 180톤, 가공밤은 790톤이 수출되며,⁸ 국가별로는 생밤 수출은 중국, 간밤 및 냉동밤은 일본, 가공밤은 일본, 중국, 미국, 대만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다.
- 최근 국산 밤의 수출은 미국 등지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프랑스 40톤(8만 달러)이 수출되었고 2009년도에 60톤(13만 9천 달러)이 수출됨으로써 프랑스를 거점으로 유럽지역으로의 수출기회가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밤 수출은 비교적 다변화되고 있으나 밤 수입은 거의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생밤은 연평균(2004~2008) 1,916톤, 냉동밤은 3,961톤, 가공밤은 2,486톤이 수입되고 있다.⁹

그림 4-7. 밤 제품별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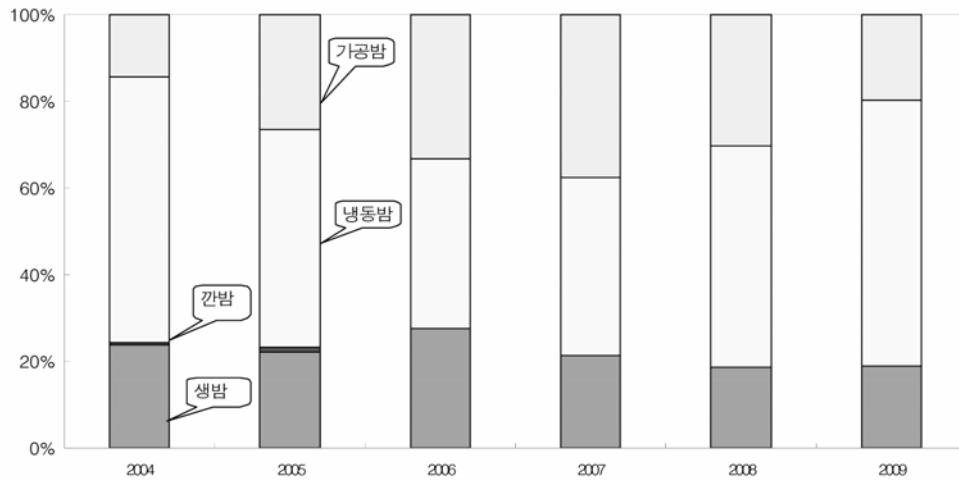


⁸ 각 제품은 모두 생밤으로 환산한 양이다.

⁹ 간밤 및 냉동밤, 가공밤 모두 수출에서와 같이 생밤으로 환산한 양이다.

- 생밤은 국내 생산 임가의 보호를 위해 관세할당제도¹⁰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소 시장접근물량은 2,170톤으로 2006년을 기점으로 수입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 냉동밤은 가공밤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이 감소했으나 최근 들어 가공밤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
 - 가공밤은 중국산 맛밤으로 현지에서 가공하여 수입하지만 최근 경기침체, 소비부진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 반면 냉동밤은 제과용, 요식용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원료이므로 전반적인 수입 감소로 수입량은 감소하였지만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 2009년의 총 수입량은 생밤 기준으로 총 6,025톤이며 냉동밤이 3,696톤, 가공밤이 1,178톤으로 냉동밤의 비중은 61%, 가공밤은 20%로서 2008년 대비 냉동밤의 비중은 10% 증가한 반면 가공밤은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제품별 밤 수입 추이



1.3. 수급 전망

- 2010년 국내 밤 생산량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어나겠지만 경남과 전남의 생산 감소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2009년 수준인 약 7만 3,874톤을 보일 것으

¹⁰ 생밤(간밤 포함)의 기본세율은 50%이지만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게 되면 219.4% 또는 1,470원/kg 가운데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로 전망된다. 2020년에는 2000~2004년에 중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신규 조성된 밤나무재배지¹¹로부터 생산이 늘어나면서 약 7만 5,700톤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밤 수입은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와 중국산 제품의 가격상승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경기회복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냉동밤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수입량은 2010년에는 약 7,892톤, 2020년에는 약 1만 833톤에 이를 전망이다.
- 밤 수출은 일본의 소비감소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을 위한 수입규제 강화로 인해 수출 밤의 안전성과 품질이 좋은 한국산 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선이 다변화하고 있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에는 약 1만 5,600톤, 2020년에는 1만 7,725톤 정도가 수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밤 소비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둔화 등으로 감소하였지만 경기회복과 함께 소비가 증가하여 2010년에는 약 6만 6,166톤, 2020년에는 6만 8,808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인당 소비량도 2010년에는 1.35kg, 2020년에는 1.39kg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7. 밤 수급 전망(생밤 환산 기준)

단위: 톤

	2008	2009	전망		
			2010	2015	2020
공급	83,628	80,025	81,766	83,904	86,533
국내생산	75,170	74,000	73,874	74,022	75,700
수입	8,458	6,025	7,892	9,882	10,833
수요	83,628	80,025	81,766	83,904	86,533
국내소비	69,858	64,823	66,166	67,414	68,808
수출	13,770	15,202	15,600	16,490	17,725
1인당 소비량(kg)	1.44	1.33	1.35	1.37	1.39

¹¹ 산림청 내부자료(2001~2005), 농경연 임업관측월보(2006~2007)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01~2007) 조성된 밤나무 신규조성면적은 7,483ha 정도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83%인 6,184ha가 충청도에서 조성된 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표고버섯

2.1. 국제동향

2.1.1. 세계 생산동향

- 세계 표고버섯 생산에 관한 FAO의 공식 통계자료는 없으나, 중국, 일본, 한국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중국이 세계 표고버섯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표고버섯은 주로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며, 주요 생산국은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이며 이들을 포함하여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화교권 국가들에서 대부분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4-8. 세계 표고버섯 생산량(추정치, 생표고 환산 기준)

단위: 톤, %

구분	1994년		1997년		2002년		2006년		2007년	
	생산량	%	생산량	%	생산량	%	생산량	%	생산량	%
중국	626,000	73.6	1,125,000	85.1	2,214,444	91.7	3,293,235	94.3	2,880,000	93.4
일본	157,400	18.5	132,600	10.0	96,964	4.0	94,574	2.7	93,222	3.0
한국	22,000	2.6	17,000	1.3	37,854	1.6	38,534	1.1	40,185	1.3
대만	28,000	3.3	27,000	2.1	29,240	1.2	30,000	0.9	31,000	1.0
기타	17,000	2.0	20,000	1.5	36,550	1.5	37,000	1.1	38,000	1.2
계	850,400	100	1,321,600	100	2,415,052	100	3,493,343	100	3,082,407	100

주:1) 세계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는 없음. 1994년과 1997년 자료는 Mushroom Grower's Handbook을 참조하였음.

2) 2002년, 2006년, 2007년 자료는 중국, 일본, 한국의 각 국가 통계자료를 사용하였으나 대만과 기타는 추정자료를 사용함. 단, 2007년 자료 중 중국 생산량은 일본의 「Techno Innovation」을 참조하였음.

- 세계 표고버섯 총 생산량은 2006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07년 다소 감소한 308만 톤이 생산(생표고 환산 기준)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의 「Techno Innovation」¹²에 따르면 2007년 중국의 표고버섯 총 생산량은 288만 톤(93.4%)이 생산되고, 일본 9만 3천 톤(3.0%), 한국 4만 톤(1.3%)정도인 것으로 타나났다.

¹² Techno Innovation. STAFF. 2009. no.73

- 이러한 영향은 중국의 대일본 교역동향에서도 잘 나타난다. 일본으로의 생표고 수출은 2004년 5,352만 4천 달러에서 2008년 1,340만 7천 달러로 5.0% 감소하였으며, 건표고 수출 또한 2004년 5,589만 8천 달러에서 2008년 5,324만 달러로 4.8% 감소하였다.
 - 이는 일본이 2006년도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의 도입 이후 일부 중국산 생표고에서 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중국으로부터의 표고 수입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 국제 시장에서 중국산 표고버섯의 가격 우위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 소비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과 수입국에서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요구 강화가 잇따르고, 국내에서는 중국산 표고버섯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이산화황 검출 여파¹⁴ 등으로 중국의 표고버섯 수출은 줄어들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산 표고버섯의 일본 수출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1.3. 중국의 동향

- 중국의 표고버섯 재배는 800년 전 중국 절강성 용천현, 경원현, 경영현 등에서 일본식¹⁵을 사용하여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 균상 재배기술 개발에 힘입어 표고버섯 종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중국의 연구자가 일본에서 많은 품종을 도입한 것이 중국의 표고버섯 재배의 주요 품종이 되었다. 1980년대에는 중국 연구기관에서 표고버섯 교배에 착수해, 2002년 신향 8호, 신향 10호가 개발되었다.¹⁶
 - 현재 중국의 버섯 신품종 개발은 중국농업과학원, 상해시농업과학원 식용균 연구원 등의 공공 연구기관과 농업대학 등이 중심이 되고 기업의 개발 또한 적지 않은 편으로 중국의 성장력은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

¹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역의 재래시장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수입산 표고버섯의 농약 및 이산화황 잔류실태검사 결과 허용기준(30ppm)을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되었으며, 잔류 이산화황 평균 수치는 46.2ppm으로 나타났다(2009.8.21 발표).

¹⁵ 원목에 손도끼로 상처를 내고, 자연적으로 표고버섯 포자가 날아와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방법이다.

¹⁶ Techno Innovation. STAFF. 2009. no.73. p39.

- 중국의 대표적인 표고버섯 주산지는 복건(福建)성, 하남(河南)성, 절강(浙江)성으로 총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량은 2004년 약 217만 톤에서 2006년 약 329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 2002년에는 중국의 남동부에 위치한 복건성과 절강성이 표고버섯의 주생산지(전체 생산량의 약 45% 차지)였으나, 이후 중국의 남부지역인 하남성(약 30%)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다.

표 4-9. 중국의 성(省)별 표고버섯 생산 동향(생표고 환산)

단위: 톤, %

구 분	합계	복건	하남	절강	호북	산둥	섬서	기타	
2002	생산량	2,214,444	620,000	303,893	378,000	187,000	133,200	101,150	491,201
	(비율)	(100)	(28.0)	(13.7)	(17.1)	(8.4)	(6.0)	(4.6)	(22.2)
2004	생산량	2,176,903	-	689,903	364,572	186,617	221,091	86,645	625,531
	(비율)	(100)	-	(31.7)	(16.7)	(8.6)	(10.2)	(4.0)	(28.7)
2006	생산량	3,293,235	578,550	995,461	420,807	218,774	204,636	72,895	798,406
	(비율)	(100)	(17.6)	(30.2)	(12.8)	(6.6)	(6.2)	(2.2)	(24.2)

자료: 1) 「中國農產品加工業年監」. 2002.
 2) 「中國農業統計資料」. 2004, 2006.

- 중국의 생표고 주요 수출대상 국가는 일본, 미국, 홍콩, 네덜란드, 한국 등이고, 태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싱가포르 등으로도 수출되고 있다. 건표고는 일본, 홍콩, 한국, 말레이시아, 미국 등이 주요 수출대상 국가이고, 그 외 태국, 싱가포르, 북한, 캐나다, 네덜란드 등으로 중국의 표고버섯 수출국은 다변화되어 있다.
- 주요국별 수출동향을 보면 생표고는 전체적으로 2004년 대비 연평균 13.4%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네덜란드, 한국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한 반면 일본, 홍콩, 기타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표고는 2004년 대비 연평균 8.6%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한 반면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미국, 기타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고버섯의 주요 수출대상 국가인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62%에서 2008년 40%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6년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의 식품안전성 규제와 일본 내 소비감소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4-10. 중국의 국별 생표고 및 건표고 수출 동향

단위: 톤, %

구분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11)	연평균증감률 (08/04)
생 표 고	전체	32,265	26,409	22,576	20,687	10,675	11,987	-13.4
	일본	27,859	21,576	17,016	10,539	4,927	4,023	-16.5
	미국	2,549	2,657	3,190	3,100	3,628	3,624	8.5
	홍콩	258	-	3	5,212	-	-	-20.0
	네덜란드	315	653	608	726	710	628	25.0
	한국	201	351	710	309	654	929	45.1
	기타	1,083	1,172	1,049	801	756	2,784	-6.0
건 표 고	전체	24,678	24,226	17,599	19,919	14,119	18,520	-8.6
	일본	7,881	7,667	7,200	6,748	5,186	4,928	-6.8
	홍콩	8,265	6,907	3,748	4,917	1,818	2,432	-15.6
	한국	1,165	1,302	1,406	1,508	1,562	1,405	6.8
	말레이시아	1,207	1,428	756	1,805	786	1,462	-7.0
	미국	1,478	1,294	938	1,080	765	1,634	-9.7
	기타	4,682	5,628	3,550	3,861	4,002	6,658	-2.9

자료: www.kita.net

- 생표고를 수출하는 주요 지역은 절강(37%), 상해(25%), 복건(20%), 요녕(8%), 광둥(5%), 강소(2%) 등이며, 건표고 주요 수출지역은 복건(45%), 호북(19%), 광둥(13%), 절강(9%), 상해(5%) 등으로 특히 절강성과 광둥성 등의 중국 동부 연안지역의 수출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중국의 생표고 수입은 2004년 북한으로부터 61톤이 수입되었으나 2005년 이후로는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표고 수입량은 매우 미미하며 수입국은 중국¹⁷, 대만, 일본, 북한 등으로 소수의 국가로 형성되어 있다.

¹⁷ 중국이 수입하는 물량 중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경우는 중국으로 명시된다.

표 4-11. 중국의 국별 건표고 수입 동향

단위: 톤

구분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11)
건표고	전체	1	14	10	15	26	0
	중국	1	13	8	15	-	-
	대만	-	1	1	0	-	0
	일본	1	-	-	0	1	-
	북한	0	-	1	-	-	-
	기타	0	-	-	0	25	-

주: “-”는 수입실적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0”은 1톤 이하의 수량임.

자료: www.kita.net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동부 연안지역 수출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생산 및 수출입량이 현 수준에서 지속될 것이며 중국내 소비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표고버섯의 생산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중국산 표고버섯의 일본 수출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와 같은 원인이 중국 생산량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1.4. 일본의 동향

- 2008년 일본의 생표고 생산량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여 7만 342톤(4.7% 증가)인 반면에, 생표고의 수입량은 2004년을 정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건표고의 경우 생산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08년 소폭 증가하여 3,867톤(전년 대비 8.4% 증가)이 생산되었으며, 2008년 건표고 수입량은 일본 국내 수요량의 64.0% 비율을 차지하는 6,759톤이다.
 - 2008년 건표고 생산량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중국산 등의 수입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표 4-12. 일본의 표고버섯 수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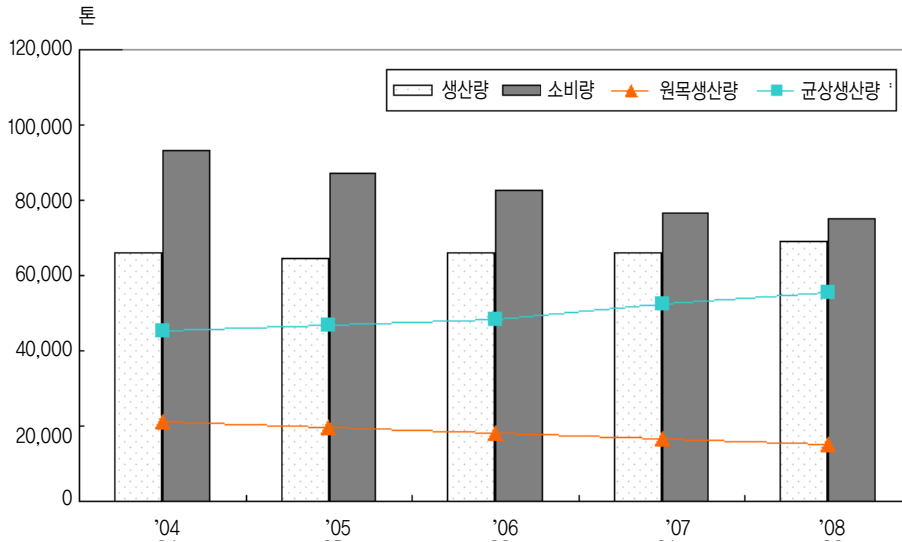
단위: 톤,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증감률 (08/04)
생 표 고	생 산	66,204	65,186	66,349	67,155	70,342	1.5
	수 입	27,205	22,526	16,394	9,972	4,689	-25.5
	소 비	93,409	87,712	82,743	77,127	75,031	-3.6
건 표 고	생 산	4,088	4,091	3,861	3,566	3,867	-1.0
	수 입	8,844	8,375	7,949	7,700	6,759	-5.8
	수 출	73	85	76	69	60	-4.8
	소 비	12,859	12,381	11,734	11,197	10,566	-4.3

자료: 일본 농림수산업성 임야청.

- 일본은 생표고 소비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균상재배를 통한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08년에는 생표고 소비량의 70%가량이 균상재배를 통해 생산된 표고버섯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0. 일본의 생표고 생산량(원목·균상) 및 소비량 비교



주: Techno Innovation. STAFF. 2009. no.73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표 4-13. 일본의 표고버섯(품목별) 생산량과 순위(2008년)

단위: 톤

주산지 (생산량 순위)	건표고				주산지 (생산량 순위)	생표고		
	동고 (冬菇)	향신 (香信)	산성 (山成)	합계		원목 재배	균상 재배	합계
오이타	663	761	65	1,489	도쿠시마	118	7,456	7,574
미야자키	79	350	217	646	군마	1,766	3,482	5,248
구마모토	103	155	25	283	홋카이도	466	4,547	5,013
에히메	26	75	125	226	이와테	352	4,304	4,656
이와테	69	63	58	190	도치기	1,372	2,887	4,259
도치기	40	102	20	162	나가사키	71	2,952	3,023
총생산량	1,226	1,891	750	3,867	총생산량	14,916	55,426	70,342

자료: www.e-stat.go.jp

- 건표고의 주 생산지는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구마모토현이며, 오이타현이 전체의 약 38.5%를 차지하고 있다.
 - 건표고는 향신¹⁸(48.9%)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동고¹⁹(31.7%), 산성²⁰(19.4%)이 생산되고 있다.
- 생표고의 주생산지는 도쿠시마현, 군마현, 홋카이도현으로 도쿠시마현이 전체의 약 10.8%를 차지하고 있다.
 - 생산방식에 있어서는 원목재배(21.2%)와 균상재배(78.8%)로 일본은 균상재배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추세이다.
- 일본은 잔류농약 검출, 만두 사태, 멜라민 사태 등으로 수입 농림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경계 수준이 더욱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중국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나빠져 일본의 중국산 표고 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산 표고의 수출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8 향신은 갓의 두께가 얇고 줄기도 가는 편이며, 형태는 갓이 활짝 피어 크기가 다양하다.

19 동고는 추운 겨울에 서서히 기른 것으로 갓이 두껍고 줄기부분이 굵은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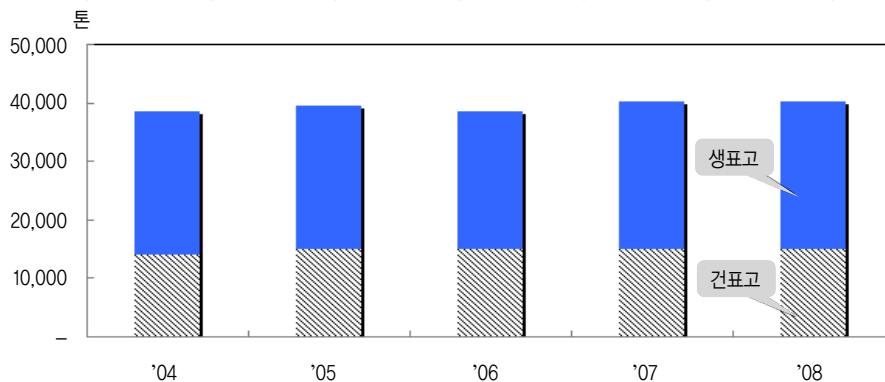
20 산성은 무선별 건표고를 말한다.

2.2. 국내동향

2.2.1. 생산 및 소비

- 표고버섯 생산량(생표고 환산 기준)은 2004년 3만 8천 톤에서 2008년 4만 톤이 생산되어 연평균 0.9%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2008년 대비 소폭 증가한 약 4만 583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생표고의 경우 2008년 2만 5,242톤이 생산되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건표고는 2005년과 2006년 소폭 증가하였으나 2008년 1만 4,854톤이 생산되어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 최근 원목재배 임가의 신규 접종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원목재배 방식에서 균상재배 방식으로의 전환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생표고 생산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건표고 생산량이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자목가격, 건조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의 증가, 노령화 등으로 건표고 재배 임가가 감소하였으며, 고온과 저온 등 재배환경이 좋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4-11. 표고버섯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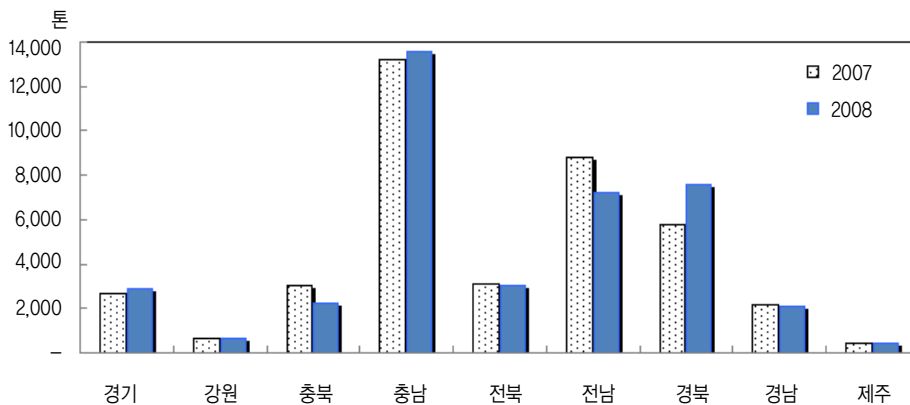
주: 건표고 생산량은 생표고로 환산하였음(환산 비율 7.31).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2000년~2007년, 「2008 임산물생산통계」.

- 2008년 표고버섯의 주요 지역별 생산량 비중을 살펴보면 충남(35.2%), 경북(19.7%), 전남(18.7%)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73.6%를 차지하고 있다.

- 전남 지역은 2007년 대비 생산량 비중이 4.2% 감소한 반면, 경북 지역은 2007년 대비 4.8% 증가하였다.
- 생표고의 최대 주산지는 부여로 2008년 총 생산량의 15.1%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청송(6.2%), 청양(6.2%), 문경(4.8%), 공주(3.8%) 등을 들 수 있다. 건표고의 최대 주산지는 장흥으로 2008년 총 생산량의 26.5%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문경(5.6%), 거제(5.6%), 진안(5.6%) 등이다.

그림 4-12. 지역별 표고버섯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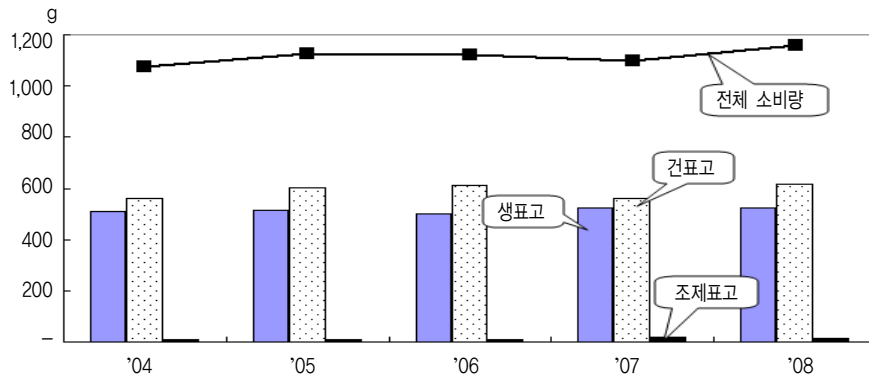


주: 건표고 생산량은 생표고로 환산하였음(환산 비율 7.31).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2007년, 「2008 임산물생산통계」.

- 국내 표고 총 생산량에서 톱밥재배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5% 미만, 2008년 10%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15~20% 수준이다.
 - 톱밥배지 재배방식은 균상재배 방식의 일종으로 거의 모든 활엽수 톱밥을 사용할 수 있고 잔가지 등 폐잔재를 활용할 수 있어 원목재배에 비해 자원이 절약된다. 또한 관리방법도 쉬워 노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재배 기간도 짧아 자본회수가 용이하다. 이 때문에 한국의 표고버섯 재배방식은 톱밥배지 재배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 표고자목 가격,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톱밥배지로의 전환을 계획하는 임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²¹, 톱밥배지 공급센터의 2010년 공급물량 대부분이 예약됨으로써 톱밥배지 확산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²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업관측 표고버섯. 2009. 12월호. 2009년 전체 표본임가 중 톱밥배지 표고를 생산하고 있는 임가는 6.0%에 해당되고, 2010년 톱밥배지 표고 생산계획이 있는 임가는 11.5%, 고민중인 임가는 9.0%로 조사되었다.

그림 4-13. 표고버섯의 1인당 소비량 추이



주: 건표고(환산 비율 7.31) 및 조제표고(환산 비율 0.20) 소비량은 생표고로 환산하였음.

- 표고버섯의 1인당 소비량(생표고 환산 기준)은 2004년 1.08kg에서 2008년 1.17kg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품별로는 2008년 1인당 소비량은 생표고 532g, 건표고 621g, 조제표고 16g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생표고(연평균 0.8% 증가) 및 건표고(연평균 2.0% 증가) 소비량은 소폭 증가한 반면, 조제표고²²(연평균 18.1% 증가)의 소비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고버섯은 건강식품의 한 종류로, 일반적으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표고버섯의 소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같이 표고버섯의 소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생산량 증가를 위한 재배임가의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표고버섯은 2010년부터 UPOV의 품종보호 대상작물²³로 지정됨으로써 표고 임가들의 품종사용료(로열티)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표고 임가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견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 또한 생표고 소비가 증가되면서 재배기간이 짧고 톱밥배지와 원목의 제품 차별화가 크지 않으며 노동력 절감 및 생산이 용이한 톱밥배지 표고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톱밥배지 생산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커 영세한 임

²² 조제표고(HS code: 2003901000) 정의: 원형 그대로의 표고버섯(생표고)을 신선처리, 냉장·냉동처리, 건조처리 등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염장(통조림), 가열, 삶음, 절단(슬라이스) 방법 등으로 처리된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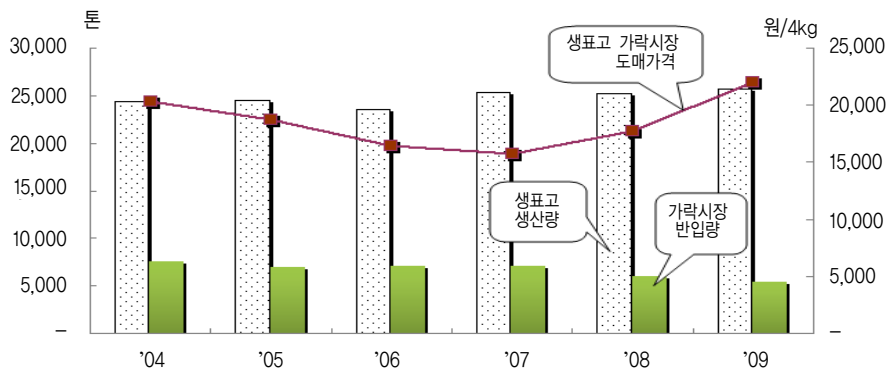
²³ 품종보호 대상작물이란 「종자산업법」에 의해 신품종으로 출원·등록되어 타인의 무단 증식 등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

가들은 톱밥배지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 이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2.2. 유통 및 가격

- 생표고는 산지조합 및 단위농협(60%)과 작목반(40%)을 통해 도매시장(80~85%)으로 출하되는데, 전체 출하물량의 25~35%는 가락시장으로 출하되며 대부분이 수도권 및 지방의 도매시장으로 유통되고 있다.
- 최근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의 반입비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소비자직거래와 대형마트 등 판로가 다양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물량의 전량 판매 용이성과 운송의 편리성 등으로 가락시장 유통 비중이 비교적 높게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자직거래 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유통업체를 선호하는 임가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⁴
- 생표고의 가락시장 도매가격(중품 기준)은 2007년까지 생산량이 늘어나며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생산량이 정체를 보이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14. 생표고 생산량, 가락시장 반입동향 및 도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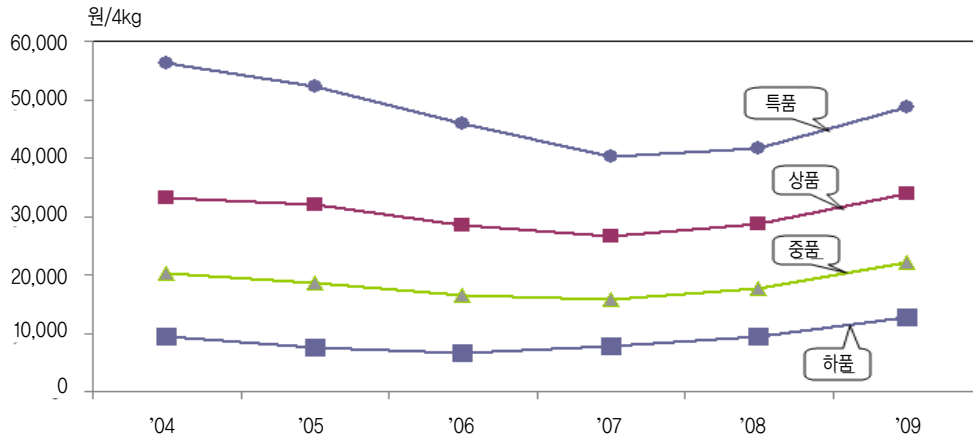


주: 생표고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중품 기준임.

자료: 「임업통계연보」 각 연보 활용, 2009년 생표고 생산량은 추정치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²⁴ 임업관측(표고버섯) 표본 임가를 대상으로 생표고 주요 출하처에 대한 조사에서 2008년(8월) 응답 결과 가락시장(56.9%), 수도권 및 지방 도매시장(20.6%), 소비자직거래(18.6%), 유통업체(2.9%), 산지수집상(1.0%)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8월)에는 가락시장(33.3%), 유통업체(22.7%), 수도권 및 지방 도매시장(21.2%), 소비자직거래(13.6%), 산지수집상(9.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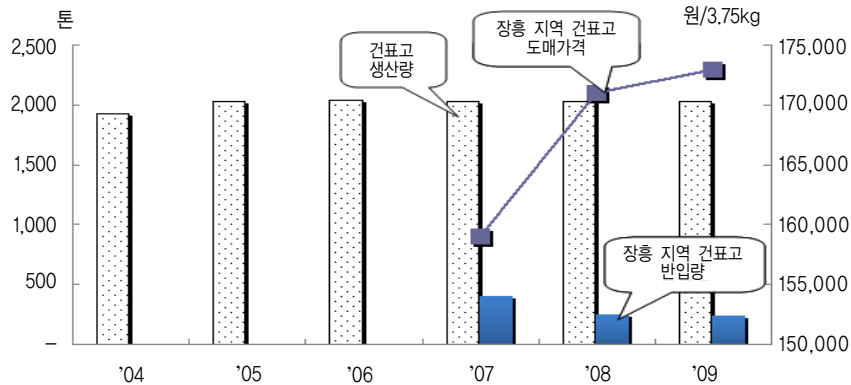
그림 4-15. 생표고의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등급별 가격 추이를 보면 특품의 가격 하락이 크고 상·중·하품의 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 고품질은 선물용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그 외 품질은 학교 식자재 등 식생활의 소비가 주를 이루고 있어 상·중·하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 건표고는 주산지인 장흥, 문경, 거제 등의 산지 농협 및 산지 표고협회에서 봄과 가을에 실시하는 입찰을 통해 유통되며, 특히 장흥지역은 인근의 전라지역 건표고 물량까지 입찰하고 있어 장흥 유치농협, 용두농협의 입찰 물량이 건표고 출하량의 40~45% 정도를 취급한다.
- 건표고 입찰 평균가격은 2007년 3.75kg당 15만 9천원, 2008년 17만 1천원, 2009년 17만 3천원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도매가격은 수출이 늘어나면서 물량확보로 인해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2009년에는 수출부진으로 도매가격은 2008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 건표고 생산이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어 향후 표고버섯의 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자재 및 건표고 슬라이스 등 다양한 용도의 소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국내 원목재배의 우수성을 이용한 건표고 고급화 전략을 통한 국내 소비 및 수출 마케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16. 건표고 생산량, 장흥지역 반입 동향 및 도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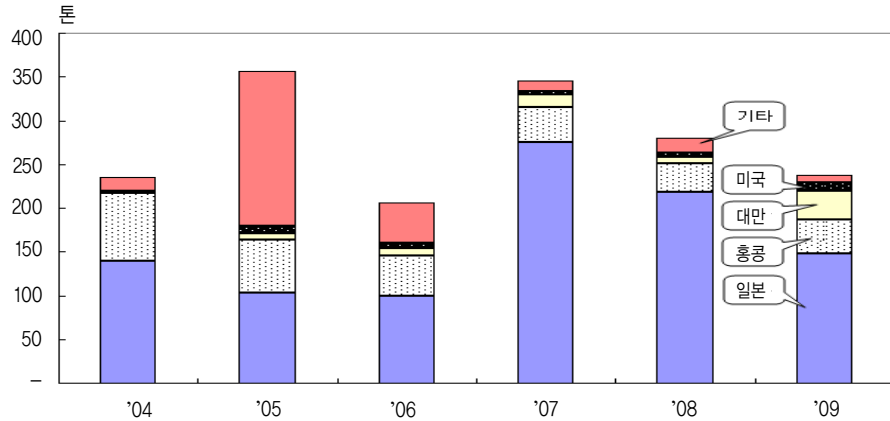


자료: 「임업통계연보」각 연보 활용, 2009년 건표고 생산량은 추정치임, 장흥 유치농협.

2.2.3. 수출입

- 국내 수출은 90% 이상 건표고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1980년대 말까지 표고버섯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하였으나 1990년부터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 이후에는 200~300여 톤 수준에 머물렀다.
 - 건표고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생산량 감소로 국내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시장구조가 내수 위주로 바뀌었고 해외시장에서는 저가의 중국산에 밀려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 최근 5년간 건표고 수출은 2004년 235톤(4,582천 달러)에서 2008년 280톤(5,993천 달러)로 2004년 대비 3.6%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238톤(5,155천 달러)으로 감소하였다.
 - 2009년 일본으로 수출된 건표고는 148톤(62.3%)이며, 홍콩 39톤(16.3%), 대만 32톤(16.5%), 미국 10톤(4.1%) 등으로 일본과 홍콩이 전체 수출량의 약 79%를 차지했다.
 - 2007년 일본과 홍콩으로의 수출량이 전체 수출량의 약 90%를 차지하였으나, 6~14톤의 소량으로 수출되었던 대만으로의 수출이 2009년 32톤이 수출되면서 일본과 홍콩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7. 건표고의 국가별 수출 동향



주: 2009년 자료는 1~11월까지 한국무역협회, 12월 관세청 자료를 합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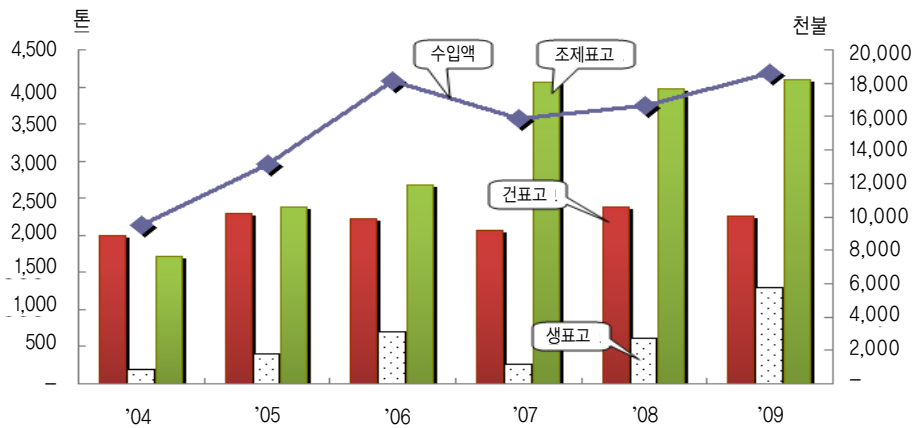
- 건표고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원목표고의 우수성을 이용한 고품질 위주의 판매 전략과 지속적인 공급체계의 구축, 규격화 등이 요구된다.
- 표고버섯의 수입은 주로 건표고²⁵, 조제표고이며 중국, 북한 등에서 수입된다. 표고버섯수입량²⁶은 2008년 1만 8,804톤(16,688천 달러)으로 2004년 대비 연평균 4.4%씩 증가해 왔다.
 - 2009년도 건표고 및 조제표고 수입량은 각각 2,251톤(생표고로 환산 1만 6,455톤), 4,092톤(생표고로 환산 818톤)으로 추정되며 매년 수입량의 변화는 적으나, 생표고 수입량은 1,301톤으로 국내 생산이 정체를 보이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조제표고는 전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며 통조림 등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식자재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 앞으로도 조제표고의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조제표고는 기본세율 20%로 생·건표고보다 현저히 낮아 많은 양이 수입되는 반면 생표고와 건표고는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조정관세를 적용²⁷하고 있어 수입량이 많지 않다.

²⁵ 건표고는 북한산 반입물량을 합한 것으로 북한산 건표고의 연간 반입한도는 800톤이다.

²⁶ 건표고(환산 비율 7.31) 및 조제표고(환산 비율 0.20)는 생표고로 환산하였으며, 생표고 수입량과 합한 값이다.

²⁷ 생표고와 건표고의 2009년 기본관세는 30%, 조정관세는 42% 또는 1,625원/kg을 적용하고 있다.

그림 4-18. 표고버섯의 제품별 수입 동향



주: 2009년 자료는 1~11월까지 한국무역협회, 12월 관세청 자료를 합한 것임

2.3. 수급 전망

- 표고버섯 생산은 톱밥배지 재배가 늘어나고, 국내 소비가 중·장기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약 4만 1,074톤, 2020년에는 약 4만 9,903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입은 중국산 위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에는 약 1만 8,688톤, 2020년에는 약 2만 4,525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수입 가격 상승과 중국산 표고버섯의 식품 안전성으로 인해 수입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수출은 향후 지속적인 연중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과 건표고의 고급화 수출 전략 등 수출 여건이 변화되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약 2,067톤, 2020년에는 약 7,868톤이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식생활 개선과 함께 건강식품 및 자연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1인당 표고 소비량은 2010년 1.18kg, 2020년 1.35kg으로 예상되며, 국내 총 소비량은 2010년 약 5만 7,695톤, 2020년 약 6만 6,56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4-14. 표고버섯 수급 전망(생표고 환산 기준)

단위: 톤

	2008	2009	전망		
			2010	2015	2020
공급	58,900	59,158	59,762	66,444	74,428
국내생산	40,096	40,583	41,074	45,276	49,903
수입	18,804	18,575	18,688	21,168	24,525
수요	58,900	59,158	59,762	66,444	74,428
국내소비	56,846	57,415	57,695	61,761	66,560
수출	2,054	1,743	2,067	4,683	7,868
1인당 소비량(kg)	1.17	1.18	1.18	1.25	1.35

- 2007년 세계의 밤 생산량은 122만 3천 톤으로 최근 5년간(2003~2007) 매년 2.5%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터키, 이탈리아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연평균 2.5~7.8%의 비율로 증가한 반면, 기타 국가의 생산량은 연평균 7.5%의 비율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생산량이 가장 많은 중국은 같은 기간 동안 세계 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에서 76%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정체상태를 보이던 터키의 비중은 4.3%에서 5.2%로 증가하였다.
 - 터키는 2003년 48천 톤에서 정체 후 생산량이 2007년 63천 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D305 /2010. 12
임업관측사업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10년 12월 일 발행 2010년 12월 일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www.krei.re.kr)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965-8401

인 쇄 동양문화인쇄포럼 02-2242-7120(E-mail: dongyt@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